

M46-6-1/2004.4
제6권 제1호/Vol. 6 No. 1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70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지인배 jjinbae@krei.re.kr	02-3299-4324
이정연 sabrina@krei.re.kr	02-3299-4370

목 차

□ 포커스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과 개선 방안 / 3

□ 동향분석

1. 2004년 농정방향 / 18
2. 축 산 / 27
3. 감자 농사 / 35
4. 이모작 / 41
5. 종 자 / 50
6. 과수, 콩 / 54
7. 토지정리사업 / 65
8. 국토관리사업 / 75
9. 기타 보도동향 / 87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15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15
 2. 대북한 지원 동향 / 126
 3. 교류협력사업 동향 / 130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31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41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41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46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59

포 커 스

-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과 개선 방안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과 개선 방안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남북한 교역이 북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농림수산물의 교역은 1989년 233만 달러에서 2003년 2억 5,319만 달러로 지난 14년 동안 교역규모가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림수산물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9년 12.5%에서 2003년 35%로 늘어났다. 최근 농림수산물의 대북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대북 무상 지원 또는 식량 차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거래성 교역만을 따진다면 반입이 반출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계속 교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에서 반입하는 품목 중 매년 100만 달러 이상 지속적으로 반입하는 품목은 견과류, 한약재, 버섯류 등 일부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농림수산물 반입업체수는 1989년 8개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5년 100여 개, 200년 471개사로 늘어났다. 2002년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는 업체 541개사 가운데 농림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수는 419개사로 전체의 77.4%를 차지한다. 업체당 평균 반입액은 연간 23만 8,000달러로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는 데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대북 정책과 국내 농림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고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농림수산업 정책 사이에 분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책 당국자 사이에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자거래로 인정하여 관세와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품목을 지정하여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HS 10단위 기준으로 195개이며 이들 대부분은 농림수산물이다.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이는 반입시 관세 부과와 관련이 있고 반입 후에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농림수산물의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직접교역의 확대 ②물류비를 절감하고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육상 수송로 및 해상 직항로 확보 ③통관절차의 간소화 ④신속한 거래를 위한 통행 및 통신 수단 강구 ⑤반출입 승인대상 품목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고시 ⑥성실 교역업체 우대제도 도입 ⑦반입 물품에 대한 품질 및 위생검사를 위한 북한의 신뢰성 있는 기관 지정 ⑧효율적인 검역체계 구축 ⑨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기초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

1. 서 론

한반도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 사이의 물자교류는 1988년의 ‘7.7선언’과 그 후속 조치에 따라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1989년 남북한 교역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교역규모가 2,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역규모가 1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1994년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교역규모는 연간 2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1989년 1,872만 달러에서 2003년 7억 2,422억 달러로 14년 동안 교역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1).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남북한 사이의 교역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1999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교역의 형태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단순한 물자교역에 머물렀으나 점차 위탁가공교역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부터 대북 식량차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와 관련된 자재와 장비 제공, 비료 지원 등에 따라 비거래성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교역 규모가 6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로써 남한은 북한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그 동안 남북한 교역은 규모 면에서 빠른 성장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 초기에는 북한이 직접적인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대부분 중국 등 해외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일부 위탁가공교역 품목을 중심으로 북한과 직접 상담하고 계약하는 직접교역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남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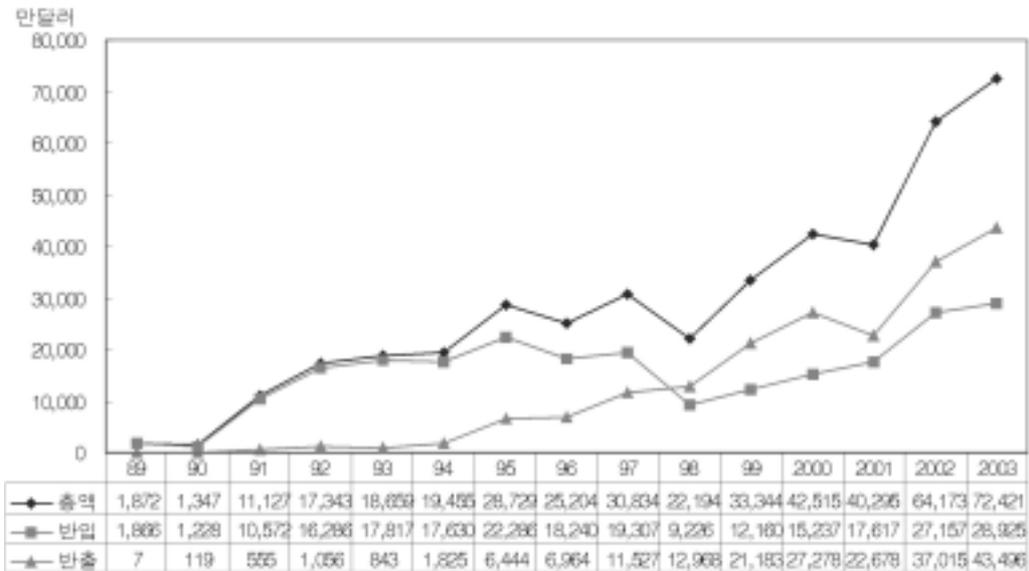


표 1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합 계	31,624	-	2,355,544	27,562	-	1,939,578	4,295,122	△415,963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14~150호.

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남북한 사이에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4개 경협합의서를 발효하는 등 남북한 간 경협 의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고 있어 앞으로 직접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경협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경협 활성화를 통하여 북한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남한은 이를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남북한 교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수산물을 중심으로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남북한 사이의 교역이 북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02년 북한의 무역액이 22억 달러이므로 남북한 사이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통계청).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의 교역이 북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남북한간의 교역이 북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97년까지는 반입이 반출을 초과함으로써 북한과의 교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 이후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8년부터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자재 반출, 대북 식량차관과 비료 지원 등 비거래성 물자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거래성 교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3년 남북 간 교역액은 7억 2,422만 달러이며 이 중에서 반입액은 2억 8,925만 달러, 반출액은 4억 3,497만 달러로 명목교역수지는 남한이 1억 4,571만 달러 흑자이다. 그러나 비거래성교역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1억 6,949만 달러 흑자이다. 전체 교역 중 거래성교역은 4억 868만 달러(반입 2억 8,908만 달러, 반출 1억 1,960만 달러)로 전체교역의 56.4%를 차지한다(표 2). 이 중에서 상업적 매매거래는 2억 2,367만 달러(반입

표 2 유형별 남북한 교역 현황(2002-03년)

단위: 천 달러

구 분		반 입	반 출	합 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가율(%)
거래	상업적거래	177,443	46,227	223,670	30.9	30.2
		(167,400)	(4,382)	(171,782)	(26.8)	
	위탁가공	111,639	73,370	185,009	25.5	8.1
		(102,789)	(68,388)	(171,177)	(26.7)	
	소 계	289,082	119,597	408,679	56.4	19.2
		(270,189)	(72,770)	(342,959)	(53.4)	
비거래	경수로사업	-	23,767	23,768	3.3	-59.4
		(1)	(58,568)	(58,569)	(9.1)	
	금강산관광사업	-	16,105	16,105	2.2	35.2
		(1)	(11,916)	(11,916)	(1.9)	
	협력사업	170	4,846	5,016	0.7	-61.6
		(1,385)	(11,665)	(13,051)	(2.0)	
KEDO 중유	-	-	-	0.0	-100.0	
	(0)	(2,041)	(2,041)	(0.3)		
대북지원	-	270,650	270,650	37.4	27.0	
	(0)	(213,194)	(213,194)	(33.2)		
소 계	170	315,368	315,539	43.6	5.6	
	(1,387)	(297,384)	(298,771)	(46.6)		
총 계	289,252	434,965	724,217	100.0	12.9	
	(271,575)	(370,155)	(641,730)			

주: ()안은 2002년 금액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0호, 2003. 12. 한국무역협회, 2003년 남북교역 평가, 2004(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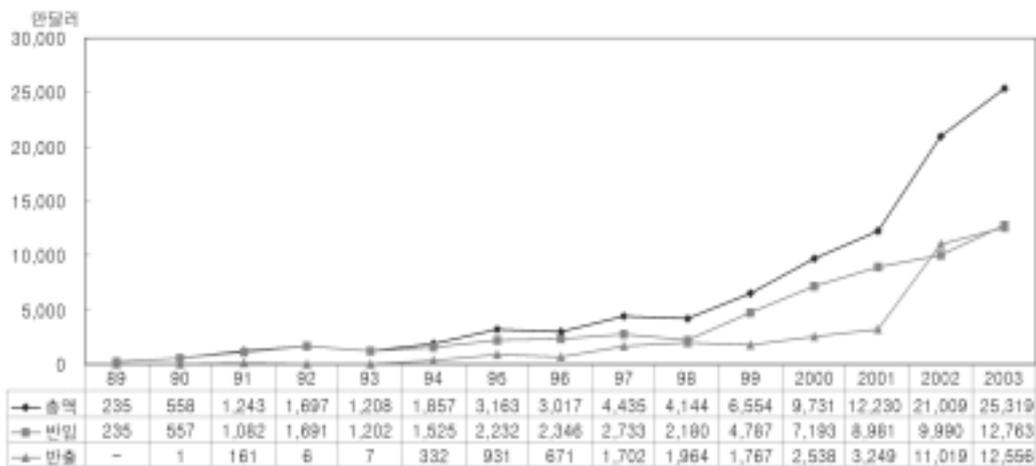
1억 7,744만 달러, 반출 4,623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0.9%, 거래성 교역액의 54.8%를 차지한다. 위탁가공교역은 1억 8,501만 달러(반입 1억 1,164만 달러, 반출 7,337만 달러)로 거래성 교역액의 45.2%를 차지한다. 비거래성 교역은 3억 1,554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43.6%를 차지한다. 비거래성 교역에는 경수로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남북협력사업, KEDO 중유지원, 기타 대북지원 등이 있으며 대부분 반출이다. 이 중에서 경수로사업은 2억 3,768만, 금강산관광사업 1억 6,105만 달러, 협력사업용 물자교역은 5,016만 달러, 대북지원 물품 반출 2억 7,065만 달러로 각각 비거래성 교역의 7.5%, 5.1%, 1.6%, 85.8%를 차지한다(표 2). 2003년 동안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 수는 481개 업체(위탁가공업체 109개 업체)이며 품목 수는 588개(위탁가공교역품목 217개)로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금년 1-3월 동안의 전체 교역액은 1억 4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1억 2,816억 달러에 비하면 18.6%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교역액의 74%를 차지하는 거래성 교역(7,711만 달러)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액은 4억 1,596억 달러에 달한다. 1990년대를 통하여 북한은 대외 무역에서 연간 5-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남한과의 교역에서는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았기 때문에 남북 교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동안 교역 대상 품목 수도 크게 증가하여 반입 품목 수는 200여 개가 넘으며 반출 품목 수는 500개를 초과한다.

농림수산물의 교역은 1989년 233만 달러에서 2003년 2억 5,319만 달러로 지난 14년 동안 교역규모가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2). 1989년에서 2003년까지 남한은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모두 2억 2,891만 달러의 교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대북 반출 가운

그림 2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데는 비거래성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래성 교역만을 감안한다면 교역수지 적자는 이보다 훨씬 크다.

남북한 전체 교역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12.5%에서 2003년에는 35.0%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물은 반출에 비해 반입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의 대북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차관을 통해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쌀을 북한에 반출함으로써 농산물의 대북 반출 규모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였다 (표 3). 따라서 쌀 반출을 제외하면 최근의 농산물 반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다. 임산물의 경우 2001년까지만 해도 반출에 비해 반입이 월등히 많았으나 최근 2년 동안 반입은 현저히 감소하는 대신 반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산물은 반출에 비해 반입이 월등히 많다.

표 3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174	2,352	-	-	-	-	2,352	△ 2,352
1990	5,130	49	393	5,572	10	-	-	10	5,582	△ 5,562
1991	6,364	1,402	3,052	10,818	1,607	-	-	1,607	12,425	△ 9,211
1992	9,546	2,277	5,083	16,906	64	-	-	64	16,970	△16,842
1993	6,916	4,221	879	12,015	63	-	6	69	12,084	△11,946
1994	5,315	7,212	2,723	15,250	3,220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6,003	2,810	22,319	8,879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2,014	9,588	23,455	6,044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4,902	14,553	27,326	16,525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3,526	13,377	24,798	18,732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4,484	28,327	47,868	15,682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7,014	41,566	71,932	23,910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81	5,717	45,316	89,814	29,096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9,276	95	70,531	99,902	108,15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7,677	245	89,714	127,635	119,770	2,206	3,583	125,559	253,194	△2,076
합 계	220,447	49,161	328,086	597,962	351,761	7,489	9,798	369,048	967,010	△228,914

주: 1)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축산물은 농산물에 포함됨.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 통계자료(198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14~150호. <http://www.unikorea.go.kr>

2003년의 경우 농림수산물의 반입은 전체 반입액의 44.1%, 반출은 전체 반출액의 28.9%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농림수산물이 전체 반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01년에는 51.0%에 이르렀다. 반출의 경우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10-15%에 머물렀으나 최근 2년 동안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30%에 육박하고 있다.

남북한 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북한으로부터 감자 등 식량을 반입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식량난 이후 식량 반입은 중지되었으며 반입 품목 수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매년 30여 종의 농림산물을 반입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연평균

표 4 주요 농림수산물 반입 실적(2000-2003)

단위: 천 달러

연 도	2000	2001	2002	2003
대두	-	-	483	1,388
녹두	-	-	411	1,814
채유용농산물	6,056	12,846	851	42
건조채소	2,228	4,027	-	-
기타채소	-	-	2,400	3,896
조제과실	2,680	9,257	-	-
고사리	-	-	3,674	5,506
송이버섯	1,305	667	1,012	497
표고버섯	1,056	2,267	1,435	2,176
기타버섯	575	443	1,085	6,627
견과류(호도)	3,810	2,068	2,994	2,614
잎담배	904	1,193	976	367
제조담배	5,367	2,396	3,562	1,948
한약재	3,538	4,355	5,142	5,223
계	1,427	3,917	2,583	3,999
문어	-	-	4,670	5,092
조개	9,738	10,882	16,191	20,337
냉동어류	2,985	1,273	-	-
기타갑각류/연체동물	8,811	8,243	5,595	8,566
염장수산물	3,139	1,203	1,047	339
건조수산물	-	-	25,201	40,944
수산물공품	7,018	9,245	10,061	6,250

주: 1)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연간 반입액 100만 달러 이상의 농림수산물만을 포함함.

3) 일관된 품목 분류기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품목별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14~150호. <http://www.unikorea.go.kr>

100만 달러 이상 꾸준히 반입하는 품목은 3-4개에 불과하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반입한 농림수산물로는 견과류, 한약재, 버섯류 등에 한정되어 있다.¹ 2000년 이후에는 유지류, 채소류, 견과류, 버섯류, 한약재 등이 주요 반입 품목이었다. 수산물의 경우 게, 문어, 조개, 갑각류 및 연체동물, 염장수산물, 수산가공품 등이 주요 반입 품목이다(표 4).

농산물 중에서 호두, 고사리등은 북한산 반입 비율이 비교적 높으나 한약재, 송이버섯, 들깨 등은 10% 내외로 낮은 편이다. 고사리를 제외하고는 북한산이 중국산보다 대체로 반입단가가 높다. 한약재, 들깨 등은 중국과 반입단가가 비슷하지만 버섯류와 호두는 중국에 비해 높다(한국무역협회).

농림수산물 반입업체는 1989년 8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100 여개, 2000년 471개사로 늘어났다(한국무역협회). 2002년 중 북한산 품목의 반입업체 541개사 가운데 농림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수는 419개사로 전체의 77.4%를 차지한다. 이 중 농림수산물 반입업체수는 268개사, 수산물 183개사, 축산물 및 임산물 22개사이다. 업체당 평균 반입액은 23만 8,000달러로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농림수산물 교역 활성화 방안

남북한 농림수산물의 교역에 있어서 대북 반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반입하는데 있어서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대북 정책과 국내 농림수산물 시장의 안정 및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농림수산업 정책 사이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 당국간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남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여 관세와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품목을 지정하여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남북한 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한다. 무관세로 인한 국내 생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현재 HS 10단위 기준으로 195개 품목에 이른다.² 이들 반입 승인대상 품목은 대부분 농림수산물로서 국내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들 반입 승인대상 품목은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정에 의한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 대상이

¹ 2001년까지 농산물 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참깨와 들깨에 대한 반입 규제도 2002년 이후 이들 품목의 반입이 크게 감소함.

²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통일부 고시 2003-5호(2003. 12. 22).

되는 물품이다. 반입 승인대상이 되는 북한산 농림수산물 가운데는 반입 승인 품목과 반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국내 생산이 소비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과거의 반입 실적과 국내외시장가격을 토대로 품목별 쿼터량과 승인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반입 건별 승인절차를 정례적 승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 교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형태에 따라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된다. 2003년 9월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가 300여 개의 남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직접교역업체의 비율은 17.4%인 반면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은 60.1%, 직접교역과 간접교역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교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통일부).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가 없으나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교역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교역에 따른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2003년 8월 20일 남북한 사이에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가 발표되고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됨으로써 직접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교역을 확대할 경우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 이외에도 남북한 교역 당사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교역으로 전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국내업체 사이에 과당경쟁이 예상되며 물류장애가 심화되며 거래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육상 운송로를 확보하여 물류비 부담을 절감하고 남북한 교역 당사자 간에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며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상호 교역창구를 개설하고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 간 청산결제 합의서가 발효되어 있으므로 남북한 양측이 청산거래 또는 환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국을 경유한 대금결제의 불편을 피하고 결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남북한 사이의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농림수산물의 반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일인데 이는 관세 부과와 관련이 있고 반입된 물품의 국내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제3국의 농산물을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묘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중국산 위장 반입이 가장 큰 문제이다. “남북

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4호) 제6조에 의하면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은 2003년 남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2003-4호) 제3조에 의하면 “남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원산지확인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 남북한 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교역을 촉진하도록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2003년 12월 20일 제1차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확인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3년 12월 29일 북측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5건에 대해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북한은 2004년 3월 2일 그 결과를 통보해옴으로써 원산지증명서 확인에 관한 시범실시를 완료하였다. 북한은 2003년 11월 6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주 단위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오고 있으며 우리도 북한에 발급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확인 절차가 확립된다면 농림수산물의 위장반입을 방지하고 남북한 교역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교역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은 민경련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염려한다.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물품 대금의 3-5%를 지불함으로써 반입 물품의 단가가 올라가고 이는 사업자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산지 확인 비용을 건당 정액제로 전환할 경우 반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교역의 어려움은 교역에 참여하는 사업자수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99년 남북 교역에 참여한 329개사 가운데 2003년까지 생존한 업체 수가 22개사에 불과하여 생존율이 7%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공의 경우는 이보다 나아 76개사 가운데 16개사가 생존함으로써 생존율이 20%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 교역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때문에 교역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업체에서는 남북 교역 과정에서 ① 북측이 원래 계약한 물품 이외에 이물질을 섞거나 품질이 낮은 물품을 섞음으로써 상품성이 저하 ② 반입 물품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선별 및 등급 분류 과정에서 과다한 인건비 소요 ③ 업자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재고 증가 및 판매 부진 ④ 북측이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상품이 부패 또는 변질되거나 판매 적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손해를 보거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요약 및 결론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이 단기간에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첫째, 북한은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농림산물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 국내 반입이 가능한 품목에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입을 하더라도 국내 판매가 쉽지 않다. 셋째, 농림수산업의 특성상 농림수산물은 계절적으로 생산되고 더구나 북한은 계획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필요한 반출 물량을 탄력성 있게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넷째, 북한은 교통, 통신, 수송 등 교역 하부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필요한 농림수산물을 적기에 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농림수산물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남북한은 지리적인 접근성, 환경 등 농림수산물 교역에 유리한 점이 많다. 둘째, 현재 남북한 사이의 농림수산물 교역량은 남한의 전체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역을 위한 하부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경제협력 분야의 4개 합의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갖추어지게 된다. 넷째,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원산지증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품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이는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그 동안 남북 교역은 주로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방식이었으나 이제 직교역 방식이 가능해짐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교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농림수산물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물류비를 절감하고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나 도로 등 육상운송로를 확보해야 하며 해상운송에 대해서도 직항로의 정기선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관에 따른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서류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셋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사중재기구를 조속히 구성, 운영한다. 넷째, 자유로운 통신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거래 과정에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한 간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접경지역 인근에 경협상당소를 설치하여 이를 교역기업 종합지원센터로 발전시킨다. 여섯째, 농림수산물 교역의 특성과 남북한 교역의 특수성에 따라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확립

한다. 일곱째, 농림수산물의 이동에 따른 병해충 확산과 위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여덟째, 농림수산물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반출입 승인 대상품목에 대해 매년 초 당해연도의 반입한도를 신속하게 결정, 고시한다. 아홉째, 반입승인 품목의 가격 결정 절차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열 번째, 성실한 교역업체를 우대하고 부정유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교역질서를 확립한다. 열한 번째, 교역 대상 농림수산물의 품질저하를 막고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인근에 저온저장시설 등 비축기지를 설치, 운영한다. 열두 번째, 농림수산물의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원산지의 증명뿐만 아니라 북한의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반입물품에 대해 품질 및 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열세 번째, 남북한 사이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주요 생산지, 생산시기, 생산실적 등 기초적인 정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훈, 임정빈,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이상만 외, 국내적 통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 경제 분야, 통일연구원, 2003.
- 임정빈 외,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 제성호 외, 법·제도 분야 통일 인프라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003.
- 조동호 외,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3.
- 통일부, 남북교역 통계자료(1989-97), 1998.
- 통일부, 남북교역 실무안내, 2004.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제127-150호), 1989-2004.
- 한국무역협회,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실태, 2003. 4.
- 한국무역협회, 통일부, 남북교역 실태 조사 결과, 2003. 9.
- 한국무역협회, 2003년 남북교역 평가, 2004.

동향 분석

1. 2004년 농정방향
2. 축 산
3. 감자 농사
4. 이모작
5. 종 자
6. 과수, 콩
7. 토지정리사업
8. 국토관리사업
9. 기타 보도동향

* 북한의 주요 신문인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과 <민주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의 농업관련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동향분석 요약

지 인 배

(전문연구원, jjinbae@krei.re.kr)

북한은 2004년 1월 1일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공동사설을 게재하고, 경제분야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하고, 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전력생산을 늘여야 하며, 철도운수를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현 시기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과 기술에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에 맞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 하에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해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과 함께 공농사와 과수업, 축산업과 잠업 등 농촌경리의 각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기사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황해남도 신원군의 계남목장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축산기지 운영상황과 함께 새로운 축사 및 닭공장 건설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또한 보건성에서는 조류독감을 막기 위해 위생선전사업을 실시하고 검병, 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감자농사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의 거름내기 작업동향과 함께 감자재배 면적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 육종 및 감자종자 무바이러스화를 위해 각 연구소에서 종자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감자수송, 저장, 가공 등 감자가공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종자개발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의 연구소에서 이모작농사에 필요한 벼, 강냉이품종 육종, 지역별로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콩종자 연구, 키낮은 사과나무품종 확대도입, 새 염소품종의 완성 등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도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개수리시설과 설비를 수리정비, 현대화하며 여러 지대의 자연흐름식 물길을 조성하여 관개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03년 개천-태성호물길공사 완공에 이어 현재 평안북도의 백마-철산물길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산림조성사업 준비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평양의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린 제8차 김정일화축전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1. 2004년 농정방향

- 북한은 2004년 1월 1일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게재하고 농업부문에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감자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새해공동사설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 중에서 발췌(로동신문 1. 1, 민주조선 1, 1)
 - 지난해 우리는 공화국 창건 55주년을 맞아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일심단결과 우리 식의 국가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나라의 자립적 경제력이 한층 강화되고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더욱 발전시켰음.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었음.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가 진행되었으며 감자농사와 이모작농사에서 훌륭한 경험들이 창조되었음.
 - 올해 우리 당과 군대와 청년들 앞에 나서는 총적인 과업투쟁은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 전선에서 강성대국의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첫째, 정치사상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야 함.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청년들에게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체득시키고 선군사상을 신념화, 체질화하도록 해야 함. 둘째, 반제군사전선을 강화해야 함. 반제군사전선의 중심인 인민군대에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을 세우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최강의 군사기술적 위력을 갖춘 정예무력으로 만들어야 함.
 - 경제과학전선에서 일대비약을 일으켜야 함.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함.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

업부문을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해야 함. 경공업부문은 기존의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기술개건을 추진하여 인민소비품의 생산량과 질을 높여야 함.

-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감자농사혁명을 추진하며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이와 함께 콩농사와 과수업 발전에도 힘을 쏟아야 함.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백마-철산 사이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함. 도처에 건설된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들이 높은 생산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함.
-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여야 함.
- 또한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선진과학기술 도입사업과 과학자, 기술자 후진양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함. 그리고 내각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야 함.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를 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연계시켜야 함.
-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전선의 3대 전선에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04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1995	· 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을 통한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 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주체농법의 관철로 알곡생산목표 달성
1996	·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민생활 향상 및 자립적 경제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 달성
1997	· 자력갱생의 구호하에 경제적 밀천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토건설로 부강한 조국의 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민들의 지향,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풍년, 고기풍년 마련. 초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초식가축 사육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전개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4

연도	경제전반	농정방향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은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전선임.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의 증대, 먹는 문제 완전 해결 - 종자문제해결, 2모작 확대 - 농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수행 -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에 경제적 힘이 밀받침될 때 명실공히 강성대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전반을 자기의 궤도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에 전 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 해결 - 감자농사혁명 -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개선 - 2모작 확대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토지정리사업의 대대적 전개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임. · 당의 경제정책을 옹호 관철해 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워야 함.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농법의 철저한 관철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2모작 확대, 초식가축 사육 증대 - 양어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 -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의 중심 과제는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는 것임.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부문임. -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고, 석탄생산 증대 - 금속공업의 설비 현대화를 통해 철강재 생산의 활성화 - 철도운수를 정비 보장하여 증가하는 수송수요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생산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임.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의 지속적 추진 - 2모작 면적의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위주로 양어 확대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4

연도	경제전반	농정방향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제일주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임. - 채취,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 증대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대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관리의 개선 및 완성 · 제도 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 증대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야 함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바탕으로 한 인민경제활성화 · 경공업의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인 생산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배우고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임 · 모든 부문, 단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해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함 ·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함 · 화학발전소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집중하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감자혁명과 두벌농사를 발전시켜야 함 ·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함 ·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 김일성의 노작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40주년을 기념하여 농업발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도

○ 김일성의 노작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40주년을 기념하여 농업발전 현실에 대해 집중보도(로동신문 2. 24)

·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40주년을 맞은 우리의 농업은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농법으로 발전하고 있음. 김정일은 량강도 대흥단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정한데 이어 감자재배면적을 늘이는 것과 함께 종자를 개량하고 영농기술 및 방법을 혁신하도록 하였음. 또한 무바이러스 종자문제를 해결하여 감자를 통알째 심는 방법, 감자역병과 병충해 방지대책 등 감자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음. 이렇듯 대흥단식 과학농법이 창조됨으로써 온 나라의 감자농사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음.

· 김일성과 김정일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음. 김정일은 농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 토지정리사업을 인민군대식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서부지구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개천-태성호물길공사 2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농업혁명방침에 따라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개선강화되고 있음. 함경남도 함주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일군들을 대상으로 영농공정별 기술학습을 매주 한차례씩 진행하고 각 협동농장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농사준비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40주년을 맞아 농촌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4)

·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이후 지난 40년 동안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강화발전시키고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매진해왔음. 최근 10년 동안에도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등에서 토지정리사업을 통해 경작지를 규격화하여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는 등 농촌기술혁명을 높은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농촌테제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통해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실현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

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음. 김정일은 농촌테제를 토대로 사회주의농촌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문제의 성과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농업성 부상 최상벽과의 문답>

-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한 토지정리사업은 김정일이 우리 당의 중요한 농업혁명방침의 하나로 제시한 것임. 강원도, 황해남도, 평안남북도, 평양시는 토지정리를 통해 논두렁과 논배미를 축소정리하고 새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각지 농촌에서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 농촌경리의 수리화문제는 대규모 자연흐름물길인 개천-태성호 물길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개천시에서 강서군에 이르는 150여km의 물길을 따라 대동강물이 견룡저수지, 태성호를 비롯한 20여 개의 저수지들에 흘러들고 있음. 이에 따라 평안남도와 평양시의 10여 개 시, 군, 구역의 10만 정보의 땅에서 대동강물로 농사를 짓게 되었음. 앞으로 백마-철산물길이 완공되고 도처에 자연흐름물길 형성사업이 진행되어 우리 식의 관개수리체계가 완비될 것임.
-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건설 사상과 영도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자’를 게재(로동신문 2. 25)
- 1964년 2월 25일,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음. 농촌테제는 사회주의농촌 건설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원칙과 과업, 방도들을 밝힌 것으로 농업협동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업 및 농민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김일성의 사회주의농촌 건설사상과 영도업적은 김정일에 의해 계승되고 있음. 김정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등 여러 노작을 통해 농촌건설사상을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김정일의 영도 하에 선군시대 주체농법인 대홍단식 과학농법이 창조되고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이모작농사와 콩농사방침 등의 농업정책이 제시되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음. 또한 강원도에 이어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양시, 평안남도 등 서해곡창지대의 수십만 정보의 토지가 정리되어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가 실현되었음.
 - 김정일이 제시한 농업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키면서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삼아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며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

켜야 함. 농업을 과학화, 현대화하고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여러 지대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대자연개조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사회주의농촌 건설은 직접적 담당자인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동원되어 수행해야할 중대사업. 농촌 당조직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농촌계급진지를 공고히 하면서 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해야 함. 또한 모든 분야에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책임있게 하여 우리 농촌을 강성대국의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야 함.

○ 김일성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4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소식을 보도(로동신문 2. 25, 민주조선 2. 25)

- 김일성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4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가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내각성원들,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을 비롯하여 각 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이 기념보고를 하였음.

<김영남 위원장의 기념보고>

- 1964년 2월 25일, 김일성은 농촌테제를 발표하여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를 실현한 다음 농촌문제 해결의 방향과 기본원칙, 기본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음. 김일성은 우리 식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와 농업지도체계를 확립하고 농촌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과 농촌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였음. 또한 수리화, 전기화를 실현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주었으며 농업현물세를 폐지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재정적 토대를 강화하였음. 이렇듯 농촌테제는 우리 농촌건설에 구현되어 그 위대성과 정당성이 입증되었음.
- 김일성의 사회주의농촌 건설구상은 김정일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 김정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맞게 당조직이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달성하도록 하고 농촌에서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상, 기술, 문화혁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었음.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이 적극 추진되어 농업근로자들은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기술문화수준도 높아져 과학

기술적으로 영농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농촌경리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함. 사상혁명 발전을 위해서 모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 선군사상을 신념화, 체질화해야 함. 기술지식과 문화수준을 높여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야 함. 농업대학, 전문학교의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농촌에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건설하는 등 농업과학기술지식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현 시기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혁명을 이루어야 함.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에 맞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 하에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해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과 함께 콩농사와 과수업, 축산업과 잠업 등 농촌경리의 각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함. 또한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개수리시설과 설비를 수리정비, 현대화하며 여러 지대의 자연흐름식 물길을 조성하여 관개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야 함. 전력생산기지의 생산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이미 건설된 중소형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촌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해야 함.
 - 농촌지원은 농촌테제에 밝혀진 대로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의 기본방도 중 하나임.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업부문은 생산을 늘리고 국가적인 보장사업을 강화하여 농촌에 전력, 기름, 비료, 농기계부속품을 영농공정에 맞춰 제때에 무조건 보장해주며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농촌에 인력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함. 농촌경리부문은 사회주의원칙 하에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농촌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리운영방법을 더욱 개선완성하며 사업방법을 혁신해야 함.
- 사설 ‘당의 선군령도 따라 사회주의농촌 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를 게재(민주조선 2. 25)
- 1964년 2월 25일,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음. 농촌테제는 사회주의농촌 건설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원칙과 과업, 방도들을 밝힌 것으로 농업협동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업 및 농민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농촌테제를 바탕으로 오늘날 사회주의농촌의 **정치사상**은 굳건히 다져졌음.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더불어 주인의식으로 무장되어 농촌테제를 실현하는데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음. 또한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어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음. 이와 더불어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생산공급되어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가 실현된 것도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담보해주는 성과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업근로자들은 현대적으로 일신된 사회주의문화농촌에서 문화주택을 쓰고 있으며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장제 등 모든 국가적 혜택을 누리며 **물질문화생활**을 하고 있음. 이렇듯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추진되고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사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
-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에서 김일성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김정일에 의해 계승되고 있음. 김정일은 사회주의농촌테제 관철에 나서는 이론실적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밝혀 주었고 선군영도를 통해 농촌의 정치사상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추진하였음. 이와 함께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이모작농사혁명 등 농업정책을 제시하고 현대적인 축산기지, 가금기지를 건설하도록 하였음.
- 오늘날 우리는 김정일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농촌테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함. 농업근로자들에게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깊이 체득시켜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함. 또한 농촌경리 부문에 조성된 물질기술적 수단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토지정리와 백마-철산물길공사를 계속 추진해야 함.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감자농사, 이모작농사를 적극 밀고 나가며 콩농사와 과수업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함. 농업과학 성과를 도입하여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이루어야 함.
- 이와 함께 사회주의농촌 지원 강화를 위해 공업의 방조와 도시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주체농법을 바탕으로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며 현대적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함. 각급 농업지도기관들은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계획화수준을 높이고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2. 축 산

- 북한은 새해공동사설을 통해 각 지역의 축산기지들과 닭공장의 개건현대화를 통해 축산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함. 또한 보건성에서는 조류독감 전담 상무조를 조직하고 국가위생검열원과 치료예방국, 위생방역일군, 호담당의사들로 하여금 위생선전사업을 실시하고 검병, 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
- 양계
 - 평양시 만경대닭공장의 새해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3)
 - 평양시 만경대닭공장은 지난해 달걀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였고 올해 더 높이 세운 달걀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닭사양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성금2직장은 월령별로 먹이를 공급하고 각 상자별 닭들의 생리적 상태를 따져 가며 먹이와 물을 주고 있음. 2호직장은 겨울철 조건에 맞게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후보2직장은 달걀생산에 지장 없도록 후보닭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음.
 - ‘닭공장 생산정상화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6)
 - 개건현대화된 닭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식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임. 닭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일군들과 기술자, 관리공들은 설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갖추고 적극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야 함. 이와 함께 닭관리공들은 닭 사양관리를 생리적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 해당 단위에서는 먹이생산량을 더욱 늘이고 배합먹이 생산과 그 질을 높여야 함. 또한 닭공장에서는 수의방역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수의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함.
 - 함경남도 함주중금장의 거친먹이발효제 생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30)

- 함경남도 함주종금장은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고 합심하여 2001년 12월, 향가루균곡자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음. 주원료와 몇가지 부원료로 만드는 향가루균곡자는 마른 낱알짚을 발효시켜 사과향냄새가 나게 함으로써 소와 염소의 식욕을 높여줌. 함주종금장은 겨울철기간 향가루균곡자에 의해 처리된 먹이를 소에게 먹여 많은 먹이를 절약하면서도 소화되는 조단백질 함량은 1.8배, 먹이단위와 열량은 각각 1.2배로 높이고 소화율과 증체율도 향상시켰음.

○ 가금 현대화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2)

-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닭고기와 닭알을 풍족하게 먹이기 위해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도에 닭공장을 조성하도록 이끌어 만경대닭공장, 룡성닭공장, 서포닭공장 등이 건설되었음. 김정일도 황주닭공장과 112호닭공장, 강계닭공장을 비롯하여 도처에 현대적인 닭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였음.
- 김정일은 수도시민들에게 닭고기와 닭알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평양시내 닭공장들의 개건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음. 평양시내 모든 닭공장들을 최신식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공장으로 개건현대화하는 기간동안 김정일의 말씀은 40여 차례나 되는데 공사작업 형식과 방법, 인력보장문제와 종자알과 종자닭 확보문제, 닭사양관리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음.
- 또한 김정일은 방대한 닭공장 개건현대화공사에서 하나의 작업방식에 의해 복잡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입체전을 벌리도록 지도해주었음. 입체전을 통해 닭공장 개건현대화공사는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닭고기와 닭알이 생산되게 되었음.

□ 조류독감

○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수의방역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수의방역소는 현지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우량종 염소 등 각종 가축들의 병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약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수의방역소 일군들은 앞선 단위를 방문하여 수의방역 경험을 배우고 각종 참고서들과 과학기술도서를 통해 수의학을 학습하고 있음.

○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 조류독감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업성에서는 가금부문에서 조류독감을 막는데 필요한 기술자료들을 준비하여 각 도, 시, 군에 보내고 각급 수의방역기관 일군들을 대상으로 기술강습을 진행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보건성에서는 조류독감 전담 상무조를 조직하고 위생방역일군들과 호담당 의사들로 위생선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과 치료예방국에서 파견된 일군들이 현지에서 위생선전과 검병, 검진사업을 벌이고 있음.

□ 겨울철 염소 사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새끼번 어미염소의 사양관리와 농부산물을 비롯한 염소먹이 공급, 겨울철 방목 요령 등에 대해 보도

□ 염소사육

○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의 겨울철 우량종 염소사육 경험에 대해 소개(로동신문 1. 5)

- 염소사육에 있어서 겨울은 새끼를 배거나 낳는 시기이므로 우량종 염소에 대한 영양관리를 각별히 해야 함.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은 새끼 번 우량종 염소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일별, 월별, 분기별 먹이보장계획을 세우고 농사일과는 별도로 우량종 염소가 좋아하는 잎가지먹이를 비롯한 영양가 높은 풀을 베어들이고 곡식짚, 채소부산물 등 겨울철 염소먹이를 마련하였음. 이렇게 마련한 겨울철 염소먹이 수천 톤은 저장고와 야적장, 탱크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관됨.
- 또한 농장에서는 영양가 높고 소화흡수율이 좋은 가공 알먹이 생산을 위해 균처리장을 자동식으로 만들고 건초분쇄기 등 알먹이생산설비의 가동능력을 증강하였음. 분장에서는 종자염소, 후보염소, 새끼번 염소의 영양학적 요구에 맞게 하루먹이량과 먹이종류별 영양분석을 통해 10일먹이지령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먹이를 공급하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겨울철 우리 온도를 보장하기 위해 나래를 치고 북쪽 벽체에 바람막이바자를 치는 동시에 우리바닥에 여러 가지 짚을 깔아주어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음. 또한 기온이 높은 날을 골라 환기를 시키고 우리마다 일정한 두께로 톱밥을 깔고 자체로 배양한 균을 접종시켜 가스피해를 막는 등 겨울철 관리조건을 과학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평안북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6)

- 평안북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은 지금 사육하고 있는 염소를 모두 우량종으로 교체할 목표를 세우고 관리공들을 대상으로 새 품종 염소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기술학습을 실시하는 동시에 농장에 보유하고 있는 새 품종 염소에 대한 새끼낳이 조직과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분장에서는 과학적인 가축 사양관리를 위해 먹이생산에 중점을 두고 며칠 사이에 20정보의 먹이밭에 정보당 20톤씩의 질 좋은 거름을 냈음. 또한 이동식 방목우리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자재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음.

○ 각지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4)

- 평안남도 맹산군 대홍협동농장은 올해 염소를 1.6배로 늘려 다양한 젖가공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음. 농장에서는 염소를 목표한대로 늘리기 위해 영양관리를 잘하고 염소무리별로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평안북도 삭주군 당목협동농장 제9작업반 김용옥의 가정에서는 인근의 산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먹이풀을 넉넉히 마련하여 토끼를 사육하고 있음.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카시아나뭇잎, 칩, 싸리나뭇잎, 사라구 등을 먹이로 이용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말린 먹이를 가루로 만들어 알로 빚어서 줌으로써 토끼의 소화흡수율을 높이고 있음. 또한 겨울철에는 토끼를 땅굴에서 기르기 때문에 온도보장이 잘되어 새끼낳이도 지장없이 하고 있음.

○ 함경남도 허천군의 겨울철 염소 사양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5)

- 함경남도 허천군은 겨울철 염소 사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새끼뺨 어미염소의 사양관리를 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준비한 농부산물을 비롯한 10여 가지의 먹이를 배합하여 영양가 높은 먹이를 염소에게 먹이고 있으며 방목도 겨울철 날씨조건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자강도 송원군 송관협동농장의 염소사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7)

- 자강도 송원군 송관협동농장은 염소의 영양학적 특성에 맞게 겨울철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음. 겨울철은 염소들이 새끼를 배거나 낳는 시기로 염소작업반에서는 종자염소, 후보염소, 비육염소, 새끼뺨 염소들로 무리를 나누어 각 무리의 특성별로 먹이를 주고 있음.

- 자강도 장강군 무덕협동농장의 초식가축 사양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4)
 - 자강도 장강군 무덕협동농장 일군들은 풀판작업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초식가축 사육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작업반에서는 관리공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새끼 밴 염소와 양들에 대한 사양관리 기술학습을 실시하고 있음. 관리공들은 낮이 짧고 밤이 긴 조건에서 밤에 보충먹이를 충분히 주고 있으며 가축우리의 온도를 알맞게 유지해주고 있음.
- 염소사양관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5)
 - 봄철은 염소 마리수를 늘리는 중요한 시기로 새끼염소생산이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며 염소방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봄철에 염소사양관리를 잘하여야 염소 마리수와 젖생산을 늘릴 수 있음.
 - 평양시내 군, 구역 일군들은 각 농장에 내려가 관리공들을 대상으로 봄철염소사양관리에 대해 알려주고 어미염소 사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함경남도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은 마른 먹이를 균처리하여 어미염소에게 먹임으로써 젖생산량을 늘리고 새끼염소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평안남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과 정주시 룡포협동농장 등에서는 새끼염소 사양관리를 잘하여 새끼염소들이 죽거나 허약해지는 사례가 없이 잘 자라고 있음.

□ 소

- 량강도 풍서군의 부림소 관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5)
 - 량강도 풍서군 일군들이 부림소 기르기에 적극 나서 농장원들이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모범을 보이고 있음. 농장원들과 함께 일군들도 부림소 관리를 위해 겨울철먹이준비와 보관, 보온대책 등을 세워나가면서 밀폐식 소우리를 만들고 먹이의 균처리방법을 받아들였으며 소관리에 사용하는 여러 도구를 갖추게 되었음.
- 소 관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0)
 - 개성시 연릉협동농장 제3작업반은 밀폐식 소우리를 만들고 먹이도 충분히 주면서 부림소를 관리하고 있음. 량강도 운흥군 운흥농장은 겨울철 조건에 맞게 소우리의 온도를 높여주고 하루에 여러 번 먹이를 주어 부림소의 영양상태를 더욱 좋게 하고 있음.

□ 돼지

○ 평안북도 창성군 옥포협동농장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

- 평안북도 창성군 옥포협동농장은 올해 세운 축산물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기 위해 새끼낳이, 가축먹이 보장, 거름 실어내기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작업반 자체적으로 가축먹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우리에서 나온 수백 톤의 거름으로 먹이밭을 기름지게 가꾸고 있으며 새끼돼지 생산을 과학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먹이원료를 균처리하여 먹이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 거위사육

○ 함경남도 금야군 배합먹이공장의 거위 사육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8)

- 함경남도 금야군 배합먹이공장은 거위 사육을 하면서 먹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음. 공장은 기름을 짜고난 콩찌꺼기와 메뚜기를 단백질로 이용하고 단백질 서식장을 조성하여 많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 이용하고 있음. 또한 6월부터 12월 초순까지 들판, 물길둑, 강, 하천을 따라 거위이동방목을 하여 거위먹이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음.
- 또한 공장에서 1년생과 2~3년생의 거위 무리구성을 잘하여 산란율이 높아졌고 무수정 알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어졌음. 겨울철에는 우리 보온을 철저히 하고 조명시간을 정확히 보장하는 등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한 해에 1만 개 이상의 거위알을 생산하고 있음.
- 전기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장은 온돌방에 알깨우는 기계를 설치하고 불을 때서 거위알을 부화시키고 있음. 관리공들은 거위알을 잘 고르고 보관을 기술규정대로 하며 알깨우는 기계에 넣기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또한 부화기간에 환기를 제때에 하고 온도를 알맞게 높여 부화율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황해남도 신원군 계남목장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규모확장공사를 통해 생산능력이 2배 이상 확장되고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한 건물만 해도 150여 동에 2만여㎡에 달함. 축산 제2분장에 건설된 염소우리는 320㎡ 규모에 사계절 기온에 따라 과학적으로 사양관리가 가능하며 각 동마다 4칸으로 되어 있어 한 칸에 10~20마리를 수용할 수 있음. 또한 먹이가공실과 각종 먹이창고도 우리 식으로 건설되었으며 겨울철과 장마철

조건에 적합하게 폴질임탱크와 마른풀 저장창고를 만들었음.

□ 계남목장

○ 황해남도 신원군 계남목장에 대해 소개(로동신문 1. 2, 민주조선 1. 13)

- 황해남도 신원군 계남목장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규모확장공사를 통해 생산능력이 2배 이상 확장되고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한 건물만 해도 150여 동에 2만여㎡에 달함. 축산 제2분장에 건설된 염소우리는 320㎡ 규모에 사계절 기온에 따라 과학적으로 사양관리가 가능하며 각 동마다 4칸으로 되어 있어 한 칸에 10~20마리를 수용할 수 있음. 또한 먹이가공실과 각종 먹이창고도 우리 식으로 건설되었으며 겨울철과 장마철 조건에 적합하게 폴질임탱크와 마른풀 저장창고를 만들었음.
- 축산물 증산을 위해 목장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새 품종염소를 이 지대의 기상기후와 먹이조건에 적응시켜 새끼생산을 촉진하고 우량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젓가공공장을 현대화하여 젓 계량공정에서부터 버터, 치즈, 산유 등 젓가공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였음.

○ 계남목장의 추진 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1)

- 황해남도 계남목장은 지난해 6월 목장을 방문한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해 선진과학기술 도입사업을 실시하였음. 김제원해주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로 하여금 목장에서 일군들을 대상으로 선진과학기술학습을 지도하고 관리공들에게 가축사양관리에 대한 선진과학기술을 알려주도록 하였음. 목장은 능력확장공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밤에도 일군들을 위한 학습을 조직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여려는 기풍을 세우고 축산물 증산의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목장에서는 현지말씀 관철을 위해 관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 제1분장의 작업반 한곳을 본보기로 삼아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 새끼분만에서부터 젓떼기를 거쳐 어미로 자랄 때까지 사양과 관리에 대한 과학기술문제를 직관화해놓고 기술학습을 실시하였음. 이로써 각 호동마다 기술학습 문답판을 만들어 놓고 월별 세차례 이상씩 기술전습을 실시하는 등 관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켰음.

○ 각지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9)

- 함경남도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은 올해 더 많은 염소를 길러 젓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염소방목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새끼염소 생산조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계남목장은 우량품종의 가축종자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그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평안북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은 관리공의 기술수준을 높여 염소, 오리, 거위 등 여러 가지 가축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먹이생산과 공급, 풀판 조성과 이동봉목, 가축우리 소득을 과학기술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

3. 감자 농사

- 당의 농업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을 위해서는 북부고산지대를 비롯한 모든 농촌들에서 감자재배면적을 늘리고 영농방법을 과학화하며 물거름을 비롯한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내고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 육종 및 감자종자 무바이러스화를 완성하고 감자수송, 저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감자가공 공업화를 확립함으로써 감자가공식료품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
- 량강도 대흥단군의 감자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6)
 - 량강도 대흥단군은 올해 감자농사에 필요한 니탄을 전량 확보하고 수송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체대군인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동원된 가운데 홍암, 농사동, 창평농장을 비롯한 군내 농장들에서는 니탄캐기가 한창이며 수송 첫날 천여 톤의 니탄을 수송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김정일은 감자농사를 축산과 배합하면 축산을 통해 생산된 물거름을 감자농사에 이용하여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량강도 대흥단군 신덕돼지목장은 겨울철에도 돼지 사육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각 호동에서 물에 씻겨내려온 돼지배설물을 물거름탱크에 모아 올해 감자농사에 필요한 물거름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음.
- 평안남도 감자조직배양공장을 방문보도(민주조선 1. 10)
 - 평안남도 감자조직배양공장은 현대적인 생산건물, 계단식 온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바이러스 잔알감자를 생산하고 있음. 공장의 시약제조 및 멸균실에는 흰 위생복을 입은 기능공들이 시약들을 골라 배양액을 만들고 멸균기를 이용해 멸균 작업을 하고 있음. 접종실에서 접종된 포자는 배양실에서 수십 일간 배양된 뒤 온실로 옮겨져 열매를 맺게 되며 이렇게 생산된 무바이러스감자종자는 도내 농촌에 공급됨.

○ 량강도 대흥단군의 감자농사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7)

- 량강도 대흥단군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에 따라 정보당 수십 톤의 거름을 낼 계획을 세우고 각 농장들에서 거름생산과 운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음.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올해 감자농사에서 농기계의 비중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중경제초기, 크랑크축연마반과 산소발생기 등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감자농사혁명선구자대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9, 민주조선 1. 29)

- 감자농사혁명선구자대회가 27일, 2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내각성원들,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각 도, 시, 군당, 정권기관, 농업지도기관 책임일군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되었음. 리경식 농업상은 보고에서 1998년 10월 1일, 김정일이 량강도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음.
- 감자농사혁명방침에 따라 대흥단군은 다수확품종의 감자를 통알째 심고 재배하게 되었으며 곳곳에 돼지목장이 건설되고 종합적 기계화 실현과 감자가공의 공업화문제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었음. 대흥단군을 본보기로 삼지연, 백암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감자농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대흥단식 과학농법이 창조되고 다수확 감자종자 연구사업과 고구마종자 육종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감자조직 배양공장과 감자종자저장고, 감자가공공장이 도처에 건설되었음.
- 보고자는 올해를 당의 농업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북부고산지대를 비롯한 모든 농촌들에서 감자재배면적을 늘리고 영농방법을 과학화하며 물거름을 비롯한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내고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신계군 등 고구마가 잘되는 지대에서 고구마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이와 함께 보고자는 다수확우량 품종의 감자종자 육종 및 감자종자 무바이러스화를 완성하고 감자수송, 저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감자가공 공업화를 확립함으로써 감자가공식료품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농업상의 보고에 이어 토론에서는 각 군농업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의 감자농사 경험과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음.

○ 함경남도 부전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31)

- 함경남도 부전군은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나무를 쌓은 뒤 그 위에 니탄, 풀거름, 진거름 등을 쌓고 불로 열을 보장하여 거름을 잘 썩히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니탄을 충분히 캐낸데 기초하여 흙보산비료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정보당 50톤의 거름을 감자밭에 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감자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4)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 농업부문에서는 감자농사를 잘하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량강도 대흥단군을 본보기로 감자농사혁명을 일으켜야 함. 감자육종체계를 확립하고 육종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무바이러스 우량종자를 확보해야 하며 재배방법을 개선하여 감자를 통알째 심는 방법을 받아들여야 함. 농촌에서는 돼지우리에 물거름받이시설을 만들어 물거름,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감자밭을 지력을 높여야 함. 모든 단위에서는 예비를 총동원하여 감자농사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해야 하고 역병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각지 동향>

- 자강도 랑림군은 감자조직배양공장에서 무바이러스 잔알감자 생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각 협동농장에서 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량강도 백암군 상담협동농장은 거름원천을 확보하고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생산한 거름을 감자밭에 제때 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협동농장은 올해 감자 대 강냉이 이모작농사 실시를 목표로 돌이 적고 가뭄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경지를 앞그루감자농사 적지로 확정하고 거름생산 및 운반 등 앞그루감자농사차비를 서두르고 있음.

○ 함경남도 장진군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5)

- 함경남도 장진군은 감자밭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물거름, 질 좋은 유기질 거름을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감자농사의 과학화를 위해 지난해 가을 작업반마다 지하식 감자종자저장고를 건설한데 이어 저장고 위에 지상건물로 감자종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감자농사에 대한 농업성 감자생산국장과의 대담을 보도(민주조선 2. 11)

- 농업성 감자생산국장 홍순권은 다수확작물인 감자가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한성 작물이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는 감자농사가 강냉이나 다른 작물농사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음. 감자는 중간, 벌방지대 뿐만 아니라 논밭에 이모작 앞그루로 심을 수 있어 이모작농사가 대대적으로 장려되는 가운데 최근 앞그루감자농사 면적이 많이 늘어났음.
- 감자농사혁명으로 벼나 강냉이가 잘 되지 않는 북부산간지대에서 감자농사를 위주로 함에 따라 나라의 농업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감자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 과학연구기관에서는 기후풍토조건에 맞으면서 역병에 잘 견디는 다수확품종의 감자종자를 육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각 도마다 감자조직배양공장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었음.
- 앞으로 농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기후풍토조건에 적합한 감자종자 육종사업을 활발히 할 것임. 대흥단, 삼지연, 백암군 등 북부고산지대에서 올해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심는 면적을 확장하였고 가까운 앞날에는 모든 농촌에서 100%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심게 될 것임. 또한 감자종자를 과학기술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종자육이 건설되고 있으며 감자농사의 기계화를 위해 농기계생산보장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량강도 삼지연군 농업근로자들의 쫓기모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15)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량강도 삼지연군 농업근로자들의 쫓기모임이 12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다수확품종의 종자와 현대적인 농기계 등 감자농사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현지도도를 통해 감자농사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준 것에 대해 말하였음.
- 그들은 농사차비에서 거름원천을 최대한 탐구하여 물거름과 퇴비,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 밭에 제때에 실어냄으로써 지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앞선 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중경제초기 이용률을 높이면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감자역병과 병충해 예방대책을 세워 정보당 감자 생산량을 늘일데 대하여 말하였음.

-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량강도 삼지연군 농업근로자들의 쫓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7)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량강도 삼지연군 농업근로자들의 쫓기모임이 12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다수확품종의 종자와 현대적인 농기계 등 감자농사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현지도도를 통해 감자농사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준 것에 대해 말하였음.
 - 그들은 농사차비에서 거름원천을 최대한 탐구하여 물거름과 퇴비,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 밭에 제때에 실어냄으로써 지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앞선 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중경제초기 이용률을 높이면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감자역병과 병충해 예방대책을 세워 정보당 감자 생산량을 늘일데 대하여 말하였음.
- 량강도 백암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8)
 - 량강도 백암군은 지난해보다 감자밭에 10톤의 거름을 더 내기 위해 거름과 함께 니탄흙보산비료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은덕농장과 상담, 동계,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니탄흙보산비료생산에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보다 많은 양의 거름을 생산하였음. 이로써 백암군은 3월 2일 현재 거름생산계획을 104%로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거름 실어내기실적을 올리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9)
 - 량강도 대흥단군은 지력 향상을 목표로 거름 생산과 운반작업에 힘을 쏟고 있음. 돼지사양관리를 잘하여 물거름이 생산되는 대로 밭에 실어내고 있으며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꾸려 실적을 높이고 있음. 또한 작업반들에 현대적인 감자종자저장고를 건설하여 과학기술적으로 감자종자를 보관관리하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9)
 - 량강도 대흥단군 신흥농장은 감자밭에 정당 수십 톤씩 거름을 낼 목표를 세우고 체대군인까지 동원하여 거름 생산과 운반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홍암, 창평, 농사동, 신태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에서도 거름 생산과 운반은 물론 중소농기구 준비

에도 힘을 쏟고 있음.

○ 량강도 삼지연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1)

- 량강도 삼지연군은 감자농사차비로 거름생산 및 운반작업을 바빠 진행하고 있음. 중토장농장은 3월 초에 거름생산계획량을 140%로 초과달성하였고 포태농장도 130%로 거름생산량을 초과달성하였음. 중흥, 홍계수, 통신, 백두산농장을 비롯한 그 밖의 농장에서도 거름원천을 탐구동원하고 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거름운반 실적을 올리고 있음.

4. 이모작

- 당의 이모작농사방침에 따라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짓고 있음. 주체농법에 따라 앞그루 봄밀, 보리를 파종하고 감자농사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앞그루 밀, 보리밭에 가뭄이 들지 않도록 관수준비를 철저히 하고 일손이 많이 드는 이모작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모작농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연기후조건과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도
- 함경남도 금야군의 이모작 재배면적 확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6)
 - 함경남도 금야군의 협동농장들은 올해 이모작농사 재배면적과 특히 가을에 심을 앞그루밀, 보리밭 면적을 확장하는데 힘을 쏟아 군의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모작 재배면적은 지난해의 1.4배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앞그루 가을밀과 보리밭 면적은 3배 확장되었음.
 - 각 협동농장에서는 앞그루 가을밀과 보리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육기일이 짧고 추위에 강하며 수확고가 높은 밀과 보리종자를 도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와 함께 올해 뒤그루 콩밭면적도 지난해보다 400여 정보나 늘어나게 되어 군내 협동농장에서는 다수확 콩종자를 확보하고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각지의 이모작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1)
 - 함경남도 단천시 령산리당위원회는 지난해 지대적 특성과 필지별 토양성분, 기후 풍토에 맞게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알곡 대 채소, 알곡 대 공예작물 등 여러 방법으로 이모작농사를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이모작 재배면적을 두배로 늘리고 영농공정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 황해북도 신계군은 올해 이모작 재배면적 확장여건에 맞게 종자를 확보하고 각 농장에서 작물, 품종별로 적합한 온습도를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종자를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강원도 창도군 당산협동농장은 거름생산 및 운반작업을 진행하면서 세대별, 개인별 거름생산경쟁을 조직하여 거름생산 성과를 높이고 중소농기구 정비 및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의 이모작지 시비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0)

- 황해남도 안악군 내 협동벌에서는 이모작농사에 사용할 거름생산과 운반작업이 한창임.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 거름을 질적으로 생산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국협동농장에서는 거름생산과 운반 계획량을 1.3배 이상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논밭에 실어낸 거름더미에서 유기질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흙을 기술규정대로 덮어주고 있음. 엄곳, 덕성협동농장에서는 정당 30톤 이상의 거름을 내기 위해 거름원천과 운반수단을 확보하고 있음.

○ 평안북도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4)

- 평안북도 농업부문 지도일군들은 아래 단위에서 이미 심은 가을밀, 보리밭을 돌아보고 봄에 씨불입할 작물의 종자와 거름준비상황을 파악하면서 해당 대책을 세우고 있음. 이와 함께 지방의 기후풍토에 적합한 종자 준비와 이모작농사에 쓸 거름 확보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생산과 수리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협동농장의 이모작농사 경험에 대해 소개(민주조선 1. 15)

-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협동농장은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 하에 작물과 품종을 신중히 선택하였음. 이모작농사 초기, 종자선정을 바로 하지 못하여 뒤그루작물을 심어야 하는 6월 말까지 앞그루작물이 여물지 않았던 경험을 교훈 삼아 농장에서는 앞그루 밀, 감자를 반드시 뒤그루작물의 생육기일을 보장할 수 있는 품종으로 선정하였고 뒤그루 벼, 강냉이도 일조율을 타산하여 소출이 높은 품종을 정하였음.
- 농장의 제2작업반은 냉상처리를 한 통알감자종자를 잎이 보이지 않게 흙으로 덮어 주어 늦서리피해를 막았고 3~4차례에 걸쳐 김매기를 실시할 때마다 북주기를 하여 이랑을 일정하게 높여주어 감자알이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음. 또한 감자포기를 세워둔 채 고랑에 뒤그루 강냉이 씨불입을 실시하였는데 감자를 캐는 과정은 김매기효과를 가져왔고 부산물인 감자줄기와 잎은 강냉이 옆에 두었다

가 시든 다음 후치질하여 묻어주어 정보당 20톤의 유기질비료를 시비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농장에서는 제2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이모작 재배방법을 혁신하였음.

○ 황해남도 강령군 읍협동농장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8)

- 황해남도 강령군 읍협동농장은 앞뒤그루로 비료와 박막을 적게 쓰고 생육기일이 짧은 종자, 해당 지방의 지대적 특성에 적합한 종자를 확보하여 주체농법에 맞게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제7작업반은 다수확품종의 감자, 밀, 보리 등 앞그루와 뒤그루작물종자를 충분히 마련해놓고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작업반에서도 겨울철 조건에 맞게 종자창고의 온습도를 기술규정대로 보장하고 있음.

○ 황해남도 재령군의 이모작농사경험에 대해 소개(로동신문 1. 23)

<좋은 종자를 적기에 심어>

- 황해남도 재령군은 이모작농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자, 지력상태, 관수조건이 유사한 작업반, 분조들의 수확고에서 차이가 나자 이모작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청천협동농장의 경험에 주목하였음. 청천협동농장은 미리 거름을 충분히 생산하고 농기계도 수리해놓는 등 농사차비를 서둘러서 적기에 앞그루 씨붙임을 한 결과 앞그루의 수확고를 높일 수 있었음.
- 재령군은 이모작농사면적 확장에 따라 부족한 일손을 각 기관, 기업소의 노동자, 사무원들로 보강하고 기관, 기업소들에 거름생산계획과 농기구 생산과제를 주어 해당 협동농장들을 도와주도록 하였음.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 지난해 재령군은 앞그루작물 심기와 관수조건 보장 등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으나 가뭄이 심한 5월에 들어서면서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마다 앞그루작물의 작황상태에 차이가 나타났음. 룡교협동농장의 경우 지력이 높고 가뭄을 적게 타는 경작지에 심은 작물의 비배관리는 어렵지 않았으나 땅이 비옥하지만 가뭄을 많이 타서 농작물의 비배관리가 힘든 일부 포전에 관수보장대책을 세웠음. 농장에서는 넉넉치 않은 물을 앞그루 밀, 보리와 감자의 작황상태에 따라 가뭄을 탈 수 있는 경작지에 순환식으로 물을 공급하여 각 작물의 생육상태를 좋게 할 수 있었음.
- 재령군은 룡교협동농장의 경험을 본보기로 군내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땅이 비옥하

고 가뭄을 적게 타는 경작지를 기본으로 이모작재배면적을 늘리고 관수보장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음. 군에서는 물이 부족한 상황에 맞게 흐르는 물을 저수지에 채우도록 하고 각 협동농장에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물길설계를 돕고 있음.

○ 황해남도의 이모작농사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5)

· 황해남도는 지난해 가을에 이미 밀, 보리를 심은데 이어 거름생산 및 운반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연안, 배천, 청단군에서는 흙보산비료 생산과 흙구이를 하면서 매일 1만 톤 이상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으며 안악, 은률, 신천, 장연군 등에서도 하루 1만 톤 이상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5)

·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생산성 높은 밀, 감자종자를 마련하고 봄에 앞그루로 심을 감자를 태양열온실에서 싹틔워 심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분조에서 생산한 질 좋은 거름을 논밭에 내고 흙보산비료, 닭배설물, 소석회 등 각종비료를 제때에 실어내는데 힘을 쏟고 있음.

· 이기수가 일하는 기업소 농목장에서는 이모작농사에 사용할 거름 생산을 위해 농부산물을 가축우리에 넣어 밟혀내는 등 질 좋은 거름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모작 재배면적 확장에 따라 해당 종자를 넉넉히 마련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보 관관리하고 있음.

○ 남포시 룡강군 립송협동농장의 앞그루감자농사 경험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31)

· 남포시 룡강군 립송협동농장은 무수확지라고 불리던 척박한 땅에서 앞그루농사를 시작하여 해마다 감자재배면적을 계획적으로 늘리고 있음.

<땅 속내까지 잘 알아야 한다>

· 농장은 논앞그루로 감자농사를 실시한 첫째, 경지별로 수확고에서 차이가 생기자 일군들과 기술자들로 하여금 경지별, 필지별로 토심요해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경지별 토양성분자료에 땅의 내력, 땅속 온도와 기상기후조건 등을 보충하여 땅이력서를 만들었음. 이를 토대로 농장에서는 감자농사에 적합한 건조한 땅을 적지로 선정하고 재배면적 확장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음.

<종자를 기본고리로>

- 농장에서는 각지 농촌에 도입된 감자종자 중에서 농장 실정에 알맞는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확보하여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농업부문 과학연구기관에서 새로 연구개발하는 감자종자를 비교시험을 통해 도입하였음. 이와 함께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확대증식하여 풍토순화된 종자들을 얻어내고 있음. 이로써 매해 농장은 기후풍토조건에 적합하면서 수확고가 높고 생육기일이 짧은 우량품종의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통알째 심고 있음.

<보약의 효과를 높여>

- 농장에서는 감자밭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해마다 정당 30톤 이상의 유기질거름과 2톤 이상의 흡보산비료를 내고 있으며 앞그루감자 수확 후 넝쿨째로 논에 뒤엎어 유기질거름으로 이용하고 있음. 또한 유기질거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지별 토양성분과 유기질거름 성분을 파악한 뒤 부족한 성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감자밭 정당 소석회 1톤 이상씩을 내고 있음.

<적기에 질적으로>

- 농장은 뒤그루 벼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앞그루감자 씨붙임적기를 3월 말부터 4월 초로 정하고 있음. 냉상조건에서 일정 정도의 싹을 틔운 종자를 심어 앞그루감자의 수확고를 보장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모내기를 끝내 뒤그루 벼농사도 성과적으로 하고 있음.

<중심을 중경제초에 두고>

- 농장의 작업반에서는 감자줄기가 일정하게 자란 4월 말경 첫 중경제초를 하고 그 후 줄기가 자라는 상태에 따라 4~5회 중경제초를 진행하였음. 중경제초를 실시하면서 흙에 묻힌 감자줄기부위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뿌리가 많이 형성된 것은 물론 흙을 뒤집어 엮어 김매기효과를 보았으며 감자의 생육에 큰 영향을 주는 습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 평안남도 문덕군 동사협동농장의 콩농사 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31)

- 평안남도 문덕군 동사협동농장은 앞그루 밀, 보리, 감자, 유채의 뒤그루작물로 콩을 심기로 하고 수확고가 높은 콩을 종자로 선택한데 이어 필지별, 경지별 토양분석자료에 근거하여 뒤그루 콩농사에 유리한 수습 정보의 밭을 콩채배적지로 확정하였음.

○ 평안남도 평원군의 농사 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1)

- 평안남도 평원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이모작농사에서 이론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생육기일이 짧으면서 수확고가 높은 종자를 확보하고 토지상태를 검토한 뒤 주작물 콩밭과 뒤그루콩밭 적지를 선정하였음. 이와 함께 각 농장별 특성에 따라 거름을 생산하도록 하는 한편 각 세대에서 진거름과 가축배설물을 받아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모작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1)

<평안북도 룡천군의 경험>

- 평안북도 룡천군은 몇 해 전부터 이모작농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모작재배 면적을 넓힐 방안을 모색해왔음. 군에서는 온도가 낮고 해풍이 세차 농작물의 생육 적산온도를 보장하는데 불리한 이 지방 실정에 맞게 뒤그루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앞그루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는 밀, 보리종자를 시험재배하고 알맞은 종자를 확정하였음. 그리고 적기를 보장하기 위해 땅이 녹는 시기가 늦은 조건에 맞게 가을 탈곡기간을 이용해 봄밀밭두둑짓기작업을 미리 하여 봄밀씨부리기 날짜를 3~4일 정도 앞당길 수 있었음.
- 군은 곁재배방법으로 이모작농사를 짓고 있는 장산, 인흥협동농장의 경험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배관리에 지장없이 밭이용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이랑 및 밀밭두둑너비와 뒤그루강냉이 이랑수를 찾아냈으며 과학적인 곁재배방법을 확정하였음.

<각지 동향>

- 평안남도 대동군의 각 협동농장에서는 논밭의 비옥도와 토양성분, 물대기와 물빠기조건을 따져 이모작농사 적지를 정하고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에 내고 봄밀, 보리심기를 하고 있음.
- 황해남도 봉천군은 앞그루감자 재배면적을 지난해의 2배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감자밭 지력을 높이기 위해 잘 썬 질좋은 거름을 실어내고 감자종자 싹틔우기를 하고 있음.
- 박봉식이 일하는 농장에서 제작한 낱알건조기의 건조과정을 보면 불을 때서 건조실 내부 온도를 높이고 건조로를 돌리면 낱알이 경사진 건조로 안에서 골고루 건조됨. 이 건조기는 하루에 백수십 톤의 낱알을 건조시킬 수 있음. 농장에서는 낱알 건조기를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개성시 장풍군의 이모작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3)

- 개성시 장풍군은 봄보리와 감자를 심을 적지를 선정하고 이모작 재배면적에 질 좋은 거름을 내도록 하고 있음. 읍, 구화, 가곡협동농장을 비롯한 각 협동농장에서는 생산한 거름을 트랙터와 달구지 등 운반기재를 총동원하여 밭을 비옥하게 가꾸고 있음.

○ 평양시 인근 농촌들의 봄보리 심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4)

- 평양시는 주변 구역, 군에 이모작 재배지를 확정하고 강남군 룡포협동농장에서 봄보리심기 방식상학을 조직한데 이어 적기에 씨뿌리기를 하도록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강남군과 락랑, 사동, 력포구역에서는 일손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봄보리 심기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의 봄밀, 보리 씨뿌리기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4)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앞그루 봄밀, 보리 씨붙임에 앞서 각 시, 군별로 방식상학을 조직하여 씨붙임작업을 주체농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문덕군은 종자, 중소농기구, 농기계 준비를 끝내고 거름과 복토를 충분히 장만하여 씨뿌리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증산, 온천군은 밭갈이와 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기계화 비중을 높여 씨뿌리기실적을 올리고 있음.

○ 황해남도 봉천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3)

- 황해남도 봉천군 당위원회는 농사준비 상황을 파악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일군들을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현지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였음. 이 과정에서 일군들은 이모작농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농장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 협동농장에서 지대적 특성에 따라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알곡 대 채소와 알곡 대 공예작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모작농사를 짓도록 하였음.

○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이모작농사를 짓자’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3. 4)

- 지난해 농사를 통해 당의 이모작농사방침의 정당성을 인식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짓고 있음. 주체농법에 따라 앞그루 봄밀, 보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심어야 초기생육을 좋게 하

고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음. 지난해 가을에 심은 가을밀, 보리에 대한 비배관리와 감자농사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함.

- 앞그루 밀, 보리밭에 가뭄이 들지 않도록 관수준비를 철저히 하고 일손이 많이 드는 이모작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자연기후조건과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연구발전시켜 이모작농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해야 함.

○ 봄밀, 보리 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4)

- 황해남도 강령, 옹진, 룡연군은 질 좋은 거름을 충분히 내고 봄밀, 보리 씨뿌리기와 문기를 주체농법에 맞게 진행하여 며칠동안에 수백 정보에 밀, 보리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평안북도 룡천, 동림, 염주, 피현군도 밀, 보리심기를 대대적으로 벌려 많은 면적의 씨뿌리기를 끝내고 있음.

○ 이모작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9)

<앞그루농사에 큰 힘을 넣자>

- 3월에는 겨울난 가을밀, 보리의 첫 비배관리를 하고 봄밀, 보리씨뿌리기를 해야 하며 감자종자를 싹틔우고 냉상처리를 하여 밭에 심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농촌경리 부문에서는 뒤그루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앞그루농사를 제철에 해야 함. 농촌경리 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앞그루농사에 대한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앞그루작물 씨붙임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 보장대책을 확립해야 함. 각 협동농장에서는 앞그루농사를 제철에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고 노력일 평가사업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도록 함.

<각지 동향>

- 황해북도 금천군 백마, 금교, 월암협동농장은 밀, 보리 초기생육상태와 그 비배관리 정형을 파악하여 앞선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현내, 신강협동농장은 토양의 수분함량과 밀, 보리의 생육상태에 맞게 비배관리 일정계획을 경지별, 날짜별로 세워 밟아주기과 유기질거름주기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은 여러 해에 걸쳐 이모작 재배면적을 체계적으로 확장왔고 올해 지난해보다 이모작재배면적을 수백 정보나 늘릴 계획을 세웠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이모작재배지를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개성시의 밀, 보리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1)

- 개성시는 계획보다 2.2배에 달하는 면적에 봄보리를 심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가을 밀, 보리 비배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음. 지난해보다 1.3배 이상의 가을밀, 보리를 심은 조강, 봉동, 립한협동농장은 물빼기작업과 비료치기를 끝냈음.

○ 황해남도 연안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2)

- 황해남도 연안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종자와 함께 지력, 기계화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연안읍, 소정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에서는 우량종자를 마련하고 지력을 높여 밀, 보리씨뿌리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이와 함께 앞그루감자농사를 시작하면서 각 농장들은 다수확 감자종자의 싹틔우기를 한 뒤 모판에 옮기는 작업과 동시에 논밭갈이를 해나가고 있음.

5. 종 자

□ 농업과학원은 당의 종자혁명방침 관철을 위해 이모작농사에 필요한 벼, 강냉이품종 육종, 지역별로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콩종자 연구, 키낮은 사과나무품종 확대도입, 새 염소품종의 완성 등의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

□ 종자혁명사업

○ 각지 농업부문의 다수확품종의 종자확보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6)

· 각지 채종단위에서는 각 지방, 농장에서 요구하는 우량종자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지 농업부문에서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이모작농사혁명방침에 따라 다수확종자 생산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음.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비롯한 량강도, 평안남도 등 각지 농촌에서는 매 필지별 토양의 성질이 다른 조건에 맞게 알맞은 품종을 선택해 배치하고 필요한 종자확보와 보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축산, 과수, 잡업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종자혁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키낮은 사과나무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과수발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 중이며 잡업부문에서는 뽕잎 수확성이 높은 뽕나무종자와 고치실 생산량이 높고 질이 좋은 뽕누에종자를 육종하여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의 종자혁명 연구성과에 대해 소개(민주조선 1. 10)

· 농업과학원은 당의 종자혁명방침 관철을 위해 이모작농사에 필요한 벼, 강냉이품종 육종, 지역별로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콩종자 연구, 키낮은 사과나무품종 확대도입, 새 염소품종의 완성 등의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있음. 농업과학원 일군들은 산하 각 연구소에서 과학연구목표 실현을 위한 대중토의를 진행하고 착상발표모임, 과학학술토론회 등을 조직하고 있음.

○ 과학연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6)

-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 동물세포공학연구실은 지난해 개발한 새로운 감자 바이러스스진단시약을 올해 전국적 규모에서 생산, 도입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생리활성물질과 약용물질 연구사업을 다그치고 있음.
- 농업과학원 과수확연구소는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과일나무품종을 연구하고 있음. 연구소는 지난해 우리 식의 새로운 키낮은 사과나무 재배방법을 완성한데 이어 올해 전국적으로 키낮은 사과나무품종을 확대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동시에 키낮은 사과나무의 접그루생산과 열매를 빨리 거둘 수 있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과학연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9)

<농업과학원 일군들>

- 농업과학원은 올해 농업과학기술과 농업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농업과학원은 농업성과 협동하여 안악군, 재령군, 은천군에 시범적으로 농업과학기술성과를 적용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데 이어 올해는 각 도별 1~2개의 군으로 시범단위를 확대하였음.
- 올해 농업과학원은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논벼와 강냉이다수확품종 연구, 이모작농사에서 앞그루와 뒤그루농작물품종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량감자품종 생산과 무바이러스감자원종 생산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 진척되고 있음. 또한 조직배양에 의한 키낮은사과나무모 생산방법을 완성하고 나무모 대량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복생산농약기지의 생산 정상화하는 문제와 농업생산구조를 주체농법에 맞게 더욱 개선하며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10월7일연구소에서>

- 농업과학원 10월7일연구소는 심장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유채품종을 육종해낸데 이어 연구사들이 직접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북부 고산지대 등으로 나가 새로 육종한 유채품종을 생산 현장에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또한 새로 육종한 기름함량과 생산성이 높은 해바라기품종을 서해안 일대에 밀, 보리 앞뒤그루로 량강도에는 주작으로 심기 위해 연구사들이 각 해당지방에 파견되었음.

<이모작농사 연구성과>

- 황해북도 농업과학분원은 뒤그루 소출에 영향을 주지 않게 일찍 여무는 앞그루 밀, 보리 품종들의 생태지역별 조건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토양학연구소는 지난해 정보당 알곡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정밀시험과 생산시험을 진행하여 질소비료 대 알곡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위주의 거름주기기술을 확립하였음.
 - 농업기계화연구소는 지난해 파종일손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콩정밀파종기를 연구도입한데 이어 이모작농사에 이용할 밀보리파종기, 밀보리수확기, 밀보리 이동식 탈곡기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의 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30)
- 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항생소연구실은 새로운 미생물비료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용품연구실은 버섯균의 공업적 생산과 그 이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 생물활성물질연구실은 보다 효능높은 새로운 가축먹이첨가제를 생산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각종 미생물비료와 가축먹이가공기술, 물고기 먹이생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 강원도농업과학분원의 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6)
- 농업과학원 강원도농업과학분원 벼연구실은 새로운 벼종자의 현지도입 실현과 국가등록품종 연구에 힘을 쏟고 있으며 강냉이연구실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강냉이채종방법의 비교시험을 진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감자연구실은 도내에서 사용할 앞그루용 다수확품종의 감자연구와 새로운 감자품종의 풍토순화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채소연구실은 새 품종의 가치를 비롯한 다수확품종의 채종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농업과학원 자강도농업과학분원의 과학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9)
- 농업과학원 자강도 농업과학분원은 도의 기후풍토와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좋은 종자를 육종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감자연구실은 앞그루재배에서 소출이 높은 새로운 감자품종 연구와 무바이러스감자원종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음.

- 강냉이연구실은 이모작재배에 알맞은 품종을 새롭게 선별하여 생산성을 확증하고 해발 700~800m에서도 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해발 400m 이하 저지대에서 감자 앞그루로 밀, 보리를, 감자뒤그루로 알곡작물을 배치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누에연구실은 자강도의 지대적 특성에 맞게 추위와 병해충에 강하며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뽕나무품종과 뽕을 적게 먹으면서 생산성이 높은 누에품종 육종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당의 종자혁명방침 관철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5)

<농업생산에서 기본고리는 종자문제>

- 농업부문에서는 최근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벌리고 있음. 량강도 대흥단군과 삼지연군을 비롯한 고산지대의 감자농사에서 큰 진전이 이룩되고 각지 농촌에서 이모작농사와 초식가축 사육, 닭공장의 고기와 알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바로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임.
-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삼아 우리나라 기후풍토에서 높고 안전한 생산성을 담보하는 종자를 육종하고 다른 나라의 우량 종자를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시켜야 함. 채종사업을 통해 각 지방,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량 종자를 생산보장해야 함.

<각지 동향>

- 평안남도 성천군 읍협동농장은 기후풍토 조건에 적합한 앞그루 감자종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술학습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이 감자종자 보관관리, 싹틔우기, 심기, 비배관리 등을 기술규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작업반, 분조마다 감자종자창고와 온실을 이용해 종자싹틔우기를 잘해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 삼천군 괴정협동농장은 종자에 대한 기술학습을 통해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한편 다른 지방에서 종자를 얻어내는 등의 노력으로 생육기일이 짧고 비료가 적게 들면서 수확고가 높은 벼, 강냉이종자를 확보하였음. 이와 함께 밭 60여 정보에 심을 좋은 품종의 콩을 준비하였음.

6. 과수, 콩

□ 북한은 새해공동사설에서 과수산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키작은 사과나무 등의 과수 동향에 대해 보도하고, 과학원의 과수 병해충 농약개발에 대해 보도

□ 과 수

○ 황해남도 과일군의 과수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9)

· 황해남도 과일군 내 각 협동농장에서 과수밭에 정보당 100톤씩 질 좋은 거름을 내는 가운데 과일나무가지 자르기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농장들은 어린 키낮은 사과나무의 겨울철 비배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한편 가지 자르기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있음. 또한 겨울접붙이기 준비와 키낮은 사과나무모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과학원의 농약개발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6)

· 과학원 생물분원 동물학연구소는 과일나무줄기나 나뭇가지를 파먹으면서 나무에 피해를 주는 20여 종의 벌레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한데 기초하여 살충효과가 좋고 인체에 해가 거의 없는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였음. 지난해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과수원에 새로 개발된 과일나무줄기 해충구제약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올해에는 더 많은 면적에 확대도입할 예정임.

· 새로 개발된 과일나무줄기 해충구제약은 인체에 무독한 가루상태로 나무 속의 벌레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해충을 죽이는 특성이 있음. 약 5g으로 수백 개 구멍 안에 들어있는 해충을 박멸할 수 있음. 사용방법은 과일나무에서 해충의 배설물을 보고 벌레먹은 구멍을 찾은 뒤 작은 도구로 구멍 안의 벌레 배설물을 파내고 가루약을 도구에 담아 한구멍에 한번씩 밀어 넣음. 진흙으로 약을 넣은 구멍과 연결된 구멍들을 다시 막아줌.

○ 황해남도 과일군의 과수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8)

- 황해남도 과일군은 생산성이 높고 비배관리에 유리한 키낮은 사과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기 위해 기술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여 겨울철에도 키낮은 사과나무도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이와 함께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을 과수원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토지정리단계를 정하고 인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살림집 주변 과일나무심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9)

<민족적 전통·살림집주변에 과일나무심기 >

- 집 주변에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민족적 전통임. 김정일은 최근 감나무집, 배나무집이라고 불리는 집들이 많았다고 하면서 그런 민족적 전통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김일성은 일찍이 농촌에서 집집마다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를 심도록 하였고 김정일도 농촌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집 주변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였음.
-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정원과수조성사업에 적극 나서 살림집 주변에 감나무, 배나무 등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5그루 이상 심도록 하여야 함. 또한 각 지방에서는 농촌문화주택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과일나무를 심도록 하며 여러 가지 과일나무모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함경남도 고원군 덕지협동농장에서>

- 함경남도 고원군 덕지협동농장은 가꾸기 쉬운 감나무를 정원과수로 심도록 정원과수조성사업을 벌리면서 감나무모를 각 가정에 나누어주어 심고 가꾸도록 하였음. 그 결과 농장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원들의 집에는 15그루 이상의 감나무가 있어 농장에서는 해마다 수백kg의 감을 수확하고 있음.

○ 함경남도 북청군의 거름생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6)

- 함경남도 북청군은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에서 거름생산에 적극 나서도록 하였음. 군급기관과 공장일군들은 거름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북데기를 모아 가축우리에 밍혀내기도 하고 개바닥흙을 파는 등 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군자동차사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운반수단과 수송수단을 동원하여 생산된 거름을 제때에 과수원에 실어내고 있음.

○ 황해북도 황주과수농장의 가지자르기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8)

- 황해북도 황주과수농장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과일나무 종류별, 품종별로 가지자르기에서 지켜야할 기술규정과 합리적인 가지자르기방법을 지도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작업반에서 기술학습을 진행하였음.
- 특히 금석지구 제1, 2작업반에서는 과일나무가 최대 수확을 낼 수 있도록 꽃눈을 확보하는데 기본을 두고 가지자르기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있으며 석정지구 제6작업반은 과일나무의 생태학적 특성과 영양상태를 따져가면서 가지자르기를 진행하고 있음. 장사지구 제1, 7작업반은 과일나무 개체별 영양상태에 맞게 꽃눈과 잎눈의 비례를 기술규정대로 보장하면서 가지를 자르고 있음.

○ 함경남도 북청군 룡전리 문화협동농장의 과수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 함경남도 북청군 룡전리 문화협동농장은 키낮은 사과나무를 대대적으로 키우면서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학습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사과나무밭 조성을 위해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100톤씩 실어내고 있음.

○ 황해남도 과일군 북창농장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4)

- 황해남도 과일군 북창농장은 봄철에 그루바꿈으로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기 위한 준비가 한창임. 농장은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확보하고 원두작업반과 제5, 6, 7작업반 등 올봄에 그루바꿈을 해야할 작업반들에 역량을 집중배치한데 이어 구덩이파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그루바꿈 실시 면적에 거름을 정보당 100톤 이상씩 내기 위해 운반수단을 거름 실어내기에 총동원하고 있음.

○ 과일나무 가지자르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2)

- 함경남도 정평군 선덕과수농장은 과일나무 가지자르기에 대한 기술학습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켜 과일나무의 품종별, 나이별 생물학적 특성과 지대적 특성에 맞게 가지자르기를 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 운정농장 과수작업반은 과일나무 가지자르기 작업조를 조직하고 평가사업을 정확히 하여 과일나무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함경남도 단천시 장내협동농장의 기술학습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8)

- 함경남도 단천시 장내협동농장은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키낮은 사과나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해설하면서 사과나무를 1~2년 안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우량품종으로 갱신하기 위해 접붙임과 가지자르기 등 사과나무 가꾸기에 대한 기술학습을 실시하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의 과일나무 심기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9)
- 황해북도 서흥군 인민위원회는 농촌살림집에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는 나무모 수요를 파악하여 각 농촌 리에서 자체 양묘장을 조성하여 필요한 나무모를 생산하도록 하고 자연나무모 이용, 가지 옮겨심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무모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함경남도 단천시의 키낮은 사과나무 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2)
- 함경남도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과수작업반 이영철 기술원은 과수부문 과학자들, 과일생산에서 앞선 단위들과 연계하여 원가를 절감하면서 키낮은 사과나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여러 해에 걸쳐 시험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영철 기술원은 이미 있던 사과나무에 키낮은 사과나무 가지를 접하고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 열매를 맺는데 성공하였고 단천시에서는 기술자양성사업을 조직하여 모든 농장에서 키낮은 사과나무 가지접방법을 도입하도록 하였음.
 - 이렇게 하여 시에서는 올해부터 해마다 100여 정보에 키낮은 사과나무를 조성할 목표를 세워 조직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 봉강과수농장의 과수재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5)
- 봉강과수농장은 과일나무 가지자르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과일나무 가꾸기작업을 벌이고 있음. 농장에서는 땅을 깊이 파서 질 좋은 거름을 묻어주고 있으며 과일나무가지 모양만들기도 잘하고 있음. 또한 과일나무의 거친 껍질을 벗기고 떨어진 나뭇잎을 모아 불놓이도 하고 있음.
- 북한은 새해공동사설에서 콩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 콩농사 장려정책에 따라 농업성 일군들은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 하에 지대적 특성에 맞게 원그루와 이모작 뒤그루로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워 콩 재배면적을 더욱 늘리도록 하였음.

□ 콩농사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박영훈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평안남도의 올해 영농사업을 소개(로동신문 1. 4)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올해 영농사업을 인민군대식으로 진행하면서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이모작농사면적과 콩농사면적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음. 이와 함께 토지정리된 경작지의 지력을 높이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평안북도 룡천군 산두협동농장의 콩농사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7)

· 평안북도 룡천군 산두협동농장은 콩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릴 목표 하에 토질과 관수조건 등을 따져 콩농사에 유리한 적지를 확정하였음. 이와 함께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콩종자를 마련한데 이어 콩밭에 수십 톤의 질 좋은 유기질거름을 내고 있음.

○ 콩농사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8)

· 평안남도 은산군은 올해 콩재배면적 확장 목표를 세우고 적지 및 종자 선정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군들은 각 경작지의 토양성분과 물공급, 기계화조건을 따져 적지를 확정하고 각 지방의 기후풍토에 적합한 우량품종을 선정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보관관리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콩밭 지력 향상을 위해 거름원천을 탐구동원하여 거름 생산과 운반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양시 강동군은 올해 콩재배면적을 대폭 확장하기로 한 조건에서 씨불임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농기계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콩파종기의 성능과 기능, 자재소요량 등을 파악하고 각 협동농장 별로 도입할 기종과 대수를 확정하였으며 각 협동농장에서는 콩파종기 제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콩농사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9)

· 김정일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었음. 콩농사 장려정책에 따라 농업성 일군들은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 하에 지대적 특성에 맞

게 콩 재배적지를 정하고 면적을 더욱 늘리도록 하였음. 각 도, 시, 군에서 성일군 들은 콩재배에 따른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지도하면서 농촌경리부문에서 콩농사 를 주체농법의 기준대로 짓도록 조직동원하고 있음.

- 황해북도,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의 각지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올해 원그루와 이모 작 뒤그루로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콩밭에 유기질비료를 충 분히 내고 관수보장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평양시 중화군에서>

- 평양시 중화군은 각 협동농장, 군급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이 모두 나선 가운데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 생산이 한창임. 이와 함께 군 일군들은 각 협동농 장의 콩밭을 답사하면서 관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관수설비를 보수정비하면서 유희자재를 모아 관수설비를 보강하도록 하고 있음.

○ 황해북도의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1)

- 황해북도는 콩재배 적지를 확정한테 이어 생산성 높은 콩종자를 확보하여 각 협동 농장에 공급하고 있음. 사리원시는 시내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을 총동원하여 거 림 생산과 운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황주군, 평산군, 연산군을 비롯한 각 시, 군 에서도 콩농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각지 콩밭 농사차비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0)

- 황해남도 재령군은 콩밭에 정보당 20톤 이상의 질 좋은 거름과 매운 재 1톤 이상을 내는 작업을 벌리고 있음. 군급기관 일군들이 각 협동농장을 담당하여 현지에서 거 림생산과 실어내기작업을 지도하는 가운데 공장, 기업소에서도 운반수단을 총동원 하여 거름 운반작업을 돕고 있음.
- 황해남도 옹진군 송월협동농장은 올해 이모작농사와 콩농사에 사용할 거름을 생산 하기 위해 가축우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질 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 흙구이작업도 실시하고 있음. 농장의 기술일군들은 관수를 할 수 있는 수 십 정보의 밭을 콩재배적지로 선정하고 콩농사 준비를 하고 있음.

○ 콩농사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8)

- 황해북도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은 수백 정보의 콩농사적지를 선정하고 저수지 및

물길 조성, 분수식 관수시설의 보수정비, 농기계 준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콩종자 확보에 힘을 쏟으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보산비료와 닭공장의 질 좋은 거름, 이 지방에 흔한 거름원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한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 있음.

- 평안북도 선천군 로하협동농장은 콩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시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관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를 답사하여 적합한 곳에 3개의 굴포를 완성하였음.

○ 각지의 콩농사 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8)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올해 콩재배면적 확장계획을 세운데 이어 척박하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에 심던 콩을 올해부터는 비옥한 땅을 골라 대대적으로 심기로 하였음. 위원회 일군들은 각 시, 군에서 필요한 콩 종자량을 정확히 타산하고 해당 고장의 기후풍토에 적합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선정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콩농사의 집약화를 위해 콩밭을 분산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곳에 집중배치하도록 하여 콩밭을 50정보, 100정보 규모로 정하도록 하였음.
- 여러 가지 영농작업이 겹치는 콩 심는 시기에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콩파종기 수를 파악하고 시, 군농기계작업소와 농업부문 공장, 기업소에서 콩파종기 생산을 다그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콩밭관수에 필요한 파이프를 생산 외에 굴포, 우물, 쫄장, 보막이, 저류지들과 양수동력설비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알맞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고 있음.

<함경북도 경성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 함경북도 경성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전문일군들로 하여금 콩밭 전반에 대한 토양분석을 끝내고 기후조건과 토양에 알맞은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력 향상을 위해 거름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함께 각 협동농장에서 농사경험이 풍부한 농장원들로 콩농사를 전문하는 작업반, 분조를 조직하고 콩농사에 대한 기술학습을 실시하고 있음.

○ 황해북도의 콩농사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1)

-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콩재배 지도사업을 실시하면서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받은 단위들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콩농사 준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사리원시에서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에서 생산한 거름을 콩밭에 실어내도록 하는 등 현지도 단위들의 콩밭 지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황주군에서는 일군들이 물원천 확보와 관수설비 생산에 대중들을 적극 동원하고 있으며 평산, 연산, 서흥, 봉산군에 내려간 일군들은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생산성 높은 콩종자를 마련하여 현지도단위에 보내주고 있음.

○ 함경남도 농촌경리위원회의 콩과종기 제작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1)

- 함경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동력과 축력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콩과종기를 새로 제작하였음. 이 콩과종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어디서나 흔한 몇가지 자재로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하루에 수 정보의 면적에 콩을 심을 수 있음.

○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3)

- 남포시 룡강군 성암협동농장은 콩농사를 부식물 생산을 위해 비경지나 논두렁에 씨를 뿌려놓았다가 가을에 공짜로 열매를 걷어들이는 부업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콩농사의 이점을 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와 함께 감자농사, 이모작농사와 함께 콩농사를 우선시하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실시하여 콩농사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을 전환시켰음. 이 가운데 콩재배면적은 150여 정보로 늘어났으며 우량품종의 종자가 확보되고 보관관리, 영농자재준비,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예비저주지공사 등 농사차비에서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 평안북도 피현군은 올해 콩재배면적을 확장하고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콩을 집중재배할 수 있도록 읍, 충렬, 룡계협동농장에 대규모 콩밭적지가 확정되었고 다른 농장에서도 적지적작의 원칙에 따라 콩밭을 정하였음. 계획한 면적에 심을 콩종자가 충분히 확보된데 이어 룡계협동농장의 굴포 2개를 비롯해 군내 7개의 굴포와 20개의 우물이 준비되었음.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소식회와 흙보산비료 생산 사업에 힘을 쏟아 콩밭의 지력을 높이고 있음.

○ 평안북도 의주군 홍남협동농장의 콩농사 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 평안북도 의주군 홍남협동농장은 생산성이 높은 콩종자를 확보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 거름 생산과 운반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콩밭면적이 제일 넓은 제1, 7작업반은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정보당 30톤씩의 거름을 실어냈으며

뒤그루로 콩을 심을 밭에도 거름 실어내기가 한창임.

○ 황해북도 사리원애국수지일용품공장의 콩농사용 관수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6)

· 황해북도 사리원애국수지일용품공장은 콩농사 관수에 필요한 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공무작업반은 관 생산에 필요한 각종 공구들을 창안제작하고 준비, 2작업반은 원료조성을 질적으로 하는 등 일별, 주별, 월별 작업목표를 세우고 생산계획을 달성해나가고 있음.

○ 황해북도 황주군의 콩농사 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8)

· 황해북도 황주군은 일군들을 각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적지 선정, 종자확보, 거름시비, 관수체계도입 등 콩농사 준비사업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음. 일군들은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콩농사에 관련한 과학기술문제를 지도하고 관수에 필요한 관생산과 굴포파기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 황해남도 태탄군 운산협동농장의 콩 재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0)

· 황해남도 태탄군 운산협동농장은 작업반 경지를 살펴 콩밭적지 선정에 나서 비옥하면서 가뭄피해가 적고 장마철에 배수가 잘되는 땅을 적지로 선정하였음. 농장에서는 콩밭 적지에 질 좋은 거름을 경쟁적으로 실어내고 있으며 좋은 콩종자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노농통신원의 보내온 소식을 통해 콩농사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7)

· 함경남도 요덕군 성리협동농장은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 수확고가 높은 콩종자를 마련하고 적지를 선정해 정보당 20~30톤의 질 좋은 거름을 내고 있음. 평안북도 구성시 양하협동농장은 콩농사 전문 작업반을 조직하고 콩밭면적을 대폭 확장한데 이어 콩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콩밭에 거름을 실어내고 있음.

○ 황해남도의 콩농사 준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2)

· 황해남도는 올해 다양한 재배방법으로 콩농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다수확품종의 콩종자확보에 힘을 쏟고 있음. 농촌경리위원회는 각 시, 군별 콩농사시범단위의

경험을 토대로 사이그루재배와 그루바꿈식 재배방법을 보급하고 기술강습, 경험토론회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콩밭을 비옥하게 가꾸기 위해 정보당 유기질거름 20톤, 흙보산비료 2톤 이상을 내는 것을 목표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각지의 콩농사 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2)

- 황해북도는 김정일로부터 지원받은 콩종자의 수송 및 보관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단위에서 콩농사에 관련된 과학기술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지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콩농사에 필요한 질 좋은 거름을 콩밭에 실어내고 콩밭관수에 필요한 관 생산과 저수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음.
- 자강도는 토양조건이 좋은 수천 정보의 밭에 콩을 주작으로 심고 많은 밭들에 콩을 사이그루로 심을 계획을 세웠음. 도에서는 장강군 읍협동농장, 위원군 고성협동농장 등 총 4곳을 콩농사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이 농장들의 콩밭 관수체계와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도에서는 계획한 콩 재배면적에 필요한 콩종자를 충분히 확보한데 이어 콩밭 지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함경북도의 콩농사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8)

- 함경북도에서는 콩을 심을 적지를 선정하고 지대적 특성과 기후풍토에 적합한 종자를 마련한데 이어 질 좋은 거름을 밭에 집중적으로 실어내고 있음.

○ 평안남도 대동군의 콩농사 준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8)

- 평안남도 대동군 가장협동농장은 콩을 주작과 뒤그루로 재배하기로 하고 뒤그루로 콩을 심는 조건에 맞게 생육기일이 짧으면서 수확성이 높은 종자를 마련하였음. 덕화, 상서협동농장은 종자준비와 함께 콩밭에 질 좋은 거름을 충분히 내도록 하고 있음. 시정, 학수, 장산협동농장은 유기질거름을 정보당 20톤 이상씩 내고 있음.

○ 콩농사 준비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4)

- 황해남도는 지대적 조건에 적합한 다수확품종의 콩종자를 확보하고 새로 심는 콩밭에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 뿐만 아니라 소석회, 재까지 내기 위해 비료 생산과 운반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함께 콩밭관수에 필요한 강우기 수리정비와 관 생산준비, 굴포파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각 시, 군에서는 동력식, 축

력식, 수동식 등 실정에 맞는 콩파종기를 제작, 개조하고 콩탈곡기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음.

- 평안북도 선천군은 콩밭분수식관수와 강우관수에 필요한 관생산과 양수기수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군에서는 관생산에 필요한 원료수급을 위해 유희자재를 동원하고 있으며 군농기구공장은 굵기가 다른 관들을 짧은 기간에 수천m나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군관개관리소는 양수기수리정비를 맡아 부속품을 탐구동원하여 양수기 수리실적을 올리고 있음.
-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은 콩농사에 사용할 미생물비료 및 농약 생산준비를 하고 있음. 농장 내 미생물비료생산기지에서는 농약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한데 이어 설비상태를 점검하는 등 생산에 돌입할 모든 준비를 끝냈음.

○ 평안북도 광산군의 콩농사 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10)

- 평안북도 광산군은 올해 콩농사에서 소출을 높이기 위해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일군들을 각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콩재배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거름생산에 대중들을 적극 나서도록 하였음. 또한 물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지형조건에 적합한 위치에 굴포공사를 벌리고 균중적 운동으로 유희자재를 수집하여 관을 생산하도록 하였음.

○ 평안북도의 콩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3)

-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도 실정에 맞는 콩재배지도서를 제작하여 각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에까지 보급한데 이어 책임일군들은 광산군 원하, 태천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본보기 단위에 내려가 경지별 특성에 맞게 콩주작밭과 뒤그루밭, 사이그루밭을 정해주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도록 이끌면서 앞선 콩재배방법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음.

7. 토지정리사업

□ 1976년 대자연개조 5대방침 이후 룡천군, 우시군, 장연군의 물길제방공사를 시작으로 1984년 전국국토관리부문 일군대회에 보낸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서한에서 국토관리사업의 과업을 제시하였음. 1980년대, 서해갑문과 서부지구의 2천리 물길건설 등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대동강과 예성강, 압록강, 대령강을 하나의 대관개망으로 연결시키고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들게 되었음. 1990년대에는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시작으로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는 자연흐름식의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완공하였음. 또한 지금 평안북도에 백마-철산물길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자연개조사업

○ 대자연개조사업 추진과 그 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3)

- 1976년 10월 14일,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대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였음. 대자연개조 5대 방침 관철을 위해 룡천군의 물길제방공사를 비롯해 우시군, 장연군에서도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음. 1984년 11월 19일, 김정일은 전국국토관리부문 일군대회에 보낸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서한에서 국토관리사업의 과업을 제시하였음.
- 199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은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시작으로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였음. 인민군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은 어려운 작업여건에서 극복방안을 세우며 토지정리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조하였음. 또한 개천-태성호물길공사에서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이 발휘되어 수백리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완공하였음.

<관개건설의 새 역사>

- 김일성은 광복 직후 보통강개수공사를 현지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평남관개, 기양관개공사 등 대규모 관개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 1980년대, 서해갑문과 서부지구의 2천리 물길건설 등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대동강과 예성강, 압록강, 대령강을 하나의 대관개망으로 연결시키고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들게 되었음.
- 1990년대 중엽에 이르러 김정일은 독특한 자연흐름식 관개물길로 수백 리에 달하는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발기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총동원하여 2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였음. 이로써 평안남도와 평양시내 10만 정보의 농경지에 대동강물이 자연흐름으로 흘러들게 되었음. 김정일은 완공된 개천-태성호물길을 돌아보면서 평안북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대에 자연흐름식 관개물길공사를 추진하도록 과업을 제시하였고 지금 평안북도에 백마-철산물길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토지정리사업

○ ‘토지정리사업은 농업혁명의 중요한 방침’이라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1. 13)

- 경작지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농업증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정리를 통해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고 영농설비와 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현재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토지가 새롭게 정리된데 이어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토지가 정리되고 있다.
- 특히 황해남도는 지대적 특성에 따라 경작지가 1,000~1,500평 규모로 정리되고 도로와 물길이 뻗어 농업생산을 늘릴 수 있는 전망이 밝음. 김정일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에도 수만 정보의 토지가 새롭게 정리되었음. 우리는 김정일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어 토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나가야 함.

○ 함경남도 금야군의 흙갈이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13)

- 함경남도 금야군은 50정보의 면적에 정보당 1,000톤 이상씩을 흙을 갈 목표를 세우고 비단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의 청년 농업근로자들이 흙갈이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안주시 룡연합동농장의 지력 향상 노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8)
 - 평안남도 안주시 룡연합동농장은 지난해 12월, 농사차비계획을 세우면서 토지정리되고 이모작재배면적이 대폭 늘어난 조건에서 지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였음. 농장은 필지별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필지별로 유기질거름과 흙보산비료, 연재자화비료 시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음. 농장원들은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니탄을 운반하고 농장일군들은 흙보산비료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생산한 거름을 계획대로 논밭에 내고 있음.

- 봄철 토지정리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
 - 함경남도돌격대는 봄철 토지정리를 성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풍년호 트랙터 수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돌격대에서는 트랙터 수리에 필요한 수십 종의 부속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일군들은 탄광, 광산들을 찾아 부속품을 마련하였고 노동자, 기술자들은 소재예비를 총동원하여 트랙터부속품을 제작하였음. 그리고 토지정리작업 현장에서 돌격대 일군들과 대원들, 기술자들이 합심하여 수리정비를 끝냈음.
 - 금성트랙터공장은 토지정리작업장에 공급할 트랙터 부속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주강직장, 주물직장 등 각 생산공정에서는 부속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트랙터 부속품생산계획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 봄철 토지정리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5)
 - 평양시, 평안남도의 토지정리를 위한 올해 봄철작업이 시작되었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속품을 확보한데 이어 불도저 수리정비를 끝내고 토지정리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강동군, 락랑구역, 사동구역돌격대를 비롯한 평양시돌격대는 평양시 인근 농촌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황해남북도, 평안북도, 함경남북도돌격대는 평안남도에서 불도저 수리정비를 끝내고 토지정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안남도, 평양시 토지정리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10)
 - 평안남도의 토지정리를 맡은 황해남도, 평안북도돌격대는 불도저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 수리정비를 차질없이 진행한 다음 자검자수를 정상적으로 하고 기계의 실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 일정계획대로 토지를 정리하고 있

음. 평양시돌격대는 수도 주변의 토지정리를 맡아 불도저 운전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작업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토지정리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음.

○ 연안군돌격대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1)

· 연안군돌격대는 평안남도 평원군 석교, 매진, 대풍협동농장에서 봄철토지정리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돌격대는 토지정리목표를 높이 세우고 트랙터의 가동률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작업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여 차질없이 토지정리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평양시 주변 토지정리작업장의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4)

· 평양시돌격대 지휘부는 봄철토지정리과제의 완료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불도저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음. 시돌격대는 불도저 투입대수를 늘리고 예비부속품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불도저를 가동시키고 있음. 지휘부는 토지정리할 면적이 많은 강남군에 백수십 대의 불도저를 집중배치하여 토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구역, 군에 투입된 돌격대들도 기한 전에 토지정리작업을 끝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백마-철산물길공사는 평안북도 피현군에 위치한 대규모 저수지의 물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흐름식의 관개용수로 공사가 완공되면 피현군, 염주군, 룡천군, 철산군, 동림군, 신의주시의 수만정보 경작지에 관개용수를 보장할 수 있게 됨. 이에 각 단위의 공사 진행상황을 자세히 보도

□ 백마-철산 물길공사

○ 농업성 부상 강경욱의 말을 인용해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대로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수행하겠다고 보도(로동신문 1. 2)

· 김정일은 평안북도 곡창벌에 전기없이 자연흐름으로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백마-철산 물길공사의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었고 물길건설자들은 김정일의 의도대로 수백리에 달하는 물길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 우리는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시공지도를 하면서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에 맞게 완성해나가도록 할 것임.

- 평안북도여단의 발파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로동신문 1. 4, 민주조선 1. 4)
 - 평안북도여단 식주군대대는 기본흙물길 형성을 위해 방대한 암반구간을 발파할 계획을 세웠음. 대대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20m에 달하는 수직갱과 수십 개의 갱정들을 뚫고 발파에 사용할 폭약과 해당자재를 마련하여 날림식으로 13만산 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평안북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7)
 - 평안북도여단은 지난해 수백km 구간의 흙물길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물길굴, 잠관, 암거 등 구조물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여단일군들은 해설담화, 방송선전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건설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있으며 각 시, 군대대의 공사실적을 질량적으로 파악하여 총화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백마-철산 물길공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3)
 - 백마-철산 물길공사중앙지휘부는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대로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 작업목표를 높이 세우고 자재보장과 시공지도대책을 세워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평양시, 평안남도, 량강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 여단에서는 지체없이 굴뚝기와 확장공사, 콘크리트치기작업을 진행하여 평양시여단은 90%, 남포시여단은 80%, 량강도여단은 70% 이상의 굴공사를 수행하였음. 황해관개건설여단은 백마저수지 기본언제 1단계공사를 끝내고 2단계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평안북도여단이 맡은 흙물길공사의 실적은 85%에 이르고 있음.

- 백마-철산 물길공사장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1. 21)
 - 백마-철산 물길공사의 주요대상인 백마저수지 언제공사장에서 제32화학공장건설사업소여단은 기초파기에 앞서 산을 들어내기 위해 수십 개에 달하는 갱정을 뚫고 일정계획대로 발파를 진행하였음. 산이 제거됨에 따라 여단에서는 백마저수지 언제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 평안북도여단은 발파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1)
 - 평안북도여단은 흙물길이 기본적으로 형성된 조건에서 대절토구간을 대발파로 처

리하기 위해 염주군 반곡리와 동성리 사이에 가로놓인 산중턱에 갱정을 뚫고 발파용자재를 마련하였음. 여단에서는 20일, 성과적으로 8만산 대발파를 진행하였음.

○ 남포시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7)

· 남포시여단은 4대 대상의 물길굴공사를 몇 달 안에 끝낼 목표 하에 공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태평1굴공사장에서 강서군, 천리마군대대는 전단면굴진과 콘크리트치기를 중단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금속건설연합기업소대대는 태평2굴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음. 학흥굴과 장산굴공사를 맡은 대안군, 룡강군대대도 전단면굴진과 콘크리트치기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 있음.

○ 평안북도여단의 발파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8)

· 평안북도여단 태천군대대는 흙물길 형성을 위해 대발파로 산을 들어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음. 대대는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날림식대발파로 8만산을 제거하여 흙물길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함경남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31)

· 함경남도여단은 10여만^m의 암반과 흙을 처리하고 1만 수천^m의 콘크리트치기해야 하는 두 개의 굴공사와 두 개의 잠관공사를 맡았음. 얼마 전 동상1굴 굴뚝기 공사장은 발파작업 진행 이후 바닥과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자 물길을 만들어 한곳으로 모은 물을 양수기 2대로 퍼내고 독을 막아 발파구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착암기로 물 속에서도 돌을 실어나르고 실정에 맞게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를 성과적으로 완료하였음.

· 2.8비날론연합기업소대대는 농건잠관공사를 맡아 굴착작업을 90%이상 진행한데 이어 지금 암반굴착과 강바닥굴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대에서는 발파회수와 발파효율을 높여 하루에 수십^m씩의 암반을 처리하고 있음. 영광, 신흥, 금야군대대는 며칠 동안에 강줄기를 돌리고 양수기를 집중배치하여 물을 퍼내면서 강바닥 굴착을 일정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강원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 강원도여단은 가장 긴 물길굴공사를 맡아 매일 종전의 2배에 달하는 굴진속도로 굴뚝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세포군, 김화군대대가 굴뚝기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원산시, 철원군대대는 앞선 공법을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음. 안변군, 문천시, 고산군, 고성군대대도 잠관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백마-철산 물길공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6)

- 백마-철산 물길공사는 백마저수지와 수백km의 물길, 수많은 물길굴과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작업량이 방대하고 작업조건이 불리한 공사임. 지난 1년여 동안 물길굴공사에서 도갱은 50%, 흙물길공사에서 흙과 암반처리는 70% 이상 진척되었음. 특히 평양시여단 강남군, 상원군, 사동구역대대는 잠관공사를 맡아 몇 달 사이에 잠관공사를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동대원구역대대는 전 단면굴진과 콘크리트치기에 총력을 기울여 1년도 되기 전에 굴공사를 완공하였음.
- 백마저수지 기본언제공사를 맡은 황해관개건설여단의 모래, 자갈, 흙 등 물동 운반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물길공사 중앙지휘부에서는 대형자동차, 굴착기, 불도저 투입대수를 늘려 작업을 지원하였음. 이로써 황해관개건설여단은 기본언제 1 단계공사를 기한 전에 완공한데 이어 2단계공사에서도 물동운반실적을 올리고 있음.
- 물길굴공사에서 량강도여단은 부족한 광차, 철로, 착암기와 압축기의 부속품을 마련하여 석수가 떨어지는 속에서도 굴진과 콘크리트치기를 벌려 작업실적으로 종전보다 1.5배로 올리고 있으며 2개 대상의 물길굴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음.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룡산여단에서도 혁명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3개 대상의 물길굴공사를 완공하였음.
- 평안북도여단은 수백 리에 달하는 흙물길 형성공사에서 흙과 암반을 제거하여 운반하고 물길을 형성하면서 1년도 되기 전에 흙물길공사의 절반 이상을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북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13)

- 평안북도여단은 수백 리에 달하는 흙물길공사를 맡아 올해 안에 완공하기 위해 대절토구간에 집중적인 발파작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살림집들과 중요건물 인근의 절토구간에서는 일손과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하루에만도 100여 개의 발파구멍을 뚫고 수십 회의 소발파를 진행하였음. 이렇게 들어낸 흙은 트랙터와 마대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였고 수십일 동안에 9만산을 처리하였음. 룡천, 운전, 녕변군대대는 짧은 기간에 흙물길 형성, 진흙다짐과 배수로 및 제방둑 쌓기 등을 마무리단계

에서 진행하고 있음.

○ 백마-철산 물길공사 진행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1)

- 황해관개건설여단은 겨울철에도 방대한 물동량을 운반하여 백마저수지 기본언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쌓고 있으며 언제 돌입하기작업도 진행하고 있음. 저수지취수문, 무늬이언제, 보조언제를 담당한 건설자들도 앞선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공사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평양시, 황해남도, 함경북도여단은 맡은 대상의 물길굴과 각종 구조물공사과제를 150% 이상씩 달성하고 있음. 평안북도여단은 언땅을 파고 운반하여 물길제방둑을 쌓고 기본흙물길과 지선흙물길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안남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3)

- 평안남도여단은 여러 개 대상의 물길굴공사를 맡아 이미 한 개 대상의 물길굴을 완공한데 이어 작업실적을 높이고 있음. 영유광산, 성천광산대대는 굴측벽 확장공사를 끝내고 콘크리트치기를 다그치고 있으며 증산광산, 천동광산, 인평청년광산대대 등에서는 물길굴 확장을 위해 착암기 부속품을 마련하고 앞선 작업방법을 도입하여 천공, 발파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량강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8)

- 량강도여단은 부족한 광차와 착암기, 압축기 부속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굴상부 확장공사와 아치 콘크리트치기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신파청년광산대대와 갑산광산대대는 로중1굴공사를 맡아 불리한 작업여건 속에서도 밤낮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많은 양의 돌을 처리하고 있음. 8월광산대대와 운흥광산대대는 로중2굴공사를 맡아 굴확장공사를 앞세우면서 아치콘크리트치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강원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8)

- 강원도여단은 물길굴과 잠관공사를 맡아 전반적인 공사과제를 1년여 앞당겨 수행할 목표를 세우고 물길굴 기본굴진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김화군, 이천군, 세포군, 통천군대대는 합리적인 굴뚝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갱확장공사와 콘크리트치기를 동시에 실시하여 공사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음. 잠관공사장에서 문천시, 안변군, 고성군, 고산군대대는 기본굴착공사를 끝내고 콘크리트치기작업을 진행 중임.

○ 발파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 민주조선 3. 2)

- 평안북도여단 광산군대대는 기본흙물길 형성과제를 맡아 암반제거를 위해 15만산 대발파작업을 준비하였음. 대대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백여 개의 갱정과 많은 장약 실을 뚫고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여 2월 28일, 15만산 암반을 제거하였음.

○ 함경남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9)

- 함경남도여단은 2개 대상의 물길굴공사와 잠관공사를 맡아 굴확장과 콘크리트치기, 잠관공사의 기초파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만덕광산, 단천시, 북청군, 흥남시, 허천군대대는 물길굴 측벽확장공사와 콘크리트치기를 끝내고 굴확장공사와 콘크리트치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상농광산, 정평군, 흥원군, 함흥시대대도 굴확장공사와 콘크리트치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매일 공사과제를 1.4배로 수행하고 있음. 2.8비날론연합기업소, 금야군, 신흥군, 수동구 등 여러 대대는 수백m에 달하는 잠관을 건설하기 위해 암반제거작업을 매일 1.5배로 초과달성하고 있음.

○ 중앙지휘부의 공사진행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2)

- 물길공사중앙지휘부는 백마저수지 기본언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해 공사를 담당한 황해관개건설여단 일군들과 논의하여 운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성트랙터공장에서 부속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운전기재들의 수리정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음.
- 또한 물길굴공사장에서는 굴뚝기작업을 서둘러 끝내기 위해 굴확장공사와 콘크리트치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흙물길공사장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흙과 암반을 처리하면서 물길제방둑을 쌓아가고 있음.

□ 기타 물길공사

○ 평안남도 온천군의 물길확장공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4)

- 평안남도 온천군은 개천-태성호물길로 내려온 태성호물을 각 논밭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물길확장공사를 진행 중임. 물길확장공사는 대략 200여리에 달하며 수십 만㎡의 토양을 처리해야함. 군은 인력을 총동원하여 바닥낮추기, 바닥폭넓히기, 제방둑 쌓기 등 공사를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음.

○ 황해남도 은천군의 대동강-북두 물길공사 추진에 대해 보도 (로동신문 2. 3)

- 황해남도 은천군은 대동강물을 자연흐름으로 논에 대기 위해 대동강-북두 물길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청년돌격대를 조직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가을걷이를 끝낸 마두, 덕천, 삼산, 남산, 단양 등 많은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을 공사에 동원하여 공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의 지선물길공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11)

- 평안남도는 150여 리의 개천-태성호 지선물길공사를 벌리고 있음. 이 공사가 완공되면 지난해 완성한 지선물길보다 8천여 정보나 더 많은 면적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 지역의 물보장을 위해 있던 20여 개의 양수장이 필요없게 됨.
- 흙 20여만^m와 암반 8천여^m를 처리하고 많은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이 공사에서 공사지휘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고 앞선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배수암거와 용수암거, 배수문 등 구조물공사를 끝마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남도 문덕군의 저수지공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14)

- 평안남도 문덕군 룡남협동농장은 골짜기에 자리한 관계로 관수체계가 확충되어 있으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관개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음. 군에서는 경작지보다 높은 곳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자연흐름식으로 룡남협동농장에 물을 공급하도록 저수지공사를 자체적으로 벌리고 있음.

8. 국토관리사업

□ 북한은 올해 국토를 강성대국의 면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하여 산림부문에서 좋은 수종의 나무를 더 많이 심는 한편 땔나무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만 정보를 조성하며, 도로부문에서는 합리적인 도로망 형성과 기술개건사업을 다그쳐야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토지정리와 강하천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개보수하여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보도

□ 국토관리사업

○ 국토환경보호성의 올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1)

- 국토환경보호성은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대로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성에서는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과학연구기관 및 생산현장에서 제기된 혁신안들을 해당국들과 협의하는 등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체계를 세워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을 성 산하 모든 단위에 시급히 도입하여 국토관리실태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종합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해 나무모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새로 연구한 뿌리마름방지제를 나무심기에 도입하는 문제 등 나무모 생산과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또한 국토환경정보체계 프로그램과 정화설비 최량화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추진 중인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8)

- 함경남도 정평군 인민위원회는 군의 전반적인 국토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답사조를 구성하고 현지에서 산, 강하천, 도로망을 살피면서 올해 국토건설계획에 반영해야 할 작업구간, 작업량, 작업조건 등을 확정하도록 하였음.

-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나무모 생산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군산림경영소 풍양양묘장과 룡성양묘장 등에서는 나무모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앞선 나무모 기르기를 적극 받아들여 수종이 좋은 300만여 그루의 나무모를 충하없이 키워내고 있음.

○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 개최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30, 민주조선 1. 30)

-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가 2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의 국토건설구상에 따라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수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고 나무를 심어 산림조성의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도로 건설 및 보수, 대하천 제방과 중소하천을 정리한 것에 대해 말하였음. 이와 함께 축산기지과 중소형발전소가 도처에 건설되었으며 토지정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대자연개조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지적하였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 국토를 강성대국의 면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해서는 산림부문에서 좋은 수종의 나무를 더 많이 심는 한편 땀나무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만 정보를 조성하며 도로부문에서는 합리적인 도로망 형성과 기술개건사업을 다그쳐야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토지정리와 강하천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개보수하여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국토환경보호성 강문구 국장과의 대담내용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30)

- 국토환경보호성 강문구 국장은 지난해 국토관리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음. 산림부문에서는 아카시아를 비롯한 수억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심었으며 도로부문에서는 수천km의 도로를 기술개선하였음. 강하천부문에서는 두만강, 압록강, 청천강 등 대하천에 제방 및 호안공사와 중소하천들의 정리공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각 도, 시, 군 소재지들을 개건보수하고 농촌문화주택을 많이 건설하였음.
- 국장은 전국 각지에서 이룬 국토관리사업 성과에 대해 지적하였음. 평강군을 비롯한 강원도에서는 시, 군소재지와 농촌마을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고 수만수천세대의 살림집을 보수하였음. 함경남도는 설비, 자재보장사업과 시공지도 사업을 통해 수천 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현대적으로 보수하였음. 이 밖에도 안주시, 강계시 등 전국 각지의 시, 군에서 국토관리총동원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음.

- 지난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에 김정일의 감사와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고 보도(로동신문 1. 31, 민주조선 1. 30)
 - 지난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에 김정일의 감사와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박천군, 평강군, 안주시, 과일군 외 47개 단위에 감사와 선물이 전달되었고 문덕군, 금야군, 피현군 외 20개 단위에 감사가, 강원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들에 선물이 전달되었음.
 - 이들 단위에서는 토지정리와 산림조성, 강하천 정리, 도로, 살림집 건설과 보수 등 국토환경보호 및 도시경영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맡겨진 국토관리총동원계획을 지표별로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국토환경보호성의 추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10)
 - 국토환경보호성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카시아나무모를 비롯한 수억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심었으며 수천km의 기본도로를 기술개건하고 두만강, 압록강, 청천강 등 수백km의 대하천제방 및 호안공사와 수천km의 중소하천정리공사를 진행하였음.
 - 성에서는 올해 국토관리사업을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더욱 과학화할 계획 하에 조직배양에 의한 나무모 생산, 자동온도조절장치에 의한 온실에서 나무모 생산, 새로운 나무심기방법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국토환경정보체계를 확립하고 국토관리사업에서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임.

- 황해남도 연안군의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7)
 - 황해남도 연안군은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군소재지의 도로포장, 남산공원과 경기장, 양어장 건설, 도로 정비와 건설 및 가로수 조성 등 사업목표를 전망성 있게 세웠음. 그리고 해당 사업을 일군들이 한가지씩 담당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음.
 - 군은 국토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중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는 화선식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여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 군 내 중소하천 30여개가 정리되고 수십km에 달하는 해안방조제가 보강되거나 새로 건설되었음. 또한 200여 정보의 방풍림이 조성되고 남산공원, 경기장, 수백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었으며 가로수를 비롯한 많은 나무를 심고 양어장도 건설하였음.

○ 치산치수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6)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의 사업에서>

- 김정일이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산천을 노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꾸리자’를 발표한지 2주년이 되었음. 지난 2년 간 국토환경보호성은 국토환경보호사업을 전망성있게 추진해왔음. 산림국과 강하천국 등 각 부서에서는 해당 부문의 특성에 맞게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왔음.
- 국토환경보호성은 봄,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전반적인 국토환경보호사업을 개선강화해 나가고 있음. 성 일군들은 봄, 가을철에 진행해야 할 국토관리과제를 확정하고 해당 지방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과제를 분담하였음. 또한 국토관리총동원기간 동안 각 도, 시, 군의 사업 진행 정형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웠으며 사업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정확히 하여 대중의 작업열의를 더욱 높여주도록 하였음.

<각지 동향 >

- 함경남도 인민위원회는 국토관리사업 계획 수립에 앞서 일군들을 각 시, 군에 파견하여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연차별로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 집행해나가고 있음.
- 강원도 안변군은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강하천을 정리하기로 하고 각 기관,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에 강하천 정리구간을 정확히 분담해주었음. 군 인민위원회는 강하천 정리에 필요한 석축용 돌과 제방둑에 심을 잔디, 타래붓꽃을 확보하여 제때에 공급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 평안북도 선천군은 산기슭의 자연생밤나무를 왕밤아무로 개조할 목표를 세우고 준비사업을 진행 중임. 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관리부는 확보해놓은 수만 대의 왕밤나무 접가지를 움에 보관하고 때 이르게 눈이 트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접붙이기작업에 동원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산림조성은 조국의 강성부흥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최근 나무심기가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져 산림조성사업에서 큰 진전이 이룩되었음.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나서야 함. 올해도 혁명사적지, 고속도로, 철길, 공장, 기업소 주변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땀감문제 해결을 위해 아카시아나무림을 기본으로 땀나무림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와 함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통제사업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

□ 산림

○ 평안북도 선천군의 왕밤나무림 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1)

- 평안북도 선천군 인민위원회는 자연생밤나무를 왕밤나무로 개조하여 올해 100정보의 왕밤나무림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자연생밤나무에 접할 왕밤나무가지 확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군들은 현지에서 접가지따기를 기술규정대로 실시하도록 지도하면서 접가지 따기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접가지를 확보하였음. 이와 함께 따들인 접가지를 알맞은 온도를 보관하기 위해 움을 건설하도록 하여 접가지를 넣고 일정한 높이까지 흙을 깔아줌으로써 접가지들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중앙식물원의 수림화, 원림화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7)

- 중앙식물원은 1974년 2월 12일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래로 30여년 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의 가치 있는 식물자원들을 도입순화하고 보존하면서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음. 삼지연과 웅진에는 식물분원이 건립되고 여러 도에도 좋은 수종의 나무들이 적극 도입번식되었음.
- 식물원에서는 3,000여종의 진귀한 식물들을 국보로 보존관리하고 재배번식하는 사업을 벌리고 있으며 식물분류원, 수목원, 약초원 등을 조성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종수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전국에 널리 보급하고 있음.

○ 황해남도 연안군 창덕협동농장의 산림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4)

- 황해남도 연안군 창덕협동농장은 인근 산들이 돌이 많고 땅이 척박한 불리한 조건

에서도 산림조성사업을 추진하였음. 농장일군들은 주변 산지를 답사하고 지대별로 산림조성계획을 세운데 이어 리소재지 뒷산을 혼성림으로 가꾸어 본보기로 널리 일반화하였음. 이와 함께 농장양묘분조의 나무모밭 2정보에서 한해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각 작업반에서는 비경지를 통해 매해 5천그루 이상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주변 산지에 심었음. 또한 작업반, 분조, 농장원 세대에 담당림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산림을 보호, 관리하여 10여 년 사이에 인근 산지를 비롯하여 마을 주변까지 숲이 우거지게 되었음.

- 농장은 몇 해 전부터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를 이용하여 냉상모판에 필요한 지주목, 활창대 등을 조달하고 탁아소, 유치원 등 30여 동의 공공건물과 문화주택 수백동을 건설, 보수하였음. 또한 잣, 왕밤나무림에서 잣과 왕밤을 수확하여 농장원 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땀감도 부족함없이 쓰게 되었음.

○ 사설 ‘나무를 많이 심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를 게재(로동신문 3. 2)

- 우리 당은 산림조성을 조국의 강성부흥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내세워 적극 추진해왔으며 김정일의 지도 하에 최근 나무심기가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져 산림조성사업에서 큰 진전이 이룩되었음.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나서야 함.
- 산림조성에서는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 지방정권기관과 각 지 산림부문 일군들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데 기초하여 나무심기계획을 세우고 적지적수의 원칙 하에 제 철에 나무심기를 하도록 함. 또한 나무모의 포장을 잘하고 식수대상지로의 운반대책을 세우며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사업을 통해 사름률을 더욱 높여야 함. 올해도 혁명사적지, 고속도로, 철길, 공장, 기업소 주변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땀감문제 해결을 위해 아카시아나무림을 기본으로 땀나무림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나무심기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도,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는 군중을 적극 동원하고 인력을 조직하여 전 군중적 운동으로 나무심기를 진행해야 함. 이와 함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통제사업도 강화해나가야 함.

○ 황해남도의 봄철나무심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

-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황해남도는 1만여 정보에 나무 심을 목표를 세우고 시, 군의 나무모밭은 물론 농촌, 공장, 기업소의 나무모생산기지에서 나무모 생

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데 이어 당조직과 청년동맹, 직맹 등 근로단체조직에서 구덩이 파기, 부식토 생산, 나무모 운반을 대중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신천군은 신천박물관 주변에 1만 3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이어 도로와 주변 산에 포플러, 아카시아, 잣나무, 밤나무 등을 심고 있음. 은률군은 1,300여 정보에 심을 수 있는 나무모를 준비하고 나무모 생산과 운반을 앞세워 나무심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은천, 태탄, 웅진, 봉천군 등에서는 나무심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봄철나무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2)

- 황해북도 연산군은 식수절을 맞아 군내 여러 곳을 다니며 적지를 선정하는데 힘을 쏟았음. 수만 그루의 밤나무모와 십여만 그루의 아카시아가 식수현장에 공급된 가운데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는 질 좋은 거름을 내고 나무모를 심고 있음.
- 황해남도 웅진군 송월협동농장은 소나무 대신 경제적 이용가치가 높은 수종 중심으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농장 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이 산을 답사하면서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였음. 농장은 적지적수의 원칙 하에 토심이 알거나 산성기가 심한 곳 등에는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는 아카시아와 칩을 비롯한 콩과식물을, 소나무만 있는 곳에는 잣나무, 쪽가래나무, 왕밤나무, 이깔나무, 참나무를 심어 혼성림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나무모발 관리와 나무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설 ‘조국애, 향토애를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떨쳐나서자’를 게재(민주조선 3. 2)

- 우리 당은 산림조성을 조국의 강성부흥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내세워 적극 추진해왔으며 김정일의 지도 하에 최근 나무심기가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져 산림조성사업에서 큰 진전이 이룩되었음.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나서야 함.
- 산림조성에서는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 지방정권기관과 각지 산림부문 일군들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데 기초하여 나무심기계획을 세우고 적지적수의 원칙 하에 제철에 나무심기를 하도록 함. 또한 나무모의 포장을 잘하고 식수대상지로의 운반대책을 세우며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사업을 통해 사름률을 더욱 높여야 함. 올해도 혁명사적지, 고속도로, 철길, 공장, 기업소 주변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땀감문제 해결을 위해 아카시아나무림을 기본으로 땀나무림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나무심기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도,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는 군중을 적극 동원하고 인력을 조직하여 전 군중적 운동으로 나무심기를 진행해야 함. 이와 함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통제사업도 강화해나가야 함.

○ 봄철나무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2)

- 김정일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해 빨리 자라고 경제적 가치가 큰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를 심도록 치산치수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왔음.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문제, 농촌마을 인근 야산, 살림집 주변에 과일 나무를 많이 심으며 산기슭에 밤나무를 심는 문제, 나무모와 종자문제를 해결하며 심은 나무의 보호관리 문제 등을 밝혀주었음.

<국토환경보호성 국장과 나는 문답>

- 봄철나무심기는 나무모 준비와 구덩이파기 등 사전준비사업이 중요함. 양묘장에서는 나무모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튼튼하고 실한 모를 키워내야 하며 나무모는 뜨는 즉시 심어야 하며 나무를 운반할 때는 뿌리에 진흙물을 바르고 젖은 가마니나 비닐주머니 등에 싸서 운반해야 함.
- 나무를 심을 때는 구덩이를 나무뿌리보다 깊고 넓게 파고 겉흙과 속흙을 갈라놓은 뒤 부식토와 겉흙을 넣어주고 나무뿌리가 사방으로 퍼지게 한 다음 속흙으로 묻어 줌. 나무모는 적당한 깊이를 보장하여 묻어주고 구덩이 안의 흙이 젖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함. 또한 나무는 심은 이후에도 보호관리를 해주어야 함. 나무 사이에 콩 등 키낮은 작물을 심고 가꾸어 잡풀도 없애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야 함.

<평안남도 덕천시에서>

- 평안남도 덕천시는 올해 나무심기계획을 세운데 이어 1단계로 식수절과 봄철나무심기 기간에 산, 공원, 유원지, 도로 및 도시살림집 주변에 나무를 심으며 농촌살림집에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심기로 하였음.
- 시내 각 양묘장에서는 나무모비배관리를 잘하여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비롯한 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를 충분히 확보하였음. 국토관리부문 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은 각 지역에서 여러 수종의 나무심기 방식상학을 진행하여 나무심기에 동원된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하고 있음.

- 각지의 식수절 기념 쉼기모임 개최소식을 보도(로동신문 3. 3, 민주조선 3. 3)
 - 식수절을 맞아 나무심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려 전국의 수림화, 원림화를 다그치기 위한 평양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 녀맹원들, 철도성 종업원들의 쉼기모임 등이 2일 각 도, 시, 군에서 진행되었음.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근로자 및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쉼기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나무와 꽃을 심으며 기름나무림, 경제림, 땀나무림 등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청년영웅도로와 개천-태성호물길 주변, 거리와 공원, 유원지에도 식수사업을 벌리며 농가마다 과일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와 산림보호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봄철나무심기와 국토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군인쉼기모임 개최소식을 보도(로동신문 3. 3, 민주조선 3. 3)
 - 봄철나무심기와 국토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김정일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군인쉼기모임이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부대들과 각급 군사학교에서 진행되었음. 연설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정일이 인민군부대를 현지지도하면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인민군대가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음.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부대에서 지대적 특성과 기후풍토에 맞는 수종에 대한 식수계획을 성과적으로 세워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병영일대와 주변산에 각종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 과학기술적인 나무심기 방법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5)
 - 나무를 심을 때에는 적지적수의 원칙 하에 기후와 토양의 조건을 따져서 그에 알맞는 수종을 심어야 함. 또한 나무를 적기에 심어야 사름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데 봄철나무심기는 언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나무모가 움트는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음. 일반적으로 나무는 온도가 10℃정도가 되어야 자라기 시작하지만 이깔나무나 가문비나무는 5~6℃에서도 자라기 시작하므로 봄철나무심기는 대체로 3월 중에 기본적으로 끝내야 하며 고산지대의 경우에도 4월 중순이나 4월 말까지는 끝내야 함.

- 봄철나무심기를 할 때 나무모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적신 가마니나 비닐주머니로 뿌리를 잘 포장한 다음에 운반해야 함. 나무심을 구덩이를 팔 때는 과녁 흙을 겹흙과 속흙으로 갈라놓고 먼저 부식토와 겹흙을 조금 넣고 나무모뿌리를 허놓은 뒤 속흙을 채우고 나무모의 끝을 잡고 약간 위로 당기면서 잘 밟아주어야 함.
 - 척박하고 산성화된 땅에는 뿌리에 질소고정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심으면 땅을 비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데도 효과적임. 또한 땀감이나 건설 및 가구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꿀벌치기에도 좋음. 가로수로는 은행나무, 수삼나무, 분홍꽃 아카시아가 좋으며 마을 인근 야산이나 살림집 주변에는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 좋음.
- 김정일의 조선인민군 제272군부대 시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3. 7, 민주조선 3. 7)
- 김정일은 오중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272군부대를 시찰하였음. 김정일은 부대에서 양묘기지를 꾸리고 군인들이 나무심기에 적극 나서 몇해 사이에 병영 구내와 주변의 수림화를 실현한 것에 대해 만족해하였고 나무심기가 한창인 뒷산에서 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몸소 식수를 하였음.
 - 김정일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은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를 위한 보람찬 사업이라고 하면서 나무심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뒤이어 김정일은 군부대장의 정황보고를 받고 부대 내 여러 곳을 둘러 보았음.
- 평안남도 덕천시의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8)
- 평안남도 덕천시 국토환경보호관리부는 산림조성계획에 기초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모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국토환경보호관리부는 군산림경영소와 산이용반에 나무모밭을 조성하여 창성이깔나무, 아카시아, 잣나무 등 20여 종의 나무모를 키우고 있으며 올해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심을 나무모들을 확보하였음.
 - 특히 산이용반에서 조성한 숲사이나무모밭은 산속의 양지바른 곳에 나무모를 심기 때문에 나무모들이 지대별 기후조건에 적응하여 자라며 나무모 운반거리가 짧고 사름률이 높은 장점이 있음. 국토환경보호관리부는 오산, 상덕, 남양산이용반의 숲사이나무모 기르기 성과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벌려 70여 정보의 나무모밭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봄철나무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0)

<평양시에서>

- 평양시는 봄철을 맞아 산과 들에 1천여 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과 뽕나무림을 조성하고 시내 중심거리와 공원, 유원지에 수종이 좋은 50여 종의 나무와 꽃관목을 심을 목표를 세웠음. 만경대구역, 순안구역, 강동군은 자체적으로 조성한 나무모밭에서 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를 제때에 공급해주고 있으며 순안, 형제산구역과 강동, 중화, 상원군 등에서는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나무심기과제를 할당하여 나무심기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자체로 나무모를 많이 길러 심자>

-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해마다 병영 구내와 주변 산들에 수많은 나무를 심는 인민군대의 모범을 본받아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나서야 함. 산림조성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모밭을 조성하여 튼튼한 나무모를 키워내는 것임. 각 해당단위는 나무모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심고 있는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배워 나무모밭을 조성하고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많이 길러내야 함.

<황해남도 배천군에서>

- 황해남도 배천군은 식수절을 맞아 잘 키운 각종 나무모를 군소재지와 광산지구 인근 산에 심고 있음. 군당,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과 량정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등 공장, 기업소에서 적극 나서서 나무모 운반과 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심고 있으며 한주 동안에 700여 정보에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 봄철나무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1)

- 함경남도 함흥시는 청년공원과 주변 산들에 수종이 좋고 빨리 자라는 나무를 10만여 그루나 심는 성과를 거두었고 신흥군과 영광군에서도 주변 산에 많은 나무를 심는 등 식수절 하루 동안에만 함경남도는 10만 5,000여명이 나서서 7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자강도 동신군은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모밭을 정하고 종자채취에서부터 씨뿌리기, 모 옮겨심기 등 튼튼한 나무모를 생산하도록 과학기술지도를 강화하였음. 군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충분히 확보한데 이어 거리, 마을, 산에 봄철나무심기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음.

- 황해북도는 올해 270정보에 14만 5천여 그루의 밤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서흥군 금릉리와 봉산군 은정리를 본보기로 도내 각 시, 군에 밤나무림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5천그루씩 밤나무모를 준비하도록 대책을 세웠음.

○ 자강도의 산림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12)

- 자강도는 올해 봄철 나무심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천군에서 방식상학을 조직한데 이어 시, 군 산림부문 일군들을 위한 강습과 경험교환회도 진행하였음. 전천군은 빨리 자라면서도 경제적 효과가 큰 수종의 나무를 적기에 질적으로 심고 있으며 희천시는 하루 동안에 수십 정보에 아카시아, 이깔나무 등을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각 농촌 리에서는 땀감은 물로 농사와 살림집 건설에 쓸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농장림 조성에 힘을 쏟고 있음.

○ 각지의 봄철나무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4)

- 강원도는 각 시, 군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등 도내 모든 부분과 단위에 나무심기과제를 할당하고 나무심기와 나무모 생산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황해북도 린산군은 나무모밭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충실히 키워 나무심을 적지를 선정한 뒤 공장, 기업소, 학교의 일군, 근로자, 청년학생들을 나무심기작업에 동원하였음.

○ 평안남도의 봄철나무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5)

- 평안남도 은산군은 은산군과 북창군 사이 도로주변에 나무를 심는 동시에 400여 정보의 동발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해 탄광지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평원, 증산, 대동군에서는 아카시아나무심기 일정계획에 따라 땀나무림을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순천시, 숙천군을 비롯한 각 시, 군에서는 포플러, 잣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를 주요도로 주변과 산들, 마을에 심고 있음.
- 올해 평안남도는 동발나무림 2,300정보, 땀나무림 5,580여 정보를 비롯하여 9,660여 정보의 산림조성목표를 세웠고 요즘 매일 270여 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9. 기타 보도동향

-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대로 올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농업성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확보·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임. 또한 농업성에서는 올해에도 감자농사와 이모작농사, 콩농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지대적 특성에 맞게 감자농사, 이모작농사, 콩농사 면적을 확정하고 필요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성의 사업계획
 -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달성을 위한 농업성의 사업계획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3)
 -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대로 올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농업성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확보하고 공급하여 올해 박막을 쓰지 않고 비료를 적게 쓰면서 수확고가 높은 종자, 이모작농사를 하는데 알맞은 종자, 생육기일이 짧고 추위에 강한 종자, 병충해와 비바람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작물 품종을 심을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농업성에서는 올해에도 감자농사와 이모작농사, 콩농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지대적 특성에 맞게 감자농사, 이모작농사, 콩농사 면적을 확정하고 필요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경작지에 널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고 앞뒤그루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음.
 - 농업성의 올해 사업 추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4)
 - 농업성은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대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일군들을 도, 시, 군에 파견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성일군들은 감자 재배면적 확장에 따라 각 협동농장에서 앞그루감자씩퇴우기를 주체농법에 맞게 실시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감자밭에 널 거름생산과 운반작업에 역량을 집중하

고 있음. 또한 각 도, 시, 군에서 볍밀, 보리심기를 제 날짜에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협동농장에서 콩농사적지를 선정하도록 한데 이어 콩농사에 필요한 부식토와 유기질비료를 정보당 20톤 이상씩 내도록 하였음.

- 이와 함께 채소, 축산, 과수부문에서도 공동시설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도록 농업성에서는 지도역량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에 일군을 파견하여 영농자재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각 지역의 새해농사차비

○ 평안남도 안주시의 새해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6)

- 평안남도 안주시는 거름생산과 운반, 모판자재 준비와 중소농기구 준비 등 농사차비가 한창임. 남칠, 청송협동농장을 비롯한 시내 협동농장들은 거름생산과 운반 일정계획에 따라 거름원천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기술규정대로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황해남도 청단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9)

- 황해남도 청단군 양화, 화산협동농장은 거름원천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바닥파기 방법으로 거름생산실적을 올리고 있음. 청정, 심평, 대풍협동농장은 각종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며칠 사이에 수백 톤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냈으며 금학, 룡포협동농장은 거름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모판자재를 마련하였음.

○ 함경북도 무산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7)

- 함경북도 무산군은 지난해에 비해 감자밭면적을 1.4배 확장하고 우량감자종자 확보사업을 실시하였음. 이와 함께 일군들을 각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감자농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고 각종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감자밭에 실어내고 있으며 감자저장고의 온습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량강도 보천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8)

- 량강도 보천군은 각 협동농장에서 감자종자를 기술적으로 보관관리하도록 지도사

업을 강화하고 있음. 문암협동농장은 경험 많은 농장원들을 감자종자저장고에 배치하여 감자종자를 기술규정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대신, 보흥협동농장은 일교차가 심한 겨울철 조건에 맞게 저장고의 온습도를 조절하면서 기술적으로 종자를 보관 관리하고 있음.

○ 각지 농촌들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1)

- 평안남도, 황해남도는 올해 이모작 재배면적 확장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질 좋은 거름을 논밭에 내고 있음. 량강도를 비롯한 북부고산지대에서는 다수확품종의 감자종자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물거름 등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감자밭에 내고 있음. 평안북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강원도는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갈이, 소식회 생산, 흙구이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7)

- 평양시는 올해 수천 정보에 콩을 심기 위해 비옥도가 높고 관수조건이 좋은 경지를 콩재배적으로 정하고 강남군, 중화군, 승호구역에서 콩농사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였음. 시는 우량 콩종자를 확보한데 이어 콩심는 기계와 탈곡기 등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 각 구역, 군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관수에 사용할 파이프를 생산하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콩밭에 낼 거름과 흙보산비료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황해남도 연안군은 경지별, 날짜별 거름운반계획을 세우고 모든 역량과 운반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연안읍, 정촌, 소정, 도남협동농장은 계획한 거름을 전량 실어내기 위해 거름원천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오현, 풍천, 청화협동농장 등에서는 인력을 조직하고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계획대로 거름을 실어내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7)

<감자농사혁명>

- 1998년 10월, 김정일은 량강도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대홍단군을 감자농사혁명의 본보기로 삼아 감자농사에서 비약적인 전환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었음. 그리고 지금은 량강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북부고산지대는 물론 우리나라 농촌 어디에서나 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종자론을 기본으로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감자농사의 과학화가 가속화되

고 있으며 감자조직배양공장이 곳곳에 세워졌음. 또한 감자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무바이러스 잔알감자에 의한 통알감자심기방법 등 앞선 영농방법이 도입되었음. 농촌경리부문의 공장, 기업소 등에서 현대적인 농기계, 농기구가 생산되고 있음.

<농사차비>

- 량강도 대홍단군의 농장들에서는 현대적인 감자종자저장움을 이용하여 종자 뒤집어주기를 잘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종자를 보관하고 있으며 정보당 평균 70~80톤씩 낼 수 있는 유기질거름, 물거름, 흙보산비료, 구운 흙, 소석회를 생산하여 밭에 내고 있음. 삼지연군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북주기중경제초기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음. 백암군은 종자보관관리와 거름생산, 실어내기, 농기계생산과 수리정비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8)

- 평안남도 숙천군 광천농장은 기술일군들이 실어낼 거름의 질을 평가하여 합격된 것만 실어내고 있으며 칠리농장은 거름원천을 계속 찾으면서 흙보산비료, 생물활성퇴비, 가축우리바닥흙 등 여러 가지 거름을 배합하여 논밭에 실어내고 있음. 금풍, 송덕, 평산농장 등에서는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니탄캐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30)

- 황해남도 배천군은 수천 톤의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개바닥파기, 물길가셔내기, 니탄캐기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단군은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수리정비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수백 톤의 거름을 실어냈음. 벽성군은 거름생산과 운반을 비롯한 지력 높이기와 냉상모판자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남포시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은 종자보관관리와 거름생산 및 운반, 중소농기구 준비와 농기계수리정비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협동농장은 이모작지에 정보당 40톤 이상의 거름을 내기 위해 거름원천을 총동원하고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실어내고 있음.

○ 평안북도의 새해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 평안북도는 2월 중순까지 각종 농사차비를 끝내기 위해 일손과 운반수단을 총동원

하고 있음. 구장군, 선천군, 동창군 등에서는 거름원천을 탐구동원하면서 거름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운반수단을 거름 실어내기에 집중하고 있음. 신의주시, 룡천군, 광산군, 박천군에서는 감자밭에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40톤 이상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철산, 창성, 삭주군에서는 콩재배 적지에 거름을 실어내고 관수준비사업을 벌리고 있음.

○ 량강도 삼지연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 량강도 삼지연군 포태농장, 중토장농장, 백두산농장 등에서는 가축우리, 퇴적장 등 거름원천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흥계수농장, 보서농장, 통신농장에서는 생산한 거름을 제때에 실어내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군농기계작업소는 트랙터, 연결농기계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한 수리정비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속품을 차질없이 생산, 공급하고 있음.

○ 함경남도 홍남시내 협동농장들의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7)

- 함경남도 홍남시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올해농사에서 흙보산비료를 논에 2톤, 밭에 6톤, 생물활성비료를 10톤씩 낼 계획 하에 모든 농장세대에서 1톤씩, 비육분조에서 5톤, 중축작업반마다 10톤씩의 물거름을 생산하도록 하였음. 수도, 영광협동농장 등 각 농장들은 모판대용비료를 충분히 마련하고 방풍나래, 새끼, 후리채 등을 모아 모판박막을 준비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8)

- 황해북도 서흥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새해농사차비 지표별 계획을 세우고 각 협동농장들이 일정계획대로 농사차비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송월, 가창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들이 가축우리에서 두엄을 받아내고 구운흙과 흙보산비료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내고 있으며 읍, 금릉 등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소석회를 생산하여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강원도 평강군은 올해 콩재배면적을 확장하고 총재배면적의 40%를 집중재배하기로 확정하였음.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 확보에 힘을 쏟고 흙보산비료 생산에 필요한 니탄캐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실어냈음.

○ 황해남도 재령군의 흙갈이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4)

- 황해남도 재령군은 지력이 낮은 100정보의 논밭에 정보당 200톤씩 썩은 흙을 섞을 계획 하에 안개천 물빼기작업을 진행하고 잘 썩은 감탕이 많은 구간에 원토장을 만들어 흙갈이를 하고 있음.

○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7)

- 평안남도 개천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이모작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400여 정보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각 협동농장에서 콩재배 적지를 선정하는데 이어 비배관리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평안북도 철산군 월봉협동농장은 적기에 봄밀, 보리씨뿌리기를 끝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각 작업반에서는 잘 썩은 거름을 내고 주체농법에 맞게 평당 씨뿌림량을 보장하면서 질적으로 씨뿌리기를 하고 있음.

○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7)

- 농업성에서 올해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해 농사준비를 다그치는 가운데 농산국에서는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등 현지지도단위에 내려가 벼, 감자, 콩농사, 이모작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각 도를 담당한 일군들은 도별 농사정형에 기초하여 종자 및 적지 선정, 적기 보장 등 모든 영농준비를 주체농법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평안남도 문덕군 인흥협동농장은 땅의 성질에 맞게 거름종류와 양을 정해 거름을 생산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실어내도록 하고 있음. 황해남도 강령군 오봉협동농장은 콩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콩재배 기술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콩종자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황해북도 은파군 신촌협동농장은 빨리 여물고 수확고가 높은 콩종자를 확보하는데 이어 콩밭 정보당 30톤 이상의 유기질거름을 실어내고 있음.

○ 황해남도 은률군의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9)

- 황해남도 은률군 당위원회는 각 협동농장에서 거름원천 확보와 흙보산비료 생산에 힘을 쏟고 토양조건에 맞게 거름을 실어내도록 하고 있음.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 서곡협동농장을 이모작농사 준비의 앞선 단위로 정하는데 이어 각 작업반들은 1월 중에 거름생산과 운반계획을 끝내고 냉상모판자재 확보와 중소농기구 수리도 끝냈음. 이와 함께 군일군들은 콩재배면적 확장조건에 맞게 적지 선정과 각종 거름

생산, 농기구 수리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 관개관리소의 용수 공급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4)

- 황해남도는 토지정리된 논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음. 시, 군관개관리소와 지구관개관리소는 양수기를 쓰지 않고도 물을 채울 수 있는 저수지들에 흐르는 물을 채우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여 정미나 많은 물을 확보하였음. 또한 해주시, 재령군, 안악군 등 각 군관개관리소에서는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부족한 자재와 부속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양수리 수리정비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토지개혁법령 발포기념일을 맞아 각지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5)

<토지개혁법령의 성과>

- 1946년 3월 5일, 김일성은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고 20여일 동안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음.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양상이 일어났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사회주의협동경리의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음. 김정일은 김일성의 토지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이 땅을 사회주의노선의 땅답게 만들기 위해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를 기점으로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등 수십만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각지 동향>

- 평안북도 삭주군 읍협동농장은 광복과 더불어 토지개혁법령 발포로 분배된 토지에서 농사를 해왔음. 농장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의 영도 하에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고 토지정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콩농사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올해 농장에서는 이미 수십정보의 콩밭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굴포를 기본적으로 완공한데 이어 물길공사와 양수장 건설에 힘을 쏟고 있음.
- 강원도 세포군은 농민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덕에 보답할 마음으로 콩밭면적을 2배로 확장하고 그 준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콩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보산비료와 거름생산 계획을 세우고 거름생산과 운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앙내각, 당위원회, 각지역의 도급기관, 각종 위원회, 공장, 기업소 등 각 단위의 근로자들이 적극 나서서 거름생산과 중소농기구, 영농자재 마련 등 각 지역의 협동농장에 대해 농촌지원사업을 벌임

□ 농촌지원사업

○ 각지의 농촌지원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4)

- 내각사무국은 수안군과 곡산군, 신계군의 협동농장들에 비료를 실어다 주었고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에서 거름 운반작업을 돕고 있으며 형제산구역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은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하루 동안에 1,000여 톤의 거름을 형산, 학산협동농장에 실어냈음.
- 평안남도 당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에서도 680여 톤의 거름과 영농자재, 설비부속품을 마련하여 평성시 덕산, 백송협동농장 등에 지원하였으며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에서도 많은 거름과 소농기구를 농촌에 보내주었음.
- 외교단사업총국은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승용차수리소는 걸이대와 가래삽 등 각종 농기구를 준비하고 자재상사에서는 거름원천을 찾아 농장에 실어다 주었음.

○ 각지의 농촌지원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4)

- 내각사무국은 수안군과 곡산군, 신계군의 협동농장들에 비료를 실어다 주었고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에서 거름 운반작업을 돕고 있으며 형제산구역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은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하루 동안에 1,000여 톤의 거름을 형산, 학산협동농장에 실어냈음.
- 평안남도 당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에서도 680여 톤의 거름과 영농자재, 설비부속품을 마련하여 평성시 덕산, 백송협동농장 등에 지원하였으며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에서도 많은 거름과 소농기구를 농촌에 보내주었음.
- 외교단사업총국은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승용차수리소는 걸이대와 가래삽 등 각종 농기구를 준비하고 자재상사에서는 거름원천을 찾아

농장에 실어다 주었음.

○ 농촌지원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5)

- 황해남도 인민위원회는 139톤의 거름을 자동차와 손달구지에 싣고 해주시내 협동농장별에 실어낸데 이어 휴식시간을 농촌지원활동으로 보내고 있음. 해주시내 기관, 기업소, 공장, 동, 인민반에서도 생산한 거름을 여러 협동농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벽성, 배천, 연안, 청단군의 노동자, 사무원, 여맹원, 인민반원들도 매일 수천 톤씩의 질 좋은 거름과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농촌지원에 앞장서고 있음.
- 함경북도는 농촌지원사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협동농장의 농사차비 정형을 파악하여 필요한 영농물자를 마련하고 거름생산에 총력을 기울였음. 회령시, 김책시, 온성군, 새별군 등 각 시, 군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많은 농기구와 영농자재를 마련하고 거름생산을 늘려 농촌지원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함경남도의 농촌지원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9)

- 함경남도의 도급기관과 각 시, 군에서 농촌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한 가운데 영광군, 금야군의 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8,000여 톤의 거름을 협동농장에 실어주고 농장원들과 함께 1,000여 톤의 거름을 더 생산하였음. 장진군, 부전군은 1,000여 톤의 거름을 협동농장에 보내주고 100여 톤의 니탄을 캐서 흙보산비료 생산을 적극 도와주었음.

○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5)

-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공장, 기업소의 일군, 근로자들에서부터 인민반원까지 적극 나서서 거름생산과 중소농기구, 영농자재를 마련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음. 특히 신의주법랑철기공장, 신의주일용품공장, 신의주기초식품공장에서는 거름과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였고 신의주수출피복공장, 신의주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비닐박막 등을 장만하였음. 이로써 신의주시는 5만 6,000여 톤의 거름과 많은 중소농기구, 영농자재를 시 주변 협동농장들에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7)

- 황해북도 사리원시는 인민위원회, 협동농장경영위원회 등 시급기관들이 나서서 지

난해 장만한 질 좋은 거름을 이모작 재배지에 실어냈으며 편의봉사관리소, 기계공장 등에서도 계획보다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이로써 새해 들어 2일 동안에 8,0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시주변 협동농장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각지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8)

· 평양시는 모든 구역, 군들과 수천 개의 기관, 기업소들이 적극 나서 2만여 톤의 질 좋은 거름과 15종에 수만 점에 달하는 각종 중소농기구를 시 주변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평안북도는 87만여 명의 군중이 동원되어 11만여 톤의 거름을 생산하고 10만여 톤의 거름을 농장별로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함경남도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9)

· 함경남도의 각 시, 군들과 도급기관, 시 및 군급기관, 가두인민반에서 모두 나선 가운데 많은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 중소농기구를 보내주었음. 함경남도는 새해 들어 4만 3,200여 톤의 거름을 170개 농장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남도의 농촌지원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

· 평안남도 평성시는 수백 톤의 거름과 10여 종에 수천 점의 중소농기구를 확보하였고 속천, 평원군, 안주시를 비롯한 다른 시, 군에서도 2~3일 사이에 거름과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음.

○ 천리마군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12)

· 천리마군 인민위원회,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은 질 좋은 거름을 장만하고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협동농장에 실어나 주었음. 군차사업소, 군송배전소, 군관개관리소 등 여러 단위에서도 대보협동농장에 계획보다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실어내 주었음.

○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4)

· 평안북도 당위원회는 올해 이모작 재배면적을 늘이고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 하에 양어장과 물모이못 바닥파내기사업을 벌이고 있음. 도급기관과 신의주시 청년동맹위원회, 여맹위원회 등에서 주변 양어장과 물모이못 바닥파기에 나선

가운데 6일 동안에 1만 4천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벌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학생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여맹원들의 궤기모임 등이 진행되고, 농업근로자들의 궤기모임에서는 당의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이모작농사방침을 관철하여 높은 생산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군중대회(각종 모임)

-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설맞이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 민주조선 1. 2)
 - 각지 공장, 기업소에서 설맞이모임을 진행하는 가운데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 만경대구역 칠골농장과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등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감자농사와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일념에 농악무와 노래 등 여러 종목들로 경축무대를 가졌음.
-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군중대회 개최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 8, 민주조선 1. 8)
 -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군중대회가 7일에 진행되었음. 평안남도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발전설비대보수와 중소형발전소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온천지구의 간석지 개간, 수백 정보의 소금밭 건설과 함께 새로 정리한 농경지에서 알곡생산을 늘일 것에 대하여 말하였음. 또한 시, 군에 메탄가스화된 농촌살림집을 건설하며 곳곳에 축산기지를 조성하고 닭, 오리공장을 현대화할 것을 강조하였음.
 - 평안북도 군중대회에서는 기계,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문제와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각 협동농장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할 것에 대해 지적하였음. 황해북도 군중대회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에 따라 이모작 재배면적을 더욱 늘리며 콩농사와 과수업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함경남도 군중대회에서는 화학, 기계, 건재공업, 임업부문의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생산을 높이며 알곡증산과 토지정리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자강도, 황해남도, 강원도 군중대회 개최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 9)

· 자강도, 황해남도, 강원도군중대회와 인민보안성 군무자들의 쫄기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된 가운데 자강도 군중대회에서는 도내 경공업공장에서 기술개건을 통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며 홍주닭공장의 설비조립을 다그쳐 생산을 정상화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음. 황해남도 군중대회에서는 종자혁명을 기본으로 삼아 이모작 재배면적을 늘이는 것과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강원도 군중대회에서는 각 시, 군에서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쏟아 거리와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하였음.

○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근로단체들의 쫄기모임이 진행되었다고 보도(로동신문 1. 11, 민주조선 1. 10)

·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학생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여맹원들의 쫄기모임이 진행된 가운데 농업근로자들의 쫄기모임에서는 당의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이모작농사방침을 관철하여 높은 생산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 개최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30, 민주조선 1. 30)

·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내각총리를 비롯한 내각 성원들, 관계부문 일군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올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와 현실조건에 적합한 다수확 우량품종을 육종함으로써 벼와 강냉이는 물론 감자농사와 이모작농사에 필요한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모든 단위에서 감자재배면적을 늘리고 앞뒤그루 작물배치를 바로 하며 각 영농공정에서 주체농법을 준수하여 정보당 알곡생산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콩농사와 과수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며 토지정리사업과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적극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음. 이와 함께 연관부문에서는 영농물자와 농업기술수단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 등 온 나라가 농촌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지난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에 김정일의 감사와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고 보도(로동신문 1. 31, 민주조선 1. 30)

- 지난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에 김정일의 감사와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박천군, 평강군, 안주시, 과일군 외 47개 단위에 감사와 선물이 전달되었고 문덕군, 금야군, 피현군 외 20개 단위에 감사가, 강원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들에 선물이 전달되었음.
 - 이들 단위에서는 토지정리와 산림조성, 강하천 정리, 도로, 살림집 건설과 보수 등 국토환경보호 및 도시경영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맡겨진 국토관리총동원계획을 지표별로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46차 전원회의 진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46차 전원회의가 2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농근맹중앙위원회 승상섭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농근맹조직들의 토론이 있었음.
 - 전원회의는 농근맹조직들이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삼아 감자농사혁명을 적극 밀고 나가며 이모작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모든 동맹원들을 고무추동함으로써 올해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다그치며 축산기지들과 개건 현대화된 닭공장들이 큰 실적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다수확군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는 숙천군 농업근로자들의 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 민주조선 3. 2)
-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다수확군에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하는 평안남도 숙천군 농업근로자들의 모임이 2월 2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모임에서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승상섭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최근에 다수확군들이 알곡증산 투쟁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그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 것에 대해 언급하였음. 그들은 모든 농장과 작업반, 분조에서 농사일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해야하며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논밭 정보당 수십 톤의 질 좋은 거름을 내고 지대별 특성에 맞게 우량품종의 종자를 심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그리고 이모작 재배면적을 늘리고 벼모내기과 김매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축산, 과일, 채소 등 전반적 농산물 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회주의 경쟁을 벌릴 것을 전국의 다수확군 농업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음.

- 제8차 김정일화축전이 2004년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평양의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음. 축전에는 김정일화를 재배하고 있는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무력기관들, 단위 일군들과 각 계층 근로자, 군인,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결과가 발표되었음.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리상열소속부대 등 48개 단위에 불멸의 꽃 최우수상이, 34개 단위에 불멸의 꽃 우수상이, 5개 단위에 불멸의 꽃 공로상이 수여되었으며 49명에게도 개별적으로 상이 수여되었음.

□ 김정일화축전

○ 제8차 김정일화축전에 대해 소개 (로동신문 1. 11)

- 제8차 김정일화축전이 2004년 2월 14일부터 10여 일간 평양의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임. 축전에는 김정일화를 재배하고 있는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무력기관들, 각도 그리고 개별 근로자들이 참가할 수 있음.

○ 황해남도 룡연군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3)

- 황해남도 룡연군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건설하여 개관하였음. 온실에는 전시장과 사철 재배가 가능하도록 냉온설비를 갖춘 재배실 2곳, 전기와 물을 보장할 수 있는 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교단시설관리사업소의 김정일화 재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8)

- 외교단시설관리사업소는 제8차 김정일화축전 출품을 위해 온실 온습도를 보장할 무동력보일러를 개조하고 김정일화 재배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 수산성의 김정일화 재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3)

- 수산성은 지난해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건설한데 이어 김정일화 재배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성일군들은 온실에 무동력 보일러를 설치하여 추운 날씨에도 꽃의 생육조건을 보장하면서 온습도, 빛, 영양관리 등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제8차 김정일화축전을 앞두고 전시대와 장식용 보조식물 준비도 하고 있음.

○ 전국 각지의 김정일화 재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7)

· 제8차 김정일화축전을 앞두고 인민무력부, 과학원, 인민보안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축전준비사업을 다그치는 가운데 전국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는 온습도를 조절하고 꽃의 생육상태를 살펴가면서 축전에 전시할 꽃을 정성껏 가꾸고 있음.

○ 량강도의 김정일화축전 준비 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31)

· 량강도 김정숙군, 혜산시, 갑산군, 대홍단군, 백암군, 보천군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는 겨울철 기후조건에 알맞게 김정일화 가꾸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음. 도내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노동자, 청년학생들도 김일성화축전을 앞두고 김정일화 재배에 힘을 쏟고 있음.

○ 평안남도의 김정일화 재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

· 평안남도는 제8회 김정일화축전을 앞두고 각 시, 군, 연합기업소 내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30여 곳에서 김정일화를 재배하고 있음. 도김일성화김정일화 보급국은 김정일화 재배육성에 대한 기술전습, 경험교환회를 진행하여 좋은 방법들을 받아들여이도록 하고 있음.

○ 평양시 김정일화전시회 개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민주조선 2. 3)

· 평양시 김정일화전시회 개막식이 2일 관상원에서 진행되었음. 시내 각급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재배한 2,000여 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된 가운데 평양시인민위원회 량만길 위원장은 개막사에서 전시회를 통해 김정일화의 재배보급사업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모든 단위에서 올해 공동사설 관철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정일화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3)

· 체육지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건확장공사를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음. 1,500여㎡의 부지면적에 건설된 온실에는

재배실과 잠재우기실이 있으며 온습도 조절, 환기, 난방이 보장됨.

- 성, 중앙기관들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 따르면 1월 한달동안에 30여 개의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이 새로 건설되었음.
- 황해남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의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7)
 - 황해남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은 수시로 꽃관리에 대한 기술학습을 진행하고 온실관리에 필요한 석탄, 부식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음. 김정일화실과 김일성화실에서는 온습도, 빛, 공기를 과학기술적으로 보장하여 꽃을 최상의 수준에서 피워가고 있음.
- 강원도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8)
 - 강원도내 시, 군인민위원회는 온실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재지 중심부에 부지를 정하고 자체적으로 돌격대를 조직하여 온실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음. 이로써 강원도 금강군, 철원군, 판교군 등 12개 시, 군에서 최근 2년 사이에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개관하였음.
- 황해남도 안악군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8)
 - 황해남도 안악군은 사계절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진 전시장과 2개의 재배실 등으로 구성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완공하여 개관하였음.
- 제8차 김정일화축전 준비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9)
 - 인민무력부와 과학원, 인민보안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 량강도, 자강도, 황해북도 등 각 도들과 시, 군에서 제8차 김정일화축전 준비가 한창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는 일군들을 축전참가단위에 파견하여 김정일화 재배, 관리에 대한 문제의 협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도에서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꽃 재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김정일화 축전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0)

<황해남도에서>

- 황해남도 배천, 청단, 웅진, 신천군 등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독특한 형식

으로 건설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꽃을 재배하고 있으며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등 도급기관들은 앞선 꽃가꾸기기술을 도입하여 김정일화를 준비하고 있음.

<전국 각지에서>

-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김일성 고급당학교, 인민보안성, 화학공업성 등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건설하여 제8차 김정일화축전에 출품할 꽃을 재배하고 있으며 인민무력부는 온실을 개건확장하여 꽃재배와 보급, 전시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음. 평성시, 염주군, 웅진군 등 각지 많은 단위에서도 온실을 조성하여 김정일화를 가꾸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30여 개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이 건설되었다고 함.
- 김정일화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10)
-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김일성 고급당학교, 인민보안성, 화학공업성 등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건설하여 제8차 김정일화축전에 출품할 꽃을 재배하고 있으며 인민무력부는 온실을 개건확장하여 꽃재배와 보급, 전시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음. 평성시, 염주군, 웅진군 등 각지 많은 단위에서도 온실을 조성하여 김정일화를 가꾸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30여 개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이 건설되었다고 함.
- 제8차 김정일화축전 개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5, 민주조선 2. 15)
- 제8차 김정일화축전이 14일 평양에서 개막되었음. 축전장에는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각 도와 각 계층 근로자들, 우리나라 주재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등이 참여한 가운데 1만 6,000여 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되었음.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강능수 위원장은 개막사에서 김정일의 위인상을 기리는 이 축전을 통해 김정일화 재배번식에서 이룬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축전기간이 재배와 보급, 위대성 선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각 도별 김정일화전시회가 개막되었다고 보도(민주조선 2. 16)
- 량강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등 각 도에서 도급기관들과 시, 군기관, 공장, 기업소 등의 참여 속에 김정일화전시회가 개막되었음. 각 도별로 현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 연설자들은 지난 기간 여러 단위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건설하고 재배해온 것에 대해 언급하고 전시회를 통해 김정일화의 재배보급사업에서 거둔 성

과와 경험을 나누어 김정일화를 대대적으로 재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정일화재배 경험발표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7)

- 김정일화재배 경험발표회가 15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음. 조선혁명박물관 리미영,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리경숙은 김정일화조직배양모의 순화율을 높이고 공정별 재배와 빛이 부족한 온실에서 보충조명을 이용한 재배에서 조선인민군 리상열 소속부대 리춘식은 김정일화의 알뿌리재배에서, 체신성 자재상사 리옥녀는 김정일화의 꽃피는 시기의 영양관리에서, 봉화총국 최순애는 여름철 김정일화재배에서 얻은 경험을 발표하였음.

○ 제8차 김정일화축전 폐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6, 민주조선 2. 26)

- 제8차 김정일화축전 폐막식이 25일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진행되었음. 각 관계부문 일군들, 축전에 참가한 단위 일군들과 각 계층 근로자, 군인,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결과가 발표되었음.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리상열소속부대 등 48개 단위에 불멸의 꽃 최우수상이, 34개 단위에 불멸의 꽃 우수상이, 5개 단위에 불멸의 꽃 공로상이 수여되었으며 49명에게도 개별적으로 상이 수여되었음.

□ 양어

○ 양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14)

- 10월23일목장은 산중에 현대적인 양어장을 건설하고 칠색송어를 길러 축산물 생산과 함께 칠색송어 생산에도 충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양메기공장은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메기를 생산하기 위해 과학기술적으로 메기를 기르고 있음. 종어직장은 빨리 자라고 생산성이 높은 종자메기의 영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제철에 알을 많이 받아 알깨우기실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와 함께 새끼메기들에 대한 물, 영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고 생먹이와 배합먹이생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겨울철 물고기기르기를 잘하자>

- 겨울철 물고기기르기를 과학적으로 실시하는가에 따라 한해 물고기 생산성과가 크게 좌우됨. 이에 따라 양어부문의 당조직들과 지도기관들은 겨울철 물고기기르기

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해야 함.

- 종자물고기 관리를 잘해야 함. 빨리 자라고 생산성이 높으며 맛있고 영양가 높은 종자물고기를 많이 생산하고 종자물고기에 대한 물과 영양관리, 특히 수온과 산소 보장을 기술규정대로 해야 함.
- 겨울철 새끼물고기 생산에 관심을 돌려야 함. 찬물고기의 알받이와 새끼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사름률을 높여야 하고 새끼메기생산을 위한 알낱이준비와 알받이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 배합먹이생산을 늘려야 함. 메기공장과 양어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먹이원천과 배합먹이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영양가 높은 물고기배합먹이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함. 또한 양어사업소에서는 겨울철 양어장과 못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실시해야 하며 양어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향상시켜야 함.

○ 평안북도 광산군의 양어못 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9)

- 평안북도 광산군은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조성된 양어장에 일군을 파견하여 물고기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학습시키는 한편 해당 양어장 관리공들이 양어못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자강도 시중군의 양어장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6)

- 자강도 시중군은 수물지구에 현대적인 양어장을 건설하기 위해 기관, 기업소에서 200여명의 청년들 선발하여 돌격대를 조직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2년 남짓한 기간에 21정보의 현대적인 양어장을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기초식품

○ 지난해 각지 기초식품공장의 생산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4)

- 함흥기초식품공장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간장과 여러 가지 된장은 시내 근로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삭주식료공장은 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료수급에 적극 나서서 지난 한해 동안 된장, 간장을 원활히 생산하였음. 강계기초식품공장은 지난 한해동안 된장, 간장생산계획을 120% 이상 달성하고 장의 질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30)

- 평양기초식품공장은 기초식품 원료 수송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초식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력직장은 기존의 보일러로 더 많은 증기를 생산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발효간장직장은 새로운 간장생산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된장직장은 생산공정의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함경남도 함흥시의 기초식품 생산사업 추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3)

- 함경남도 함흥시 인민위원회는 기초식품 생산 정상화를 위해 원료보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콩 수매보장대책을 세우고 확보한 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을 통해 생산설비를 현대화함으로써 된장의 수분함량을 낮추었으며 동시배양방법을 받아들여 된장생산기일을 30일이나 단축시켰음. 고추장 생산공정에서는 원료배합과 설비관리를 표준조작법대로 하여 고추장의 질과 실수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함경남도 함흥기초식품공장의 기술발전 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4)

- 함경남도 함흥기초식품공장은 기초식품의 질을 높이고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기술혁신을 이루어 생산공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된장 생산공정에는 종곡생산공정이 새로 조성되었고 고추장 생산공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음.

○ 함경남도 함흥기초식품공장의 추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

- 함경남도 함흥기초식품공장은 경공업과학분원에서 새롭게 연구완성한 장생산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해당부문의 연구사를 초빙하고 공장의 유능한 기술자들로 연구조를 조직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음.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생산공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모범적으로 해결해나갔고 조선장의 특성을 살린 질 좋은 장을 생산하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는 장직장의 운반장치 개조, 공기조화기 배관 교체 등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가공식품

○ 먹는기름 문제해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0)

<좋은 기름작물을 더 많이 심자>

· 각 시, 군에서 먹는기름 공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함. 시, 군의 책임 일꾼들은 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야 함. 참깨, 들깨, 콩, 땅콩, 해바라기, 유채, 기름아마 등 여러 가지 기름작물 중에서 각 지방에 적합한 기름작물을 선정하고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심어야 함. 이모작농사의 뒤그루나 채소밭, 강냉이밭의 사이그루로도 심고 과수원과 뽕밭의 빈땅, 강하천의 모래땅, 기관, 기업소, 학교, 집주변 등 기름작물을 심을 수 있는 곳에는 군중적으로 기름작물을 심어야 함.

<함경남도 인민위원회에서>

· 함경남도 인민위원회는 먹는기름문제 해결을 위해 각 도, 시, 군에 일꾼들을 파견하여 기름작물 재배적지를 확정해주고 종자확보대책도 세워주고 있음. 또한 기름 짜는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설비를 제때에 보수하고 기름생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비개건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김정일이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 중인 식료가공공장을 시찰하였다고 보도(로동신문 1. 12, 민주조선 1. 13)

· 김정일은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 중인 식료가공공장을 시찰하였음. 이 공장은 부지 13만여㎡에 기초식품을 비롯한 각종 부식물들과 여러 가지 식료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양곡가공도 가능한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임. 김정일은 공장 내외부를 돌아보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건설자들이 식료가공공장을 훌륭히 건설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시하였음.

□ 농민휴양

○ 농민휴양이 한창인 전국 각지의 휴양소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6)

· 전국 각지의 휴양소에서 농민휴양이 한창임. 황해남도의 휴양소 15곳에서도 농민휴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벽성군 석담구곡휴양소는 지난해 2개 호동을 현대적으로 조성한데 이어 100여 명에 달하는 도내협동농장에서 온 농업근로자들이 휴양

을 하고 있음. 평양고방산휴양소, 묘향산휴양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휴양소에서 농업근로자들은 여러 역사유적지를 참관하고 다양한 문화오락과 여러 가지 체육경기를 즐기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의 농민휴양소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28)

- 황해남도 안악군 월정리 구월산명승지 입구에 안악농민휴양소가 건설되었음. 2층 휴양각은 연건평 1,200㎡이고 6천여㎡의 부지에 휴양각을 비롯한 4동의 건물과 운동장, 휴식터 등이 갖추어져 있음. 2층 휴양각은 교양실, 문화오락기재를 갖춘 방들, 식당, 세면장이 있으며 그 뒤로는 3동의 보조건물에는 편의봉사시설들과 냉동실, 식료가공시설과 돼지, 염소, 토끼우리와 먹이가공기지, 각종 창고들이 있음.

○ 강원도 평강군의 농민휴양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2)

- 강원도 평강군은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농업근로자들로 농민휴양을 조직하였음. 평강군농민휴양소에서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휴양생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방꾸리기를 잘하고 생활필수품을 갖추도록 하는 등 휴양기간동안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면서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음.

□ 위생관리사업

○ 위생월간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6)

- 3, 4월 위생월간을 맞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해야 함. 각 시, 군 정권기관들과 위생방역기관에서는 지역 내 위생문화실태를 파악하여 이번 월간에 해야할 사업내용을 계획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알려주어야 함. 이와 함께 시, 군 인민위원회는 위생월간사업에 필요한 자재 보장을 위해 지방산업공장의 생산을 늘리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도록 함.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최응준원장과 나눈 문답>

- 3, 4월 위생월간사업은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에서 겨울을 보낸 흔적을 없애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각 가정에서는 안팎을 정리하고 외장재를 새롭게 바르도록 하며 마을의 모든 배수로를 깨끗이 정리하도록 함. 이와 함께 오물장의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고 공동위생실

을 위생학적으로 관리해야 함.

- 공장, 기업소에서는 생산설비를 정비, 보수하고 생산 현장에서 원료, 자재에 대한 관리사업과 제품창고에 대한 정리사업을 잘해야 함.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음료수 보장대책을 세우는 한편 공동우물과 개인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오염원천으로부터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농장과 가정의 가축과 소 우리를 청소, 소독하여 가축 사양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탈곡장 및 퇴비장 정리사업을 잘하도록 함.

□ 기계화

○ 농업성 농기계운영국의 추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7)

- 농업성 농기계운영국은 올해 각 농촌들에서 감자파종기, 감자수확기, 밀, 보리, 콩 파종기, 종자선별기를 많이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주요 과업으로 삼고 우리나라 지형조건과 현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농기계를 생산, 도입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각도 농기계부문 일군들의 강습을 조직하여 올해 생산도입할 농기계 생산조직과 지도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도하였음.

○ 황해남도 신천군농기계작업소의 수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6)

- 황해남도 신천군 농기계작업소는 거름실어내기와 봄갈이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트랙터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생산과 재생에 힘을 쏟고 있음. 주물작업반은 기계 가동률을 높여 주물, 주강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가공작업반, 트랙터수리작업반, 농기계수리작업반 등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기계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각종 지구, 공구를 창안제작하고 있음.

○ 황해남도 웅진군 농기계작업소의 설비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2. 29)

- 황해남도 웅진군 농기계작업소는 가공작업반을 기계관리의 본보기로 삼아 설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트랙터수리, 자동차수리, 프레스작업반에서는 설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계를 보다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설비점검과 수리보수에도 힘을 쏟고 있음.

○ 함경남도 북청군 청홍협동농장의 발전소 이용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

- 함경남도 북청군 청홍협동농장은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공정을 자체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 농장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있음. 이는 농사일의 적기를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살림집들의 조명도 해결할 수 있음.

○ 농기계 수리정비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3)

- 봄철 영농작업을 앞두고 각지에서 농기계 수리정비가 한창임. 평양시 각 구역 농기계작업소는 수집한 수십 톤의 유희자재로 여러 종류의 부속품을 생산하여 트랙터 수리정비를 끝냈으며 진논복토기, 수동식콩과종기, 콩종합탈곡기를 제작하고 있음. 평안남도 증산군 농기계작업소는 1,000여대 분의 트랙터와 모내는기계, 원동기 부속품을 생산하거나 재생하여 수리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황해남도 웅진군 농기계작업소는 50여 종에 대략 3,000개의 농기계부속품을 생산 및 재생하여 트랙터 수리정비를 끝냈음.

○ 평양시 락랑구역에서 트랙터대열 검열과 출동식이 진행되었다고 보도(로동신문 3. 5)

- 락랑구역 당위원회와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올해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트랙터 수리정비에 힘을 쏟았음. 구역농기계작업소는 짧은 기간에 40여종에 1만 5천여개의 부속품을 생산하고 수천개의 부속품을 재생하여 트랙터수리정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음. 구역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구역 내 모든 트랙터와 연결차를 새것처럼 수리정비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이로써 3월 2일, 평양시 락랑구역에서 올해 영농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트랙터대열 검열과 출동식이 진행되었음. 구역 내 트랙터운전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백 대의 트랙터와 연결차가 수리정비되었으며 운전수들은 트랙터 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와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추어 놓았음.

○ 각지의 농기계 수리정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11)

- 봄철 영농작업을 앞두고 각지에서 농기계 수리정비가 한창임. 평양시 각 구역 농기계작업소는 수집한 수십 톤의 유희자재로 여러 종류의 부속품을 생산하여 트랙터 수리정비를 끝냈으며 진논복토기, 수동식콩과종기, 콩종합탈곡기를 제작하고 있음. 평안남도 증산군 농기계작업소는 1,000여대 분의 트랙터와 모내는기계, 원동기 부속품을 생산하거나 재생하여 수리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황해남도 웅진군 농기계작업소는 50여 종에 대략 3,000개의 농기계부속품을 생산 및 재생하여 트랙터 수리정비를 끝냈음.

- 평안북도 룡천군 인흥협동농장의 정미공정 개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3. 13)
 - 평안북도 룡천군 인흥협동농장은 정미공정의 출미율을 높여 흰쌀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정미기 개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어려운 조건에서 출미율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 연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쌀겨와 쌀락쌀을 분리하는 공정을 비롯하여 한 공정식 현대적 개조를 완성해나갔고 2중살창식 쌀락쌀 분리기를 창안하는 등 정미공정을 모두 새롭게 개조하는데 성공하였음.

□ 각 단위 활동

- 각지의 새해공동시설 관철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6)
 - 황해북도 연산군 인민위원회는 새해공동시설에 제시된 대로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군민발전소 기본공사를 끝내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군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음.
 - 황해남도 연안군 인민위원회는 지방공업 활성화사업에 힘을 쏟으면서 군내 협동농장들에 4만 5,000여 톤의 거름과 중소농기구, 영농자재를 지원할 목표를 세우고 내부예비와 유희자재를 동원하여 거름과 영농자재를 확보하고 있음.
- 평양시 형제산구역 형산협동농장의 노력일 평가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3)
 - 평양시 형제산구역 형산협동농장의 각 작업반에서는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음. 농장에서는 매일 분조단위로 노력일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실적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에 알맞은 노력일을 정확히 평가하여 농장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있음.
- 황해남도 재령군 굴해리 청년동맹초급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9)
 - 황해남도 재령군 굴해리 청년동맹초급위원회는 경작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낮에는 소속된 작업반이나 분조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개바닥흙파기작업을 실시하였음. 청년동맹조직은 작업반, 분조에서 제일 지력이 약한 경작지와 거름을 실어내기 불리한 땅에 집중적으로 개바닥흙을 실어내고 있음.

□ 기름생산

○ 평안남도 평원군 신송협동농장의 기름생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5)

- 평안남도 평원군 신송협동농장은 종자확보와 기름생산정형을 파악하면서 경작지의 지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농장은 올해 이모작과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조건에 맞게 휴보산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트랙터와 각종 기름운반수단을 동원하여 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 있음. 또한 흙갈이, 열두바닥흙과기 등을 진행하여 경작지를 기름지게 가꾸고 있음.

○ 평안남도 순천시의 기름생산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20)

- 평안남도 순천시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기름원천을 최대한 찾아내는 한편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기름생산과 운반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강포, 런포, 증산협동농장 등에서는 지난해보다 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작업반, 분조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여 기름을 생산하고 있음.

○ 평양시 주변 농촌들의 기름생산 및 운반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2. 2)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는 지난 시기보다 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보통강, 모란봉, 평천구역 등에서 농촌지원을 위해 보내온 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 있으며 락랑, 형제산, 사동구역과 강동, 강남군 등에서는 각종 기름원천을 확보하는 등 기름생산과 운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한 지원 동향
3. 교류협력사업 동향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4년 1월중 남북교역액은 175품목 3,717만 달러로 전월 217품목 5,408만 달러에 비해 31.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의 177품목 4,736만 달러에 비해 21.5% 감소하였음.
- 반입은 74품목 2,075만 달러로 전월의 71품목 2,494만 달러에 비해 16.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의 75품목 2,154만 달러에 비해 3.7% 감소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51.0%, 섬유류 25.9%, 철강·금속제품 15.1%, 전자·전기제품 5.3%, 등임.
- 반출은 122품목 1,642만 달러로 전월의 173품목 2,914만 달러에 비해 43.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의 125품목 2,581만 달러에 비해 36.4% 감소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31.5%, 섬유류 25.4%, 농림수산물 13.2%, 광산물 8.4%, 전자·전기제품 6.2%, 기계류 2.6% 등임.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4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059만 달러로 전월 1,452만 달러 대비 27.1% 감소하고, 전년 동월 1,006만 달러 대비 5.2% 증가했으며, 1월 전체 반입액 2,075만 달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리의 51.0%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인 기타 과실·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43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0.8%),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62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9.9%)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4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17만 달러로 전월 826만 달러 대비 73.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70.9%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감귤·제조담배 등 농산물이 16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0.3%), 기타 가축육류 등 축산물이 2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8%), 젓가락 등 임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1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0%)를 차지했음.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4년 2월중 남북교역액은 200품목 2,814만 달러로 전월 175품목 3,717만 달러에 비해 24.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의 221품목 4,141만 달러에 비해 32.1% 감소하였음.
- 반입은 81품목 1,844만 달러로 전월의 74품목 2,075만 달러에 비해 11.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의 80품목 1,516만 달러에 비해 21.6% 증가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40.9%, 섬유류 37.4%, 철강·금속제품 12.7%, 광산물 6.2% 등임.
- 반출은 142품목 970만 달러로 전월의 122품목 1,642만 달러에 비해 40.9%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의 165품목 2,625만 달러에 비해 63.0% 감소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3.2%, 전자·전기제품 15.2%, 농림수산물 13.9%, 철강·금속제품 12.9%, 기계류 11.6% 등임.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4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755만 달러로 전월 1,059만 달러 대비 28.7% 감소하고, 전년 동월 718만 달러 대비 5.1% 증가했으며, 2월 전체 반입액 1,844만 달러의

40.9%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인 기타 버섯류·잎담배 등 농산물이 27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4.8%),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8,000 달러(전체 반입액의 0.04%),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48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6.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4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35만 달러로 전월 217만 달러 대비 37.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밀가루·제조담배 등 농산물이 6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6.2%),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2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0%),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3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6%),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1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1%)를 차지했음.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4년 3월중 남북교역액은 230품목 3,897만 달러로 전월 200품목 2,814만 달러에 비해 38.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의 214품목 3,937만 달러에 비해 1.0% 감소하였음.
- 반입은 72품목 2,240만 달러로 전월의 81품목 1,844만 달러에 비해 21.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의 86품목 2,066만 달러에 비해 8.4% 증가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42.3%, 섬유류 33.0%, 철강·금속제품 15.3%, 광산물 5.2% 등임.
- 반출은 182품목 1,657만 달러로 전월의 142품목 970만 달러에 비해 70.8%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의 151품목 1,871만 달러에 비해 11.4% 감소하였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0.4%, 기계류 21.5%, 화학공업제품 13.1%, 농림수산물 10.2%, 광산물 6.5%, 전자·전기제품 5.8% 등임.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4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948만 달러로 전월 755만 달러 대비 25.6% 증가하고, 전년 동월 852만 달러 대비 11.2% 증가했으며, 3월 전체 반입액 2,240만 달러의 42.3%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호도·표고버섯 등 농산물이 22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9.8%),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72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2.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4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68만 달러로 전월 135만 달러 대비 24.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녹두·제조담배 등 농산물이 12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7.8%), 분유 등 축산물이 1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0%), 합판 등 임산물이 1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6%), 어패류·건조수산물 등 수산물이 1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8%)를 차지했음.

표 1 2004년 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771,700	4,322	20.8	농산물	3,734,682	1,693	10.3
기타 서류	5,420	3		쌀	6,557	17	
들깨	90,160	46		밀가루	123,500	31	
기타 과일	326,200	1,679		사과	1,373	3	
기타 곡실류	12,100	15		오렌지	2,441	9	
호박	191,814	56		감귤	3,500,000	1,206	
기타 채소	214,929	288		상추	420	1	
고사리	27,810	120		파	300	1	
고비	5,542	18		고비	1,700	6	
표고버섯	75,403	334		송이버섯	6,716	21	
기타 버섯류	32,440	94		사료	3,000	1	
호도	304,950	776		제조담배	43,387	303	
기타 식물성유지	2,040	19		소주	800	2	
된장	15,950	23		맥주	860	1	
제조담배	41,000	331		위스키	393	16	
식물성 한약재	240,925	425		기타 주류	127	5	
기타 주류	6,233	5		정당	20,132	6	
물	50,127	25		비스킷	1,495	7	
면류	13,665	7		빵	1,198	2	
기타 농산가공품	114,992	57		면류	295	2	
				기타 농산가공품	19,982	54	
				종자류	6	1	
축산물	3,536	35	0.2	축산물	70,606	294	1.8
기타 축산물부산물	2,286	10		기타 가축육류	38,776	116	
로알제리	1,250	25		분유	31,830	178	
임산물	15,000	14	0.1	임산물	2,995	14	0.1
목제식탁용품	3,000	8		젓가락	2,995	14	
기타 목재류	11,000	2					
기타 임산부산물	1,000	4					
수산물	4,065,331	6,219	29.9	수산물	62,847	170	1.0
넙치	1,127	14		명태	24,900	19	
기타 계	15,680	90		기타 어류	3,991	14	
문어	279,202	621		기타 계	700	1	
굴	72,000	118		기타 연체동물	4,025	2	
피조개	6,330	7		건조수산물	16,501	92	
기타 조개	2,674,519	2,156		기타 수산가공품	12,730	41	
기타 연체동물	559,130	791					
건조수산물	233,929	1,823					
기타 수산가공품	220,015	588					
수산부산물	3,400	12					
합 계		10,590	51.0	합 계		2,171	13.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1호 (2004.1.1~1.31).

표 2 2004년 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907,842	2,731	14.8	농산물	362,894	604	6.2
대두	485,000	301		쌀	2,751	6	
팥	210,820	168		감자	200	1	
들깨	309,840	164		밀가루	212,028	102	
감	12,000	22		사과	3,680	12	
기타 과일	32,000	165		대추	4,430	6	
기타 채소	78,424	70		바나나	393	9	
고사리	3,500	15		오렌지	9,715	28	
표고버섯	7,500	35		오이	2,292	4	
기타 버섯류	131,325	488		대두유	20,000	15	
호도	64,000	229		식물성액즙	2,500	15	
식물성액즙	18,550	20		사료	600	-	
인삼	207,060	405		커피	200	-	
제조담배	33,500	257		커피조제품	467	1	
식물성한약재	197,601	319		초코렛	1,198	6	
기타 주류	28,547	13		제조담배	42,808	234	
물	150	-		맥주	25,800	19	
과일주스	7,800	14		위스키	1,083	41	
면류	29,985	16		기타 주류	153	4	
기타 농산가공품	50,240	32		비스킷	2,114	9	
				빵	1,198	12	
				기타 농산가공품	29,284	78	
축산물	-	-	-	축산물	34,710	293	3.0
				로얄제리	16,972	169	
				분유	17,738	124	
임산물	5,610	8	0.04	임산물	2,244,850	349	3.6
목제식탁용품	5,600	7		건축용 목제품	50	1	
목제장식품상자	10	-		기타 목재류	2,244,800	348	
수산물	4,583,525	4,814	26.1	수산물	37,476	106	1.1
명태	1,000	1		기타 어류	13,193	42	
뱀장어	205	-		기타 조개	9,060	6	
기타 계	4,547	25		기타 수산가공품	15,223	58	
문어	132,317	287					
피조개	760	2					
기타 조개	3,493,243	2,602					
기타 연체동물	732,280	821					
기타 수산물통조림	780	3					
건조수산물	76,751	592					
기타 수산가공품	141,643	482					
합 계		7,553	40.9	합 계		1,352	13.9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2호(2004.2.1~2.29).

표 3 2004년 3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156,425	2,208	9.8	농산물	1,377,727	1,289	7.8
기타 서류	5,480	3		쌀	21,491	43	
들깨	298,920	199		감자	400	4	
호박	80,010	17		녹두	500,000	265	
기타 채소	119,800	133		밀가루	553,862	160	
고사리	20,700	107		오렌지	2,779	10	
고비	2,670	11		고추	6,954	17	
표고버섯	91,387	422		기타 채소	22,934	44	
기타 버섯류	42,900	150		송이버섯	4,009	12	
호도	123,500	489		기타 산식물	47,400	211	
식물성 액즙	9,782	15		마아가린	6,331	3	
제조담배	31,050	251		사료	63,045	14	
식물성한약재	209,136	281		효모류	451	1	
기타 주류	31,640	43		제조담배	53,535	246	
면류	29,925	16		식물성한약재	9,340	3	
기타 농산가공품	59,525	71		소주	225	1	
				위스키	298	4	
				기타 주류	132	5	
				원당	4,468	2	
				물	8,242	4	
				과일주스	7,800	13	
				사탕	8,203	20	
				비스킷	2,770	15	
				기타 농산가공품	51,548	165	
				종자류	1,510	27	
축산물	2,440	29	0.1	축산물	36,624	165	1.0
로얄제리	2,440	29		쇠고기	3,657	13	
				소시지	7,031	27	
				분유	25,936	125	
임산물	45,220	35	0.2	임산물	20,309	107	0.6
목재식탁용품	10,890	16		합판	4,710	32	
기타 목재류	34,330	19		젓가락	599	2	
				수목류	15,000	73	
수산물	4,514,649	7,209	32.2	수산물	56,671	125	0.8
넙치	234	2		명태	24,790	17	
대구	3,014	3		기타 어류	6,817	24	
기타 계	7,324	47		기타 조개	3,217	5	
문어	315,739	707		기타 연체동물	5,200	3	
굴	34,100	55		건조수산물	11,465	57	
피조개	6,832	16		기타 수산가공품	1,394	4	
기타 조개	2,627,464	2,245		기타 수산물	3,788	15	
기타 연체동물	1,100,129	1,039					
명란	321	2					
기타 염장수산물	7	-					
건조수산물	375,491	2,948					
기타 수산가공품	30,240	131					
기타 수산물	13,754	13					
합 계		9,481	42.3	합 계		1,686	10.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3호(2004.3.1~3.31).

□ 남북한 교역 통계4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소계	31,624	-	2,355,544	27,562	-	1,939,578	4,295,122	△415,963
2004.1	411 (476)	74 (75)	20,753 (21,544)	309 (295)	121 (125)	16,427 (25,819)	37,179 (47,363)	△4,326 (4,275)
2004.2	395 (311)	81 (80)	18,440 (15,164)	344 (341)	142 (165)	9,701 (26,252)	28,141 (41,416)	△8,739 (11,088)
2004.3	478 (438)	72 (86)	22,402 (20,666)	426 (340)	182 (151)	16,573 (18,712)	38,975 (39,378)	△5,829 (△1,954)
소계	1,284 (1,225)	119 (120)	61,595 (57,373)	1,079 (976)	271 (270)	42,701 (70,783)	104,296 (128,156)	18,894 (13,410)
총계	32,908	-	2,417,139	28,641	-	1,982,278	4,399,417	△434,861

주: 1) ()안은 2003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53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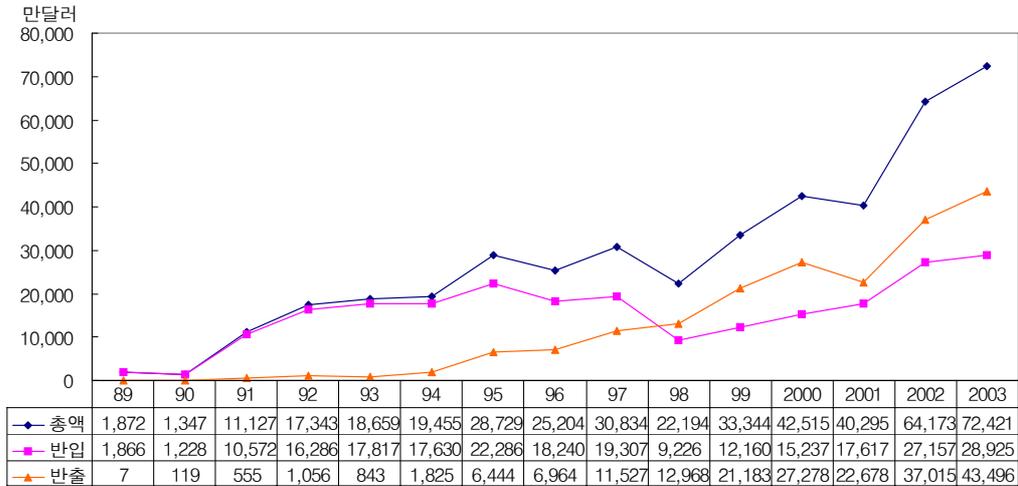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 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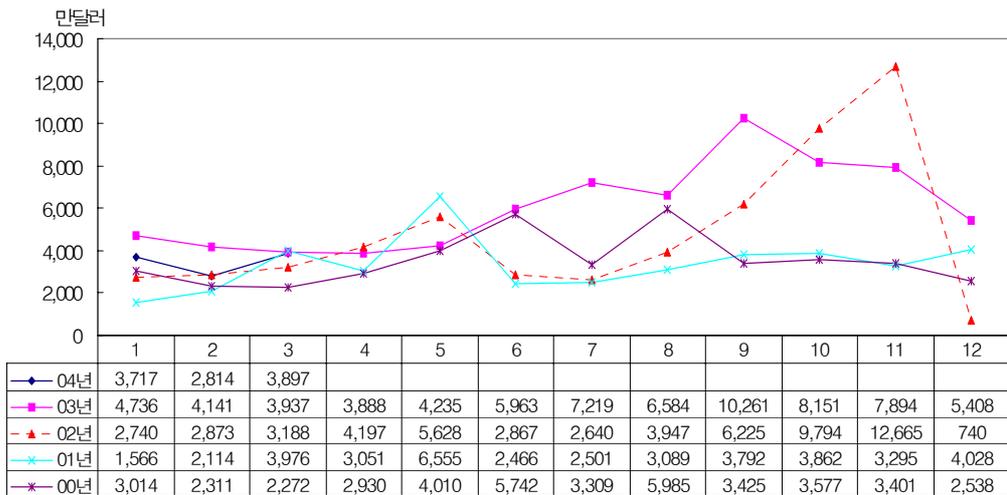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174	2,352	-	-	-	-	2,352	△2,352
1990	5,130	49	393	5,572	10	-	-	10	5,582	△5,562
1991	6,364	1,402	3,052	10,818	1,607	-	-	1,607	12,425	△9,211
1992	9,546	2,277	5,083	16,906	64	-	-	64	16,970	△16,842
1993	6,916	4,221	879	12,016	63	-	6	69	12,085	△11,947
1994	5,315	7,212	2,723	15,250	3,220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6,003	2,810	22,319	8,879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2,014	9,588	23,455	6,044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4,902	14,553	27,326	16,525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3,526	13,377	24,798	18,732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4,484	28,327	47,868	15,682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7,014	41,566	71,932	23,910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81	5,717	45,316	89,814	29,096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9,276	95	70,531	99,902	108,15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7,677	245	89,714	127,636	119,770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소 계	220,717	49,161	328,086	597,964	351,761	7,489	9,798	369,048	967,012	△228,916
2004.1	4,357 (3,082)	14 (14)	6,219 (6,977)	10,590 (10,073)	1,987 (7,390)	14 (4)	170 (104)	2,171 (7,498)	12,761 (17,571)	△8,419 (△2,575)
2004.2	2,731 (2,465)	8 (8)	4,814 (4,712)	7,553 (7,185)	897 (1,190)	349 (16)	106 (71)	1,352 (1,277)	8,905 (8,462)	△6,201 (△5,908)
2004.3	2,237 (1,884)	35 (38)	7,209 (6,643)	9,481 (8,565)	1,454 (1,387)	107 (71)	125 (52)	1,686 (1,510)	11,167 (10,075)	△7,795 (△7,055)
소 계	9,325 (7,431)	57 (60)	18,242 (18,332)	27,624 (25,823)	4,338 (9,967)	470 (91)	401 (227)	5,209 (10,285)	32,833 (36,108)	△22,415 (△15,538)
총 계	-	-	-	625,588	-	-	-	374,257	999,845	△251,331

주: 1) ()은 2003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축산물은 농산물에 포함됨.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127~153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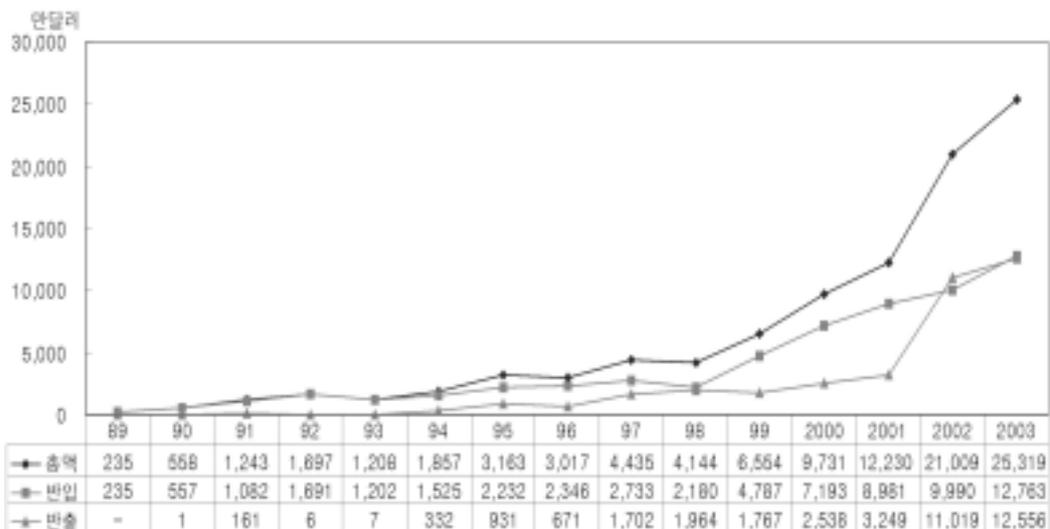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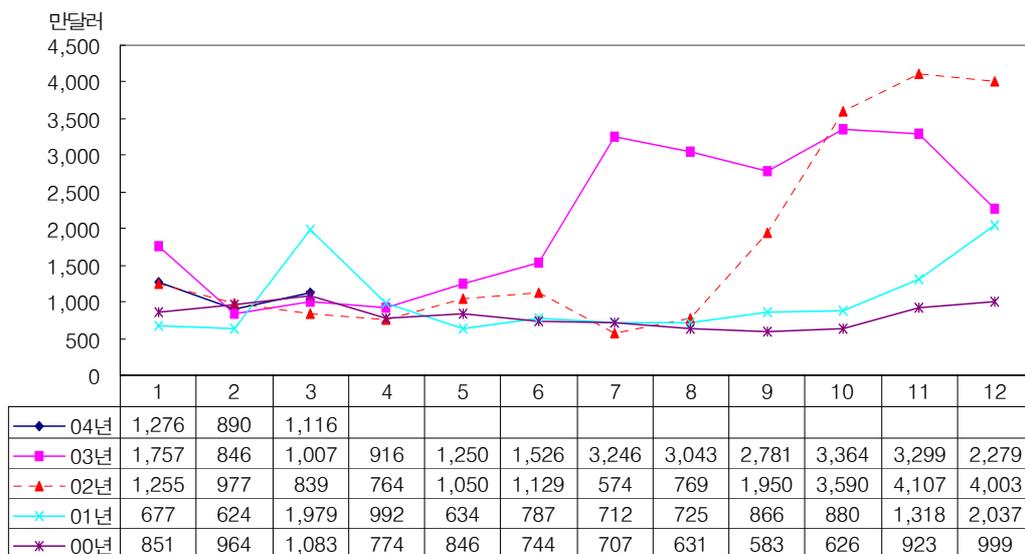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한 지원 동향

□ 1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34억 1,797만원

○ 2004년 1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34억 1,797만원임.

표 6 1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	밀가루 100톤, 분유 5톤, 아동복 등	117,763
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3,500톤	112,500
굿네이버스	분유 11톤, 분말충진기 등	24,99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멸균기 부속품, 전압안정기 등	10,894
한민족복지재단	쌀 360톤, 콩 120톤, 급식빵 원료	22,378
한국복지재단	의약품 등	5,471
원불교	설탕 32톤	1,464
대학생선교회	경운기 및 부속품, 수의약품 등	4,966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영양제, 소화제, 옷감 등	11,406
국제기아대책기구	여성용 생리대, 멸균기	19,999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실 자재	6,770
월드비전	온실 자재	3,190
합 계	341,797만원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1호(2004.1.1~1.31).

□ 2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18억 9,945만원

○ 2004년 2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9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18억 9,945만원임.

표 7 2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대한적십자사	담요 600장, 동내의 등 의류 31,107벌, 옷감 3,900야드, 연탄 60,000장, 분유 7.9톤 등	39,141
한국제이티에스	분유 13톤, 설탕 20톤, 쌀 100톤, 비닐, 마대 등	9,254
원불교	밀가루 144톤, 담요 2,676장	9,77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책상 210개, 의자 200개	1,439
한민족복지재단	옥수수 120톤, 은이온정수기 2,400대	93,339
남북농발협	씨감자 조직배양 시설·자재	26,200
국제라이온스협회	안과병원 건축 마감자재	4,714
굿네이버스	양계장 부속자재	3,201
월드비전	쌀 60톤	2,880
합 계	189,945만원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2호(2004.2.1~2.29).

□ 3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62억 3,982만원

- 2003년 3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3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62억 3,982만원임.

표 8 3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대한적십자사	분유 9.6톤	11,030
국제기아대책기구	정수기 1세트	3,050
국제라이온스	건축용 자재 등	15,774
굿네이버스	밀가루 174톤, 배합사료 60톤, 의약품, 의료장비 등	46,238
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	밀가루 200톤, 분유 10.4톤, 아동복 등	252,202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은이온정수기 680대	25,786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건축용 자재	1,23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약품, 치과용 장비, 이동 진료설비, 비닐 등 농업용 자재 등	64,549
원불교	밀가루 36톤, 털옷감	1,965
월드비전	밀가루 36톤, 아동용의류, 온실자재, 채소 종자, 사과묘목, 농약 등	66,260
유진벨	결핵약, X-ray 장비, 수술장비, 환자용 의복,복합비료 6.8톤, 농자재 등	115,922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분유 2톤, 의류	6,100
한민족복지재단	밀가루 17톤, 급식빵 자재, 어린이 영양제, 의류 등	13,873
합 계		623,982만원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3호(2003.3.1~3.31).

□ 대북 지원액 추이, 1995.9~2004.3

단위: 만원

연 도	민간차원	정부차원	합 계
1995	396,915	18,500,000	27,397,160
1996		240,000	
1997	1,567,000	2,400,000	
1998	2,753,245	1,540,000	
1999	2,235,920	3,390,000	5,625,920
2000	4,202,218	9,435,722	13,637,940
2001	7,944,634	8,495,400	16,440,034
2002	6,408,548	11,380,000	17,788,548
2003	8,711,092	10,410,000	19,121,092
소 계	34,219,572	65,791,122	100,010,694
2004.1	341,797 (983,832)	0 (0)	341,797 (983,832)
2004.2	189,945 (630,330)	0 (0)	189,945 (630,330)
2004.3	623,982 (630,330)	0 (0)	623,982 (630,330)
소 계	1,155,724 (2,244,492)	0 (0)	1,155,724 (2,244,492)
총 계	35,375,296	65,791,122	101,166,418

주: 1) 통일부가 발표한 반출 승인기준 금액에 근거하였으며 통관기준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은 2003년 동기 실적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53호.

3.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4년 1~3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주)안동대마방직이 대마 재배 및 삼베제품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3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은 총 11개로 전체 103개 기업(단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72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6건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4년 3월 말 현재

기업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허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홍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옥수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증시험 및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01.6.20)*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환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	'03.10.31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 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3호.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¹⁾

□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1) 회담 개요

- 경협제도실무접촉이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출퇴근회담 방식으로 개성에서 개최되었음.
 - 남과 북은 제2-4차 경협제도실무협의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가서명

2) 합의서 채택의 의미

- 남과 북의 당국차원에서 최초로 통행과 신변안전에 관한 합의서 체결
 - 그간 국제기구와 북측간, 남북 사업자간에 통행 및 신변안전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된 사례는 있었으나, 당국간에 이러한 합의서가 최초로 채택된 것은 큰 의미
 - 논의과정에서 형사재판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북측의 입장과 우리주민의 신변 안전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우리측 입장이 대립되었으나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 도출
 - 신체, 주거, 재산의 불가침권 보장, 범위반자에 대한 강제송환원칙 인정, 조사중 기본적 권리 보장 등이 관철되어 우리주민이 북측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조사·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확보
 - 또한, 북측에게 방문증명서를 소지한 우리측 인원의 출입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이 필요시 북측지역을 출입하여 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동 합의서 타결로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¹ 통일부 자료를 요약 재정리한 것임.

- 개성공단 건설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 남북간 물자·인원의 왕래 증가와 남북간 협력 지대가 형성됨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주요 합의내용

가. 개성·금강산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게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

- 남측 인원이 개성·금강산지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남측당국이 발급한 방문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개발업자 등 남측인사 위주로 구성)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 다만, 출입증명서는 북측이 출입자체를 사전에 심사하는 사증(VISA)의 성격이 아니라 출입인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것이며, 제8조의 제한대상이 아닌 경우 출입을 보장

-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구에 체류·거주하는 인원은 방문증명서와 체류 또는 거주확인증의 유효기간 내에는 여러번 출입할 수 있음.
 - 출입시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권과 출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배려

나. 지구에 8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도착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나 1년 이상 거주시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 7일 이내 방문자와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을 제외하고, 지구에 체류코자 하는 경우에는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체류등록 필요
 - 장기체류(91일-1년)와 거주(1년 이상)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를 따라야 함.
- 증명서상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료 3일전까지 필요한 연장승인을 받으면 계속 체류 가능

다.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개인 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범질서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남측

은 송환된 인원을 조사·처리후 결과를 통보하며, 피해보상에 협력

- 범질서 위반시에는 북측이 이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행정벌인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
 - 다만, 남과 북이 사전에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
 - * 엄중한 위반행위의 범위와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합의하여 정하게 될 것임.
- 또한, 북측이 남측 인원을 조사할 때에도 기본적 권리가 확보되어 신변안전 보장이 강화됨.
 - 다만, 남측도 송환된 인원의 위반사실에 대해 북측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후 그 결과를 북측에 통보하고, 인적·물질적 피해보상에도 적극 협력해야할 의무
- 따라서, 우리인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북측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나
 - 범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송환후 그 위반행위가 우리측 법률에도 위배될 경우 우리측에서 재판·처벌받게 됨.

라. 출입·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남과 북은 관련 문제들의 협의·해결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 인원·통행차량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합의하여 북측의 법규에 의해 남측 인원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우려를 해소
- 또한, 출입·체류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합의하여 향후 문제발생시 이를 논의·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

4) 후속조치

-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3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동 합의를 정식 서명할 예정
 - 추후 부속합의서 협의도 계속 진행
- 동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

- 개성공단 통신·통관·검역합의서('02.12.8 채택) 등 관련 남북합의서와 함께 일괄적으로 국회동의절차를 밟아 발효시킬 계획

□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개최

- 남과 북은 2004.1.27~29간 개성에서 제2차 청산결제실무협의를 개최
- 쌍방은 제1차 회의('03.12.17~20)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청산결제의 거래방식, 신용한도, 이자율, 청산결제 대상과 한도, 청산결제은행의 일반결제업무 수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 또한 남북청산결제은행간 실무접촉을 병행하여 구체적인 청산결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 남과 북은 청산결제제도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협합의서의 실질적인 시행을 통한 남북경협 진전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 상호이해와 협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 이번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교환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여 기합의된 2004년 2/4분기 시행에 대비
-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파악된 북측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협의를 차분히 준비할 예정

□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1) 회담 개요

- 남과 북은 2004.2.25~26 개성에서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개최하고
 - 2002년 12월 제2차 실무접촉에서 가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의견 일치를 보았음.

2) 합의 내용

-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그 동안 쟁점으로 있던 △해상항로대 설정 △북측 해역

내 직접통신보장문제 등에 합의를 이루었음.

- 쌍방은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채택하기로 하였음.

- 또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남북간 교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간의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3) 회담의 의의

- 이번 회담은 남북간 해운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문제가 상호 보완적이며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1) 회담 개요

- 제8차 경추위가 2004.3.2~5(3박 4일) 서울에서 개최
 -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 타결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실질협의 진행

2) 회담의 의의

-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특구개발 등 주요 경협사업의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금년내 가시적 성과 도출의 토대 마련
 - 상반기내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측 기업들이 입주하여 생산에 착수
 - 올해안에 경의선·동해선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
 -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협력
 - 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하위 실무협의회 개최 일정 확정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
- 그동안 논의만 거듭해왔던 임진강 수방사업이 4월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개성공단내에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설에 합의, 향후 우리 기업의 불편과 대북사업 추진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

○ **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정적 경협 추진여건 마련 촉구**

-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들이 안심하고 북측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남북 경협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강조
- 제2차 6자회담 개최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 경협의 발전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3) 주요 합의사항

① **개성공단 건설**

- 공단 건설 공사 관련 구체적 추진일정 합의
 - 1만평 시범단지 착공 및 관리기관 구성 → 시범단지 개발 완료 → 하반기 기업 입주·제품 생산
 - 금년중 1단계 100만평 내부기반시설 건설 착수 → 내년부터 부지조성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 입주
 - 전력·통신은 입주기업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
- 이를 위한 북측의 협조 확보
 - 3월중 미제정 하위규정을 공포하고, 통신·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편의보장 등 협조 조치 실시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

- 금년 중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 철도 『개통』 단계 진입
 - 시험운행은 열차 개통에 앞서 철도상태와 미비된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시험운행을 통해 철도 개통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상호 점검하게 됨으로써 향후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됨.
- 철도 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철도분계역사 등을 우리측이 설계하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

- 분계역간 열차 운행의 편의 제공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 형성
- 제공방법, 범위,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3월 하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

○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 조속 완료

- 도로 포장시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금강산육로관광 등 경협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성, 편리성 제고

③ 금강산 관광사업

○ 금강산관광 특구개발 가시화

- 관광특구개발 조기 착수에 합의, 지난해 육로관광 정례화에 이어 수익성 확보 여건 확충
- 현재 우리측 사업자는 WTO(세계관광기구), 금호엔지니어링 등에 용역을 의뢰, 관광특구개발 계획을 수립중 → 조만간 이를 북측에 제시할 예정

○ 관련 후속 하위규정도 조속 제정될 전망

- 현재 『개발』, 『기업창설』 등 2개 하위규정이 공포된 상태

④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 현지조사→수방대책 실시에 합의

- 남북 각기 단독조사(4월부터 3개월)→공동조사→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등 수방대책 시행

○ 공동조사는 조사단(15명 내외)이 사전 합의된 쌍방지점들을 북측지역과 남측지역 순서로 각각 7일동안 현지 확인

-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측으로부터 단독조사 착수 10일전 임진강 유역 기상·수문 자료를 받아 우기 대책 수립 가능

○ 향후 남북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 등으로 협력분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남북 경제협력협회사무소 상반기내 개설

○ 개성에 남북간 직교역 및 경협 협의·상담 창구 개설

- '03.12월 착공한 토지공사의 개발사무소 완공과 동시에 개설
- 지금까지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의 고비용, 불편함 해소 가능

- 『사무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서교환 등의 방식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
- 앞으로 연락·협의통로 기능과 함께 대북투자·교역기업 종합지원 센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예정

⑥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 남북간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면 경험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방문은 '02년 고위급시찰단의 방문(10.26-11.3)에 이은 것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이해 및 실제 경제운용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남북회담 일정

- 청산결제실무협약(3차) : 3월 중순(과주)
- 철도·도로실무협의회(4차) : 3월 하순(개성)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3차) : 3월 하순(개성)
- 제14차 장관급회담 : 5.4~7(평양)
- 경추위 제9차 회의 : 6.2~5(평양)

□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1) 회담개요

-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됨.
-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제8차 고장장비 기술지원 일정, 암반제거용 자재 사용현장 방문,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등에 합의

《 합의사항(요약) 》

- ① 남과 북은 도로 포장용 자재·장비를 3월부터, 동해선 교량상판을 5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② 아스팔트 혼합장 : 경의선 2004.3.9~4.4, 동해선 2004.3.18~4.11 실시
 - 제8차 기술지원 : 경의선 2004.3.18~3.27, 동해선 2004.3.4~3.13 실시
- ③ 암반제거용 자재가 제공완료되는 날부터 2일간 동해지역에서 사용현장 방문 실시 합의
- ④ 차량운행사무소는 4월중 개설하고, 열차운행합의서는 제4차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하기로 합의

2) 회담의 의의

- 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아스팔트혼합장 설치 일정 등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03년 6월 이후 기술지원을 계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제공된 장비의 정상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 이를 통해 북측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공사추진에 대한 상호 신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번 회담에서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역사 관련 자재 제공을 요청
 - 우리측은 북측의 요청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우리측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였음.

□ 제1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정부는 제1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 개최(3.29)하여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1) 비료 20만톤 지원

- 북측의 요청(2.3-6 남북장관급회담, 2.25 적십자간 전통문)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 비료 20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
 - 비종은 북비 16만톤, 요소 2.8만톤, 유안 1.2만톤이며, 경비는 비료구입비·수송비 등 총 698억원 이내에서 집행할 예정
- 비료지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주관으로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4월 중순 첫항차를 시작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지원

- 23개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25개 대북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총 98.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 '00년 34억원, '01년 38억원, '02년 55억원, '03년 75억원 지원

- 분야별 지원 규모는 취약계층지원 9개 사업 51.8억원, 보건의료 7개 사업 26.7억원, 농업개발 9개 사업 20.1억원 등이며
 - 지원 자금은 물품구입·수송비, 분배투명성 확보경비로 구분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집행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세계보건기구(WHO)의 말라리아 방제사업에 70만달러 상당의약품, 기자재,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
 - * '01년 46만달러, '02년 59만달러, '03년 66만달러 지원

- 유엔아동기금(UNICEF)를 통해서 요오드화 소금, 어린이 영양식, 필수 의약품, 백신, 임산부 복합영양제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 '03년 50만달러 지원

- 정부는 금번 비료, 보건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이를 통한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표 1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1995.9~2004.4

구분	목표 (만달러)	실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70	79.5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9, EU 860 등
3차 '97.4~12	18,439	15,781	85.6	미국 4,537, 일본 2,700, 한국 2,633, EU 2,752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EU 1,380, 한국 1,100, 캐나다 395, 노르웨이 239, 이집트 280, 호주 132, 체코 2 등
5차 '99.1~12	29,208	18,980	65.0	미국 17,50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호주 270, 노르웨이 200,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263	48.6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80	64.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5, 스위스 222, 노르웨이 212,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02.1~12	24,684	21,979	89.0	미국 6,347,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노르웨이 176, 영국 171, 독일 135, 덴마크 103, 핀란드 70, 룩셈부르크 56 등
9차 '03.1~12	22,937	13,315	58.2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21,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99, 네덜란드 220, 호주 176, 덴마크 154, 핀란드 125, 쿠바 47 등
10차 '04.1~4	17,643	2,865	16.2	EU 687, 호주 521, 노르웨이 335, 스웨덴 233, 독일 202, 아일랜드 199, 캐나다 196, 영국 192, 덴마크 116, 핀란드 81, 뉴질랜드 25, 네덜란드 21 등
총계	227,405	138,948	61.1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지원을 약속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3 April, 2004)

*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 Korea

표 2 2003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실적 (2004.1.1~4.23)

기 구	지원요청액(달러) ¹⁾	조성금액(달러) ²⁾	부족액(달러)	실적율(%)
ADRA	303,800	0	303,800	0.0
AFMAL	240,000	0	240,000	0.0
CESVI	514,286	649,971	-135,685	126.4
CONCERN	1,342,887	1,342,887	0	100.0
DWH/GAA	2,392,099	664,099	1,728,000	27.8
FAO	3,510,000	1,292,004	2,217,996	36.8
HI B	425,000	0	425,000	0.0
OCHA	579,984	0	579,984	0.0
PU	1,229,000	0	1,229,000	0.0
SC UK	877,584	0	877,584	0.0
TGH	785,656	785,656	0	100.0
UNFPA	672,000	0	672,000	0.0
UNICEF	12,706,960	3,919,515	8,787,445	30.8
WFP	145,002,555	18,877,701	126,124,854	13.0
WHO	5,852,300	1,115,356	4,736,944	19.1
총 계	176,434,112	28,647,191	147,786,922	16.2

주: 1) 조정된 지원요청액

2)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3 April, 2004)

표 3 2004년도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분야/지원경로별)

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지원요청액 ¹⁾ (달러)	조정금액 (달러)	부족액 (달러)	
농업(Agriculture) 및 식량(Food)						
FAO	A01	이모작 지원(주작물 및 분작물)	1,100,000	436,681	663,319	
	A02	원예작물 생산	1,060,000	0	1,060,000	
	A03	이모작 지원(주작물 및 겨울작물)	1,100,000	420,000	680,000	
	FAO	예비 할당액	0	0	0	
소 계(FAO)			3,260,001	856,681	2,403,319	
WFP	F01	취약계층 긴급지원(EMOP 10141.1)	143,900,000	16,625,134	127,274,866	
	F024	특별사업(지방식품생산 지원, 하역, 쿼로사업)	1,102,555	13,761	1,088,794	
소 계(WFP)			151,522,557	18,352,257	133,170,298	
CONCERN	A06	감자 및 밀 생산 지원	274,657	274,657	0	
	A07	평안남도 화북생산 및 경사지 관리	271,370	271,370	0	
DWH/GAA	A04	평안북도 겨울밀 종자 증식 및 분배관리체계 도입	250,000	0	250,000	
	F03	평안북도 유치원 어린이 급식	1,478,000	0	1,478,000	
TGH	A05	양묘장 복구사업	271,370	271,370	0	
소 계(NGOs)			2,545,397	817,397	1,728,000	
합 계			157,327,955	20,026,335	137,301,617	
건강(Health)						
UNICEF	H01	기초 의약품 지원	5,118,400	458,015	4,660,385	
	H02A	예방접종 확대사업	1,229,200	0	1,229,200	
	H03	긴급영양회복, 영양실조예방, 미량영양소결핍 예방	2,358,720	0	2,358,720	
	H04	산모안전	343,840	0	343,840	
	UNICEF	예비 할당액	0	1,115,356	-1,115,356	
WHO	H02B	예방접종 확대사업	320,000	0	320,000	
	H05	SARS를 포함한 질병발생 조기 발견 및 관리	964,600	0	964,600	
	H06	말라리아, HIV/AIDS, 결핵 관리 강화	770,000	0	770,000	
	H07	지역수준의 보건 서비스 강화	2,438,000	0	2,438,000	
	H08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의약품 지원	372,200	0	372,200	
	H09	수혈서비스 향상	540,600	521,921	18,679	
	H10	지역수준의 시험분석서비스 개선	233,200	0	233,200	
	WHO	예비 할당액	0	2,715,231	-2,715,231	
	UNFPA	H11	지역수준의 아동보호 강화	378,000	0	378,000
		H12	어머니 건강 증진	294,000	0	294,000
HI B	H13	합중의 정형외과병원 복구 및 장애인 지원	425,000	0	425,000	
ADRA	H14	군 단위 병원 복구 종합사업	303,800	0	303,800	
SC UK	H15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이동병원 복구	214,000	0	214,000	
	H16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지역보건 서비스 강화	663,584	0	663,584	
PU	H17	IV 용액생산 개선	29,000	0	29,000	
	H18	도 및 군 단위 병원의 IV 용액 생산 복구	1,200,000	0	1,200,000	
AFMAL	H19	강원도의 어머니 및 여성 건강 서비스 강화	240,000	0	240,000	
합 계			18,436,144	4,810,523	13,625,621	
식수와 위생(Water and Sanitation)						
UNICEF	WS01	식수와 환경위생	2,732,800	746,269	1,986,531	
DWH/GAA	WS02	평안북도 3개군 18개 협동조합 건강증진사업	664,099	664,099	0	
TGH	WS03	평안남도 물 및 위생사업	514,286	514,286	0	
CONCERN	WS04	덕천 및 북창군 도농 물공급 복구사업	304,191	304,191	0	
	WS05	회창군 도농 물공급 복구사업	417,763	417,763	0	
	WS06	북창, 곡천, 회창군, 평양시 AES 장비지원 및 훈련사업	74,906	74,906	0	
CESVI	WS06	강원도 원산도립병원 및 관교의 용수 및 위생 종합사업	514,286	649,971	-135,685	
합 계			5,222,331	3,371,485	1,850,846	
교육(Education)						
UNICEF	E01	기초교육	924,000	0	924,000	
합 계			924,000	0	924,000	
조정업무(Coordination)						
OCHA	CSS01	2004년도 대북지원 프로그램의 조정업무	315,095	233,751	81,344	
	CSS02	NGO 기금 긴급지원	200,000	0	200,000	
	CSS03	2004년 농업 및 식량안보 긴급복구 및 농업 지원	250,000	0	250,000	
합 계			765,095	233,751	531,344	
총 계			176,434,111	25,973,060	3150,461,051	

주: 조정된 지원요청액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3 April, 2004)

표 4 2004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분야/지원국가별)

분야/지원국가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액(달러)
농업(Agriculture)			
핀란드	FAO		435,323
아일랜드	CONCERN	DPRK-04/A06	93,633
노르웨이	FAO	DPRK-04/A03	420,000
노르웨이	FAO	DPRK-04/A01	436,681
개인/NGO/국제	CONCERN	DPRK-04/A06	181,024
스웨덴	TGH	DPRK-04/A05	271,370
스웨덴	CONCERN	DPRK-04/A07	271,370
합 계			2,109,401
경제회복 및 하부구조(Economic Recovery and Infrastructure)			
호주	UNICEF	DPRK-04/WS01	746,269
합 계			746,269
식량(Food)			
호 주	WFP	DPRK-04/F01	2,227,321
호 주	WFP	DPRK-04/F01	2,238,806
캐나다	WFP	DPRK-04/F01	751,793
캐나다	WFP	DPRK-04/F01	751,879
덴마크	WFP	DPRK-04/F01	1,156,833
덴마크	WFP	DPRK-04/F01	7,112
유럽집행위원회	WFP	DPRK-04/F01	4,988,123
독 일	WFP	DPRK-04/F01	1,865,671
아일랜드	WFP	DPRK-04/F01	1,807,552
일 본	WFP	DPRK-04/F01	13,761
네덜란드	WFP	DPRK-04/F01	208,609
뉴질랜드	WFP	DPRK-04/F01	250,000
노르웨이	WFP	DPRK-04/F01	711,238
노르웨이	WFP	DPRK-04/F01	393,013
노르웨이	WFP	DPRK-04/F01	393,013
스웨덴	WFP	DPRK-04/F01	1,062,307
스웨덴	WFP	DPRK-04/F01	38,225
스웨덴	WFP	DPRK-04/F01	12,445
합 계			18,877,701
보건(Health)			
캐나다	UNICEF	DPRK-04/H01	458,015
노르웨이	WHO	DPRK-04/WHO	572,615
스웨덴	WHO	DPRK-04/WHO	542,741
합 계			45,040,113
종합부문(Multi-Sector)			
핀란드	UNICEF	DPRK-04/UNICEF	373,134
노르웨이	UNICEF	DPRK-04/UNICEF	420,000
영 국	UNICEF	DPRK-04/UNICEF	1,922,097
합 계			723,764
물 및 위생(Water and Sanitation)			
유럽집행위원회	WHO	DPRK-04/WS05	342,857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4/WS02	514,286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4/WS07	514,286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4/WS03	514,286
독 일	UNICEF	DPRK-04/WS02	149,813
아일랜드	UNICEF	DPRK-04/WS04	85,714
개인/NGO/국제	WHO	DPRK-04/WS05	74,906
개인/NGO/국제	UNICEF	DPRK-04/WS06	74,906
개인/NGO/국제	WHO	DPRK-04/WS04	218,477
스웨덴	WHO	DPRK-04/WS07	135,685
합 계			13,614,405
총 계			28,647,189

주: 2004년 4월 23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3 April, 2004)

표 5 2004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식량지원)

지원국가	품 목	물량(톤)	금액(달러)
호 주	밀가루	5,733	2,227,321
캐나다	밀가루	2,214	751,793
캐나다	밀가루	TBI	751,879
덴마크	밀가루	4,319	1,156,833
덴마크	밀가루	27	7,112
유럽집행위원회	여러가지	10,174	4,988,123
독 일	밀가루	6,165	1,865,671
아일랜드	밀가루	6,749	1,807,552
네덜란드	밀가루	779	208,609
뉴질랜드	밀가루	825	250,000
노르웨이	식물성 식용유	885	711,238
노르웨이	두류	771	393,013
스웨덴	밀가루	3,967	1,062,307
스웨덴	밀가루	143	38,225
스웨덴	밀가루	47	12,445
합 계			16,232,121

주: 2004년 4월 23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3 April, 2004)

표 6 2004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비식량 지원)

지원국가 및 단체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액(달러)
호 주	UNICEF	DPRK-04/WS01	746,269
호 주	WFP		2,238,806
캐나다	UNICEF	DPRK-04/H01	458,015
유럽집행위원회	TGH	DPRK-04/WS03	514,286
유럽집행위원회	DWH/GAA	DPRK-04/WS02	514,286
유럽집행위원회	CONCERN	DPRK-04/WS05	342,857
유럽집행위원회	CESVI	DPRK-04/WS07	514,286
핀란드	FAO		435,323
핀란드	UNICEF	DPRK-04/UNICEF	373,134
독 일	DWH/GAA	DPRK-04/WS02	149,813
아일랜드	CONCERN	DPRK-04/WS04	85,714
아일랜드	CONCERN	DPRK-04/A06	93,633
일 본	WFP	DPRK-04/F02	13,761
노르웨이	WFP	DPRK-04/F01	393,013
노르웨이	FAO	DPRK-04/A01	436,681
노르웨이	FAO	DPRK-04/A03	420,000
노르웨이	WHO	DPRK-04/WHO	572,615
노르웨이	UNICEF	DPRK-04/UNICEF	420,000
개인/NGO/국제	CONCERN	DPRK-04/WS04	218,477
개인/NGO/국제	CONCERN	DPRK-04/A06	181,024
개인/NGO/국제	CONCERN	DPRK-04/WS05	74,906
개인/NGO/국제	CONCERN	DPRK-04/WS06	74,906
스웨덴	CONCERN	DPRK-04/A07	271,370
스웨덴	TGH	DPRK-04/A05	271,370
스웨덴	WHO	DPRK-04/WHO	542,741
스웨덴	CESVI	DPRK-04/WS07	135,685
영 국	UNICEF	DPRK-04/UNICEF	1,922,097
합 계			12,415,068

주: 2004년 4월 23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23 April, 2004)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2004년도 유엔의 대북 지원 합동호소

- 2003년도에는 유엔의 대북 지원 합동호소를 통해 64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550만 명만이 지원 혜택을 받았음.
 - 유엔은 지난 9년간 북한에 대해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은 지원을 필요로 함.
- 2004년 유엔은 북한에 대해 총 2억 2,122만 달러에 상당하는 지원을 계획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함.
 - 분야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 4,167,000달러, 조정 및 지원서비스 829,984달러, 교육 924,000달러, 식량 191,933,451달러, 보건 18,649,844달러, 물 및 위생 4,719,800달러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Humanitarian Appeal 2004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 18, 2003)

□ 세계식량계획의 2004년 긴급보고 제4호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원조 감소로 2-3월 동안 임신부, 유아원생 등 80,000명을 제외한 모든 수혜 대상자를 곡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4월 중에 38,000 톤의 옥수수과 40,000 톤의 밀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는 핵심 수혜자를 대상으로 2-4개월 정도 곡물 배급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월에 100만 명, 6월에 170만 명, 7월에는 250만 명의 수혜 대상자가 곡물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
- 밀가루 부족으로 6월이 되면 동해안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 식품생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즉각 재개되지 않을 경우 봄철 추로사업은 급격히 감소할 전망
-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보육원이나 유치원은 다양한 형태로 대응
 - 어떤 군에서는 어린이들이 각자 먹을 것을 가져오며 어떤 군에서는 보육원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음.
 - 이 밖에 어린이에게 배급할 정부의 배급 식량 일부를 보육원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협동농장이 보육원 또는 유치원에 식량을 지원하거나 빌려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곡물 배급이 감소함으로써 수혜대상자는 1일 최소에너지 섭취 기준보다 800 kcal 정도 에너지를 적게 섭취하는 결과가 초래됨.
 -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일 최소에너지 섭취 기준 2,300 kcal의 1/3 수준에 해당함.
 - 세계식량계획의 곡물 배급 중단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는 급성영양실조에 걸리게 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4 of 2004, Jan. 23, 2004)

□ 세계식량계획,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지원 긴급 호소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바닥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음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함.
- 최근 국제사회는 세계식량계획에 77,000 톤의 대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지원된 식량은 2개월 후인 4월이 되어서야 북한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400만 명의 취약계층에 대해 식량 지원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음.

- 2월 중에는 75,000명의 임신부와 고아원 및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8,000명의 어린이들만이 세계식량계획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세계식량계획의 2004년도 대북 식량지원 목표는 485,000톤이며 금액으로는 1억 7,100만 달러이나 현재까지 지원 약속된 것은 140,000달러에 불과함.
 - 2003년 11월에는 700,000명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지난 2004년 1월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270만 명까지 늘어남.
- 평양을 제외한 도시에 거주하는 가난한 주민은 그들 식량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배급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은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식량의 절반 정도인 300그램에 불과하므로 나머지는 시장에서 구입해야 함.
 - 그러나 최근 시장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그들 월급으로 식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food deliveries plummet leaving millions of North Koreans malnourished, Feb. 9, 2004)

□ 유엔인도지원국의 북한 상황보고서(2004년 1월)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2월부터 4월 동안 임신부와 수유부, 고아원 및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 등 80,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그러나 3-4월 경 미국이 지원할 옥수수과 러시아가 지원할 소맥이 도착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동해안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공장은 금년 6월까지 조업을 중단할 상황이며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지원 약속이 없을 경우 봄철 추로사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6개월 동안 추가로 필요한 지원 물량은 다음과 같음.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방 식품공장, 추로사업에 필요한 곡물 124,000톤
 - 보육원, 유치원, 임신부 및 수유부 여성에 필요한 두류 13,000톤
 - 보육원 및 유치원에 필요한 유지류 4,500톤

- 지방 식품공장에 필요한 설탕 1,100톤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DPR Korea Situation Bulletin Jan 2004, Feb. 17, 2004)

□ 세계식량계획의 2004년 긴급보고 제9호

- 세계식량계획은 각종 다자지원에 의해 식량 구입 자금을 확보하여 3월 말경 27,500톤의 식량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전체 수혜자는 아니지만 어린이, 부녀자, 노인 등 400만 명에 달하는 핵심 수혜자에게 식량 지원을 재개함.
 - 이는 어디까지나 긴급 조치로써 국제사회의 지원이 답지하면 식량 구입을 위해 벌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임.
- 4·5월에 예정된 식량지원이 정상적으로 도착할 경우 60만 명을 제외한 핵심 수혜자에게는 앞으로 2개월 정도 식량을 지원할 수 있으나 6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100만 명 정도 줄일 수밖에 없으며 9월에는 290만 명을 감소시켜야 할 상황임.
- 봄철 취소사업에 지원할 식량은 당초 계획된 24,000톤보다 크게 감소한 8,000톤에 불과함.
- 밀가루 부족으로 신의주와 함흥에 있는 국수공장은 계속 폐쇄 상태이며 혜산의 비스킷 공장도 2월 말까지 가동이 중단되고 있음.
 - 원산의 국수공장은 밀가루가 도착하여 조업을 재개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9 of 2004, Feb. 27, 2004)

□ 2004년 영농 현황

- 2003년 가을에 파종한 겨울밀은 3월초 싹이 올라왔으며 논에 심은 봄보리와 감자는 3월 중순경 싹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됨.
-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서부지역 51개 군 324개의 협동농장

13,491ha에 2,024 톤의 요소비료를 지원함.

-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지원자금으로 이들 협동농장에 녹비작물 종자, 이동식 탈곡기를 지원하였으며 원예작물 지원사업을 위해 비닐,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을 지원하였음.
-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4년도 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유엔통합호소를 통해 350만 달러의 대북 농업지원 자금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음.
 - 이에 따라 노르웨이 86만 달러, 스웨덴 109만 달러, 핀란드 43만 달러 등 총 238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목표액의 68%를 달성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Bulletin Feb 2004, Mar 12, 2004)

□ 세계식량계획의 곡물 분배, 중단되었다가 부분적으로 재개

-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하려는 곡물 재고가 거의 바닥남으로써 3월부터 400만 명에 달하는 핵심 수혜자에 대한 식량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지난번에 지원을 받은 77,000톤은 4월 이전에 모두 분배될 예정이어서 그 후의 분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임.
- 전례 없는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봄철 추로사업 지원도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수 백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영양실조를 면하기 어렵게 됨.
- 2004년도 대북 식량지원 목표는 485,000톤으로 1억 7,1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임.
 - 지난 2월 9일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에 대북 긴급식량지원을 호소한 결과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지원금을 보내음.
 - 이 지원금으로 식량지원을 위해 빌린 돈을 갚을 계획임.
- 4-5월에는 미국, 유럽집행위원회, 호주 등이 지원하는 식량이 도착할 예정이어서 60만 명을 제외한 핵심 수혜자들이 식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Bulletin Feb 2004, Mar 12, 2004)

□ 세계식량계획의 2004년 긴급보고 제12호

- 세계식량계획의 곡물 지원이 일부 회복함에 따라 어린이, 부녀자, 노인 등 380만 명의 핵심 수혜자 중 260만 명이 배급을 받게 됨.
 - 예정된 지원 식량이 3월 중순에 도착하면 4월부터는 60만 명을 제외한 핵심 수혜자 전원이 식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식용유 부족이 심각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서해안 지방에 있는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대한 식용유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영양불균형 피해가 우려됨.
 - 서해안 지방 어린이들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지방에 의한 에너지 비율이 16%에 불과하여 권장 기준인 35-50%(2세 이하 어린이) 또는 30%(2세 이상 어린이)에 크게 미달함.
- 5월에서 8월까지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 약속이 없을 경우 적어도 100만 명의 핵심 수혜자가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6월부터는 170만 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9월이 되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00만 명으로 늘어나며 10월부터는 38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12 of 2004, Mar. 19, 2004)

□ 세계식량계획의 2004년 긴급보고 제17호

- 최근 옥수수과 밀가루 지원분이 도착함으로써 4월에는 60만 명을 제외한 핵심 수혜자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추가 식량지원이 즉각 재개되지 않을 경우 5월에서 9월까지 100만 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10월에는 380만 명이 식량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임.

-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함으로써 식량 지원을 중단하였던 동해안 지방의 2가지 범주 수혜자에게 4월과 5월에는 식량 지원을 재개할 수 있음.
 - 식량 지원을 받게 된 계층은 28만 명의 노인과 25만 명의 도시 근로자 및 가족임.
- 향후 6개월 동안 취약 계층에게 식량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123,000 톤의 새로운 식량 원조 약속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17 of 2004, Apr. 23, 2004)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독일, 북한에 300만 유로 식량 지원

- 독일은 금년 북한에 300만 유로(384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 이 중 절반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독일의 비정부조직인 Deutsche Welthungerhilfe를 통해 지원할 계획임.
- 세계식량계획이 지금까지 모금한 금액은 금년도 북한의 식량 지원에 필요한 1억 7,100만 달러 가운데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수혜 대상자에게 하루 필요한 식량의 절반 정도인 평균 250-300그램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공공배급제도에 의해 공급 될 계획임.

자료 : www.reliefweb.int (AFT, Germany pledges food aid to famine-hit North Korea, Feb. 12, 2004)

□ 뉴질랜드, 북한에 25만 달러 지원 약속

- 뉴질랜드의 헨렌 클라크 수상은 뉴질랜드를 방문한 세계식량계획의 모리스 총재에게 25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함.
 - 뉴질랜드는 지난 2년 동안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총 24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자료 : www.reliefweb.int (WFP, WFP head, meeting with New Zealand PM, welcomes new donation to North Korea, Feb. 13, 2004)

□ 핀란드 정부, 북한에 95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 결정

- 핀란드의 외무장관은 2,518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음.
- 이 금액 중 95만 유로는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해 북한에 지원할 계획임.

자료 : www.reliefweb.int (Government of Finland, Finland awards 25 million euros in humanitarian aid, Feb. 23, 2004)

□ 캐나다, 대북 긴급식량지원

- 캐나다의 아일린 캐롤 국제협력부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100만 달러에 상당한 식량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캐나다는 지난 2월 초에도 북한에 100만 달러의 식량지원을 발표함으로써 이번 지원까지 합치면 총 2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는 셈임.
- 이 기금은 캐나다국제개발처(CIDA)가 세계식량계획에 직접 전달될 예정임.
- 금년 캐나다는 국제개발처와 곡물은행(Canadian Foodgrain Bank)를 통해 북한에 133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anada responds to food emergency in North Korea, Feb. 23, 2004)

□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북한에 육류통조림 지원

-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는 북한에 135 톤의 육류통조림을 지원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50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짐.

- 동 위원회가 지원한 통조림은 4월 중순경 북한에 도착할 예정임.
 - 4월은 일년 중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달로써 식품점에는 재고가 바닥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Mennonite Central Committe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sending 135 metric tons of canned meat to North Korea, Mar. 5, 2003)

□ Mercy Corps의 대북 사과나무 지원사업

- Mercy Corps의 대북 사과나무 지원사업으로 10만 본의 사과묘목을 북한에 지원함.
 - 2000년부터 시작된 사과나무 지원사업은 북한의 지속적인 농업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북한에 지원된 사과나무 묘목은 과일군에 심길 예정이며 생산성이 높고 가뭄과 병저항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Mercy Corps는 2000년부터 세 차례 총 71,000본의 사과묘목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65,000 톤의 비료, 15,000 톤의 잔디 및 알팔파 종자, 23,000 톤의 종자(감자, 보리, 밀, 옥수수, 콩)를 지원하였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Bulletin Feb 2004, Mar 12, 2004)

□ ADRA, 북한의 농촌에너지 해결을 위한 지원

- ADRA(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는 유엔인도지원조정국과 함께 북한 농촌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
 - 바이오 가스는 연중 생산할 수 있지만 기온이 섭씨 1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문제가 됨.
 - 특히 북한처럼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 바이오 가스의 생산은 불가능함.
- ADRA가 지원하는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은 온도와 상관없이 연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화석원료를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감, 온실가스 발생에 의한 오염 방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

자료 : www.reliefweb.int (ADRA, ADRA North Korea & partners to improve energy source, Mar. 29, 2004)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2004년 1~3월의 평균기온은 평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높았음. 특히 금년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6.7도로 평년의 영하 8.1도에 비해 1.4도나 높았으며, 2월의 평균기온도 평년에 비해 2.9도, 3월의 평균 기온은 0.5도 높았음.
- 이러한 겨울철 고온현상은 작년에 이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장마철 집중호우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로 볼 때 북한의 겨울철 기온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한겨울의 기온이 높은 것은 그해 농작물에 병충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해 농사시 병충해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그러나 3월의 높은 기온은 가을밀, 보리 등 겨울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강수량

- 2003년 1~3월의 누적강수량은 전국 평균 85.5mm로 평년의 150% 수준으로, 특히 2월의 강수량이 평년의 3배 이상을 보임. 전국 27개 관측지점 중에서 삼지연, 구성, 희천, 함흥, 원산, 평양, 평강, 개성 등의 지역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60mm가 넘는 강수량을 나타냄.
- 평년에 비해 적은 강수량을 보인 선봉지역과 김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평년에 비해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4~5월에 어느 정도의 강우량을 기록한다면 올해의 농사에서는 봄가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황해남도, 평안남북도의 서해안 곡창지대의 1~3월 중 강수량이 1월과 3월은 지극히 낮고 2월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 지역이 4~5월의 강우량에 따라 가뭄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줌.

□ 누적강수량, 1~3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28.4 (36.2)	133.2 (73.3)	50.7 (48.4)	64.0 (29.6)	58.4 (30.5)	107.2 (35.2)	31.9 (31.7)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43.2 (52.3)	85.2 (46.1)	52.1 (44.5)	60.7 (36.3)	118.2 (51.7)	110.6 (47.8)	82.9 (53.9)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80.2 (61.1)	97.6 (61.1)	77.4 (53.6)	81.4 (118.4)	84.5 (51.4)	16.9 (52.5)	82.9 (156.0)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52.3 (47.8)	54.7 (70.5)	65.4 (49.8)	76.4 (53.4)	382.4 (58.1)	128.6 (74.6)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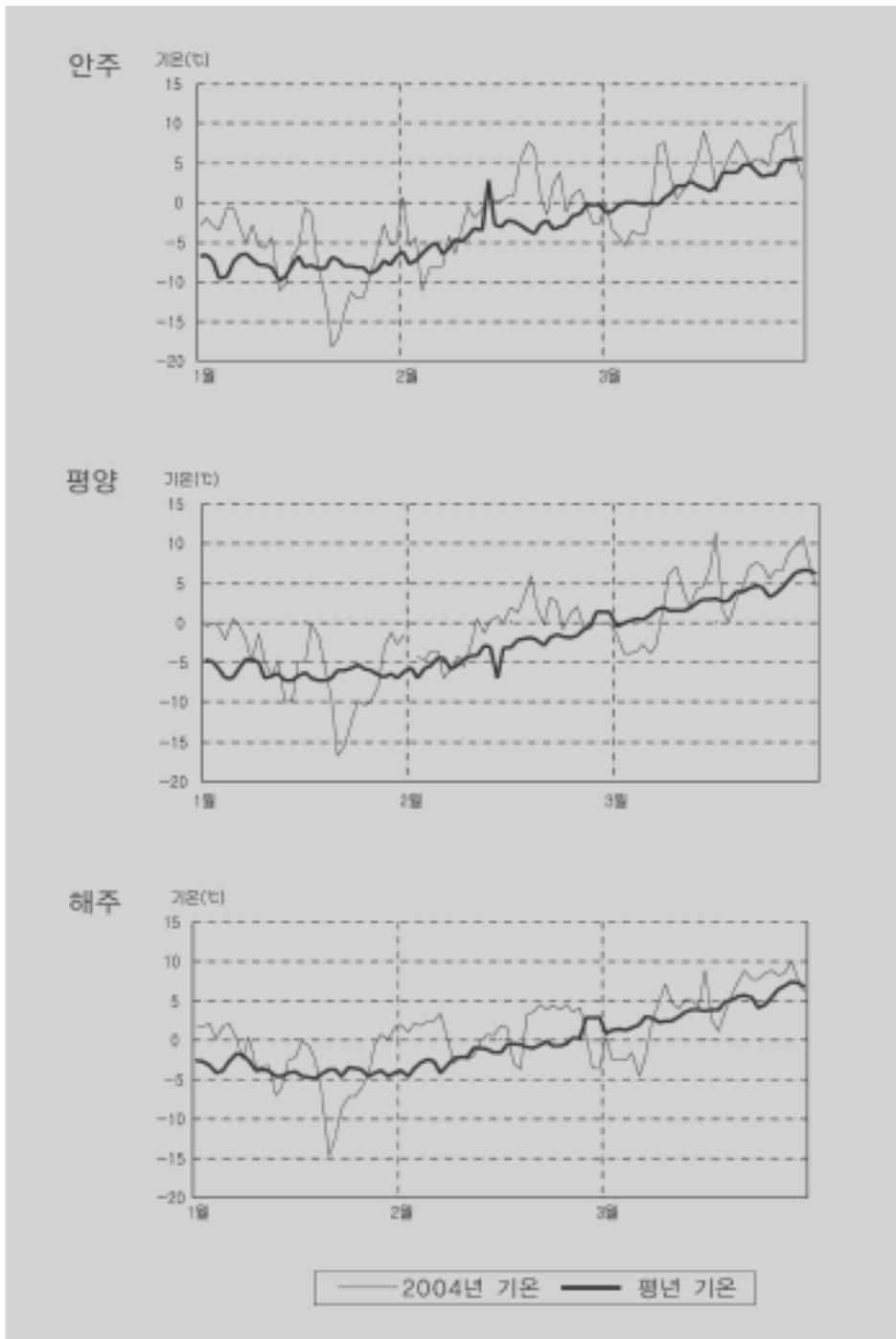
단위: °C(기온), mm(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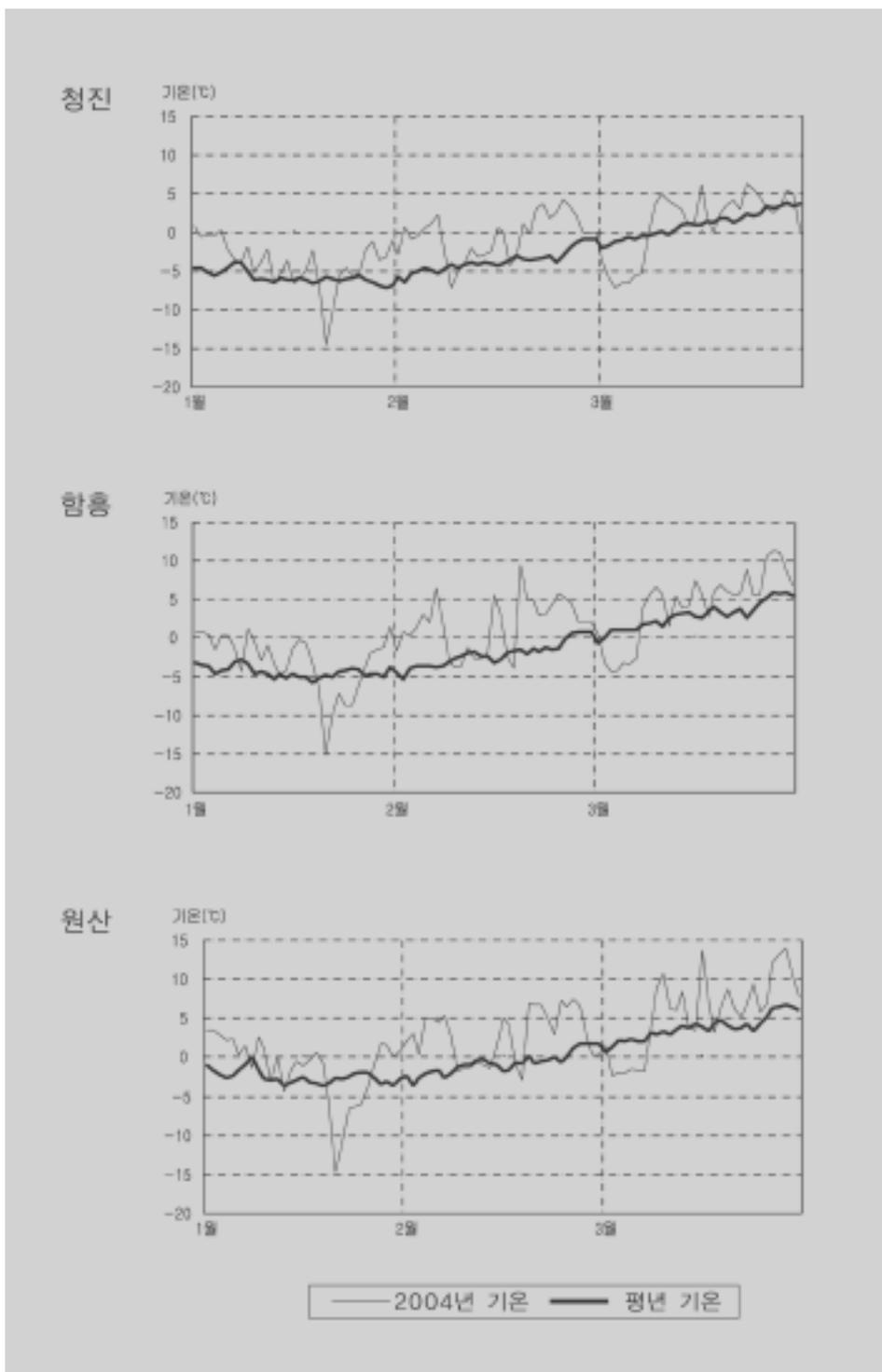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1월	기 온 -6.7 (-7.8)	-5.3 (-6.2)	-2.9 (-3.7)	-3.9 (-5.7)	-3.1 (-4.4)	-1.4 (-2.5)
	강수량 9.2 (12.7)	8.0 (10.9)	4.7 (11.7)	3.4 (12.0)	12.9 (13.9)	13.0 (39.3)
2월	기 온 -0.9 (-3.8)	0 (-3.3)	1.4 (-1.5)	-1.6 (-3.9)	1.0 (-2.3)	2.2 (-0.9)
	강수량 77.0 (12.3)	65.4 (11.6)	56.7 (13.8)	29.1 (15.7)	68.1 (15.0)	66.4 (36.0)
3월	기 온 3.3 (2.3)	3.8 (3.0)	4.3 (4.0)	1.4 (1.1)	4.2 (2.9)	5.8 (3.8)
	강수량 11.4 (36.1)	11.1 (28.9)	15.0 (27.9)	18.2 (20.7)	1.9 (25.0)	2.0 (43.1)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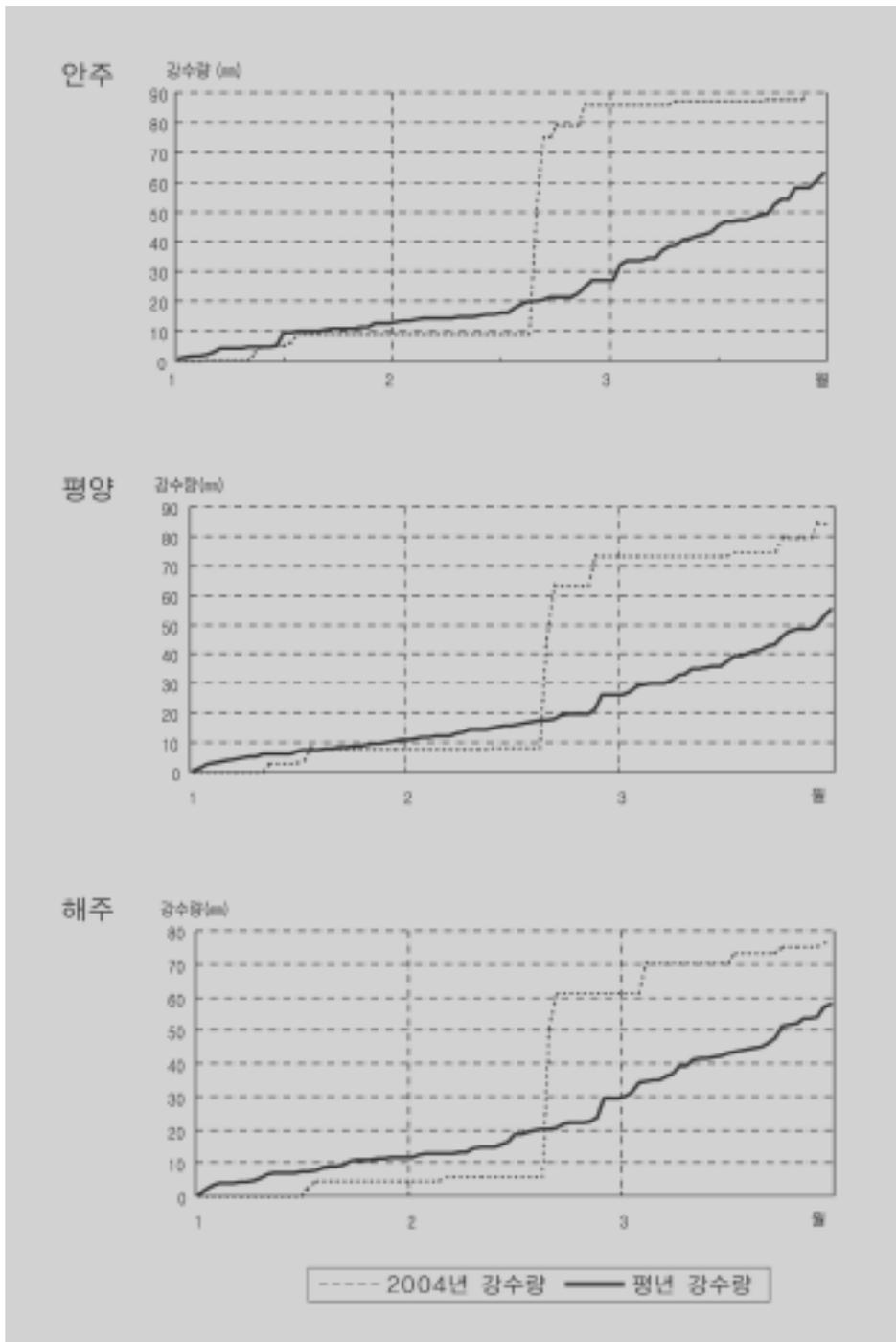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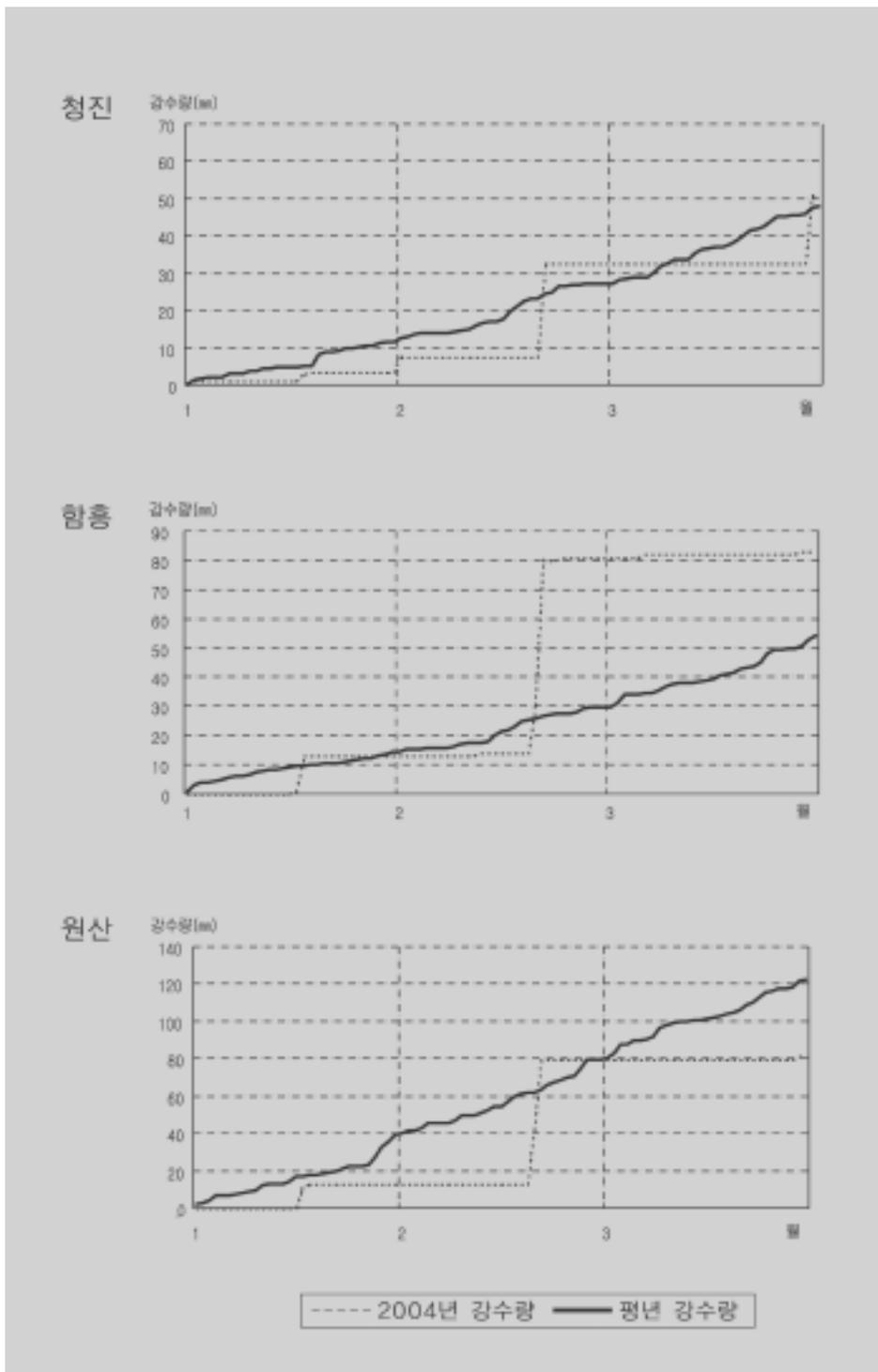
□ 월 평균기온





□ 누적 강수량





M46-6-1 KREI 북한농업동향 제6권 제1호

찍 은 날 2004. 4. 펴낸날 2004. 4.
발 행 인 이 정 환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